선물동물들에 깃든 사연

선물동물들에 깃든 사연

외국문출판사
조선 · 평양
주체99(2010)년

머 리 말

조선의 중앙동물원은 수도 평양의 교외에 있는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 자리를 잡고있다.

50여년전 오소리 몇마리로부터 시작된 중앙동물원은 오늘 세계 5대륙에서 사는 수많은 희귀한 동물들을 볼수 있는 희한한 동물원으로 전변되였다.

조선의 중앙동물원에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께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들과 정계, 사회계의 고위인사들, 주체사상 신봉자들과 동물학자들, 평범한 기업가들, 해외동포들이 그분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안고 정성껏 마련하여 올린 수많은 선물동물들이 있다.

이 책에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보내온 선물동물들에 깃든 사연과 그 생태학적특성, 동물들의 세계에 대한 흥미있는 상식과 일화들을 편집하였다.

차 례

일화와 상식

조선에 온 코끼리들

첫 선물동물 영웅코끼리

세상에는 코끼리가 살고있는 고장도 많으며 그 수도 적지 않다. 그러한 코끼리가 전쟁에 리용된지는 수천년전부터이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코끼리는 오직 한마리뿐이다.

웰남의 이 영웅코끼리는 다른 많은 코끼리들과 함께 프랑스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웰남전쟁에 참가하였다.

이 코끼리는 8년동안 포탄과 군수물자를 많이 운반하여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가렬한 전투환경에서도 무거운 군수물자를 등에 싣고 길없는 산림속으로 곧잘 다니였으며 적비행기들의 기습을 피하여 숲속에 재빨리 숨기도 하였다.

전승에 기여한 공로로 하여 이 코끼리는 정부로부터 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호지명주석은 이 영웅코끼리를 정부의 특별한 보호속에 나라의 귀중한 재보로 기르게 하였다.

바로 그 영웅코끼리가 조선의 중앙동물원에 보금자리를 잡았다. **김일성**주석께 웰남의 호지명주석이 삼가 선물로 올렸던것이다.

김일성주석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간직하고있던 호지명주석은 그이께서 인민들을 위해 전후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풍치좋은 대성산기슭에 동물원을 건설하기로 하셨다는것을 알게 되자 즉시 코끼리를 선물로 올릴것을 결심하였다.

호지명주석의 지시에 따라 웰남에서는 전국의 코끼리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호지명주석은 선발된 코끼리를 자신이 직접 보면서 고르고 또 골랐다. 그러나 아무리 골라야 그의 마음에 드는 코끼리가 없었다.

안타까움속에 모대기던 호지명주석은 문뜩 영웅코끼리를 상기

하게 되였다.

바로 이렇게 되여 호지명주석은 1959년 8월 12일 웰남의 영웅코끼리를 **김일성**주석께 선물로 올리게 되였다.

《장가》 온 수코끼리

조선에 온 웰남코끼리의 원종은 인디아코끼리이다. 인디아코끼리를 번식시키는것은 대단히 힘든 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조선에 온 영웅코끼리는 자손을 많이 보아 4대에 이르렀다. 아마도 그것은 이 영웅암코끼리가 제때에 좋은《남편》을 만났기때문일것이다.

여기에는 참으로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영웅코끼리가 온 후 중앙동물원에 나오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웅코끼리의 재주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코끼리수컷이 있어야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동물원일군들은 수코끼리를 구하기 위해 웰남을 찾아가게 되였다.

수코끼리

사연을 알게 된 당시 웰남의 범문동수상은 관계부문 일군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일성**주석께 선물로 올릴 수코끼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토론하였다. 수상은 자신이 직접 하노이시에 있는 동물원과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코끼리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코끼리를 구할수 없게 되

자 그는 외화가 들더라도 라오스에 가서 수코끼리를 마련해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라오스에서도 훌륭한 수코끼리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범문동수상은 즉시에 전국적으로 수코끼리를 찾을데 대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지방농촌에서 한 농민이 10년동안 정성껏 키우고 있던 훌륭한 수코끼리를 찾아내게 되였다.

이렇게 뽑힌 수코끼리는 조선의 영웅코끼리에게《장가》를 왔다.

영웅코끼리의 몸질량은 4t이였고 수코끼리는 5t이였다.

영웅코끼리《가정》

영웅코끼리는 조선에 올 때 자기의 2살난 새끼(암컷)를 데리고왔다.

조선에서는 영웅코끼리의 이름을 그 이름 빛난다는 의미에서 《영광》이라고 지어 불렀고 그가 데리고 온 새끼에게는 모란꽃처럼 고우라는 의미에서《모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또한 영웅코끼리와 한쌍을 이룬 수코끼리에게는 당시 조선에 하나밖에 없는 수코끼리라는 의미를 담아《하나》라고 이름지어주었다.

《모란》이는 모두 8마리의 후대를 보았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동물원을 찾으시여 조선에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귀중한 동물을 선물로 보내준 호지명주석을 잊지 못해하시며 선물코끼리해설판을 잘 만들어 붙이라고 말씀하시였다.

1968년 4월 14일 중앙동물원을 찾으신 주석께서는 영웅코끼리네 식구가 또 늘었다는것을 보고받으시고 코끼리는 18살이 넘어야 번식할수 있다는데 우리 동물원의 코끼리는 10살도 못되여 새끼를 낳았으니 새로운 기록이라고 하시였다.

1982년 4월 4일 **김일성**주석께서는 중앙동물원을 또다시 찾아오시여 영웅코끼리자손들이 한줄로 나란히 서서 인사를 하고

인디아코끼리 《영광》, 《모란》

코로 《악수》하는것을 보시고 대단히 기뻐하시였다.

현재 동물원에는 영웅코끼리의 후대들인 《화성》(수컷)이와 《5월》(수컷)이가 있다.

오늘 중앙동물원의 코끼리들은 인사로부터 엎드려기기, 대가리에 리봉처럼 매단 북을 코로 치기, 발목에 단 징을 장단맞춰 코로 두드리기 등 여러가지 교예를 능숙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땅우의 가장 큰 동물 아프리카코끼리

땅우에서 사는 포유동물들가운데서 가장 큰것은 어느 동물인가?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큰 귀를 펄럭이는 코끼리일것이다.

코끼리가운데서도 아프리카코끼리가 가장 크다. 그러고보면 코끼리는 역시 땅우의 포유동물들의 당당한《좌상》이다. 땅우의 가장 큰 동물도 코끼리(아프리카코끼리)요, 가장 오래 사는 동물도 코끼리(인디아코끼리 최고 78년을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이기때문이다.

아프리카코끼리의 수컷은 어깨까지의 높이가 평균 3.2m이다. 아프리카코끼리는 인디아코끼리에 비해 귀가 매우 크고 잔등의 한가운데가 움푹 들어갔다.

아프리카코끼리

귀의 크기는 너비 1m, 길이 1.68m나 되므로 마치 옷의 깃처럼 잔등을 푹 덮는다.

몸질량은 보통 4~6t, 큰것은 12t까지 나간다. 상아는 암수에다 있는데 길이는 3.4~4m, 질량은 최고 100여kg이나 된다고 한다.

이 코끼리들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밤에 물을 먹는데 무리지어 물먹으려 가서는 떠들썩하게 소리를 내면서 30분정도 먹은 다음에야 먹이를 먹으려간다. 보다 건조한 곳에서 사는 코끼리들은 강바닥의 모래불에 작은 우물을 파서 자기들뿐아니라 그 지역동물들에게 《생명수》를 준다.

물을 찾는 코끼리의 행동은 대단히 흥미있다.

코끼리는 코와 발로 모래를 파서 샘줄기를 찾아 물웅뎅이를 만든 다음 그곳을 발로 누르면서 물이 고일 때까지 기다린다. 만약 요구대로 물이 고이지 않으면 코끼리는 계속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때문에 아프리카에 코끼리가 많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어디서 산다고 딱 찍어서 말하기가 어렵다.

아프리카사람들은 코끼리에게 짐마차를 끌게 하거나 잔등에 짐을 실어나르는 등의 작업을 시키는데 보통 2마리의 코끼리가 2t짜리 짐을 끈다고 한다.

유럽의 동물원들에서는 아프리카코끼리를 길들여 교예를 시키거나 아이들을 잔등에 태우고다니게 한다.

인디아코끼리보다 아프리카코끼리의 지능이 더 발달되였다.

선물동물들가운데는 **김정일**령도자께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삼가 올린 아프리카코끼리 《아프》와 《리카》도 있다.

털코끼리가 다시 태여날수 있을가

털코끼리(맘모스)란 말을 아마도 처음 듣는 독자들이 있을수 있다. 그것은 이 코끼리가 이미 몇십만년전에 사멸해버린 동물이기때문이다.

코끼리의 한 종류였던 털코끼리는 먼 옛날 유럽과 이전 쏘련의 북부지대에 살았다고 한다.

지구우에서 아주 없어져버린 이 털코끼리를 되살릴수 있겠는가.

오늘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생명과학은 이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수 있는 희망을 주고있다.

1977년 여름 씨비리 마가단부근에서는 새끼털코끼리가 발견되였다. 얼음속에 묻쳐 생생한채로 있는것이였다.

학자들이 조사한데 의하면 그 조직이 잘 보존되여 혈관도 보이고 그속에 얼마간의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이 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동물의 단백질구조를 밝혀보니 단백질알부민과 혈청알부민이 인디아코끼리의것과 꼭 같았다.

이것은 털코끼리가 아프리카코끼리보다 인디아코끼리에 더 가깝다는것을 말해준다.

학자들은 털코끼리의 조직에서 산 세포를 찾아내여 인디아코끼리의 란자와 결합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털코끼리가 생길수 있었던것이다. 하지만 이 털코끼리에서는 산 세포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후 1978년 여름에 하딴가강에서 암털코끼리의 시체를 발견하여 혀의 조직을 시험해보았는데 역시 실패하고말았다.

하지만 연구는 계속되고있다. 이 연구가 성공하기만 하면 몇십만년전까지 북반구의 대륙에 널리 퍼져있던 털코끼리가 되살아날수도 있을것이다.

민족풍습에 따라 온 동물들

탄자니아사람들은 예로부터 자기 나라에 동물자원이 많은것을 자랑으로 여겨왔으며 자기들이 따르는 위인들에게 그 힘이 무한하고 영원한것으로 되여달라는 뜻에서 동물을 선물로 드리는 풍습이 있다.

이 풍습에 따라 줄말을 비롯한 수십종의 동물들이 머나먼 대륙을 넘어 조선에 왔다.

줄 말

줄말은 **김일성**주석께 이전 탄자니아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가 선물 올린것이다.

니에레레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돐때 조선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을 만나뵙게 되였다. 그날 **김일성**주석께 그는 자기 나라의 풍부한 동물원천에 대하여 자랑하면서 아프리카의 희귀한 짐승들과 새들을 선물로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다.

김일성주석을 끝없이 흠모해온 니에레레대통령은 자기 민족의 풍습대로 동물을 대통령취임후 첫 선물로 그이께 삼가 올리기로 결심하였다.

자기 나라로 돌아간 즉시 대통령은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회의를 열고 선물준비집단을 조직하였다. 탄자니아에서는 자연동물원의 희귀한 동물들을 조사장악하는 사업이 벌어졌다.

그는 아프리카의 동물들가운데서도 탄자니아인민이 오래동안 수집관리하여 국가재부로 귀중히 보호하고있는 진귀한 짐승들과 새들을 선정하였다.

그는 자연상태에서 사는 동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성 동

물국장이 직접 책임지고 선정된 동물들을 반년나마 관찰하며 길들이게 했다.

대통령은 모든 정성을 다하고도 무엇인가 미흡한 점이 있는것만 같아 조선의 동물전문가들에게 선정된 동물들을 직접 보아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선물동물을 마련하는 사업이 사소한 빈틈도 없이 끝나자 담당일군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특별히 잘 운반하기 위한 방도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속에 생김새가 특이하고 큰 짐승들을 운반하기 위한 특별한 함이 준비되였으며 전문기술일군들이 동물들을 관리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1969년 6월 9일 **김일성**주석께 당시 탄자니아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가 올리는 20여종의 동물과 함께 줄말도 중앙동물원에 오게 된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 아주 고운 동물이라고 하신 줄말은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규칙적으로 나있어 깨끗해보이는 몸색갈과 어울리게 몸매도 미끈하며 크고 유순한 눈으로 하여 수집음을 타는것같은 인상을 준다.

줄 말

김일성주석께서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동물원을 찾으실때마다 니에레레대통령이 아프리카의 희귀한 동물들을 선물로 보내온데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친히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귀중한 선물동물들에 대한 사양관리를 잘하여 많이 번식시킬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줄말은 아프리카남부에서 산다. 지금까지 남아있는것은 3개의 종과 몇개의 아종뿐이다.

줄말의 몸질량은 325~375㎏이다.

줄말은 보통 10~100마리정도씩 무리를 이루는데 나이먹은 수컷만은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산다.

줄말의 줄무늬는 얼핏 보면 발견하기 쉬울것 같지만 아프리카의 원산지에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으며 일종의 보호색역할을 한다.

줄말은 말승냥이를 제일 무서워한다. 줄말이 말승냥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은 빨리 도망치는것이다. 줄말은 시속 64㎞의 속도로 달릴수 있다. 하지만 줄말은 흰수염들양과 함께 사자의 먹이로 되는 일도 많다.

줄말은 조금이라도 빨리 위험을 알아내기 위하여 소리와 냄새에 끊임없는 주의를 돌린다.

줄말은 적이 몸가까이에 오거나 무리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울 때에는 뒤발로 차거나 앞발로 때리며 앞이로 물기도 한다.

밤이 되면 줄말들은 새끼들을 가운데 두고 큰 말들은 엉뎅이를 바깥쪽으로 하여 원형으로 한데 모여서 휴식한다. 만약 맹수들의 습격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새끼들을 보호할수 있고 달려드는 적을 뒤발통으로 차서 물리칠수 있다.

줄말은 성질이 매우 사납고 다급하기때문에 길들이기가 어렵다. 때문에 옛날부터 아프리카원주민들은 줄말을 사냥하여 고기와 가죽을 리용하였다.

오늘 줄말은 국제자연보호련맹에서 보호대책을 취하고있으며 해당 나라들에서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있다.

타 조

김일성주석께 이전 탄자니아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와 부대통령 알리 하싼 무위니는 여러마리의 희귀한 선물동물들을 올릴 때 아프리카타조를 함께 올리였다.

조류에 속하는 타조가 땅우에서 《달리기선수권보유자》라면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타조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날지 못하는 새이지만 1시간에 보통 60~70 ㎞를 달리며 빠를 때에는 96 ㎞까지도 달린다. 동물중에서 제일 빠른 표범의 속도가 90~ 100 ㎞/h라고 볼 때 타조는 사막의 달리기선수만이 아니라 땅우에서 달릴수 있는 모든 동물들과의 경기에서도 1, 2 등을 겨룰수 있는《달리기선수권보유자》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타조는 키가 2~3m이며 몸질량은 150 ㎏정도이다.

타조는 독풀을 제외한 모든 풀을 다 먹는다.

타조는 알에서 40일만에 까나오는데 10달 지나면 100 ㎏이나 된다. 알껍질은 든든하기때문에 물바가지로 리용할수 있다.

타조가죽은 물이 새지 않고 질기며 부드러워 악어가죽이나 소가죽보다 훨씬 좋다.

그러고보면 타조를 가리켜 《깃털달린 소》라고 하는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가죽은 고급신발과 장갑, 옷, 가방을 만드는데 리용하므로 수요

아프리카타조

가 높다.

타조의 털은 장식용으로 쓰인다. 털에는 정전기현상이 없으므로 정밀기계를 청소하는 솔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타조는 대가리에 비해 눈이 큰것이 특징이다. 선 자리에서 20여리나 내다볼수 있다.

타조는 대단한 겁쟁이이기도 하다. 5리밖에서 나는 락타소리를 듣고도 무서워 줄행랑을 놓으며 무엇이든 다 무서워한다.

동물원에서도 어둑시근한 집에는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타조는 물이 매우 귀한 건조한 사막에서도 락타처럼 더위와 갈증에 잘 견디므로 아프리카사람들은 타조를 《락타새》라고도 부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타조는 놀이장에 있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사막에서 그리웠던 물생각을 해서일수도 있다.

이처럼 타조는 버릴것이 하나도 없고 기르기도 쉬운 동물이다.

오늘날 타조의 종류는 6종으로 보고있다.

김일성주석께 이전 에티오피아대통령 멩기스토 하일레 마리암도 아프리카타조를 선물로 올리였다

아프리카물소

김일성주석께 탄자니아의 이전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가 아프리카물소를 선물로 올리였다.

몸질량이 600~900 kg에 달하는 아프리카물소는 성질이 사나운 동물이다.

아프리카물소를 잡아 먹는것은 사자뿐이라고 하지만 사자도 무리에서 떨어진 어린 물소를 습격할뿐이고 다 자란것에는 좀처럼 달려들지 못한다. 이 물소는 1 000~2 000마리의 무리를 짓고 초원에서 살며 해발 3 000m 정도의 높이에서도 살고있다.

아프리카물소의 특징은 새김질을 매우 오래하는것이다. 먹이덩이가 한번 올라오면 45~79번 최고 90번까지 씹는데 왼쪽으로 씹다가 오른쪽으로 바꾸어 씹는다.

갓난 새끼의 몸질량은 30~40 kg이나 된다.

아프리카물소

가장 큰 자연동물원에서 온 잔무늬표범

아프리카에는 자연그대로의 흥미있는 동물세계를 볼수 있는 자연동물원이 많다.

탄자니아에는 26개의 자연동물원이 있는데 제일 큰것은 세렌게티국립공원과 은고론고로공원이다.

이 두 자연동물원에는 약 150만마리의 들소, 20여만마리의 줄말, 4 600여마리의 코끼리, 7 400여마리의 물소, 1 500여마리의 하마, 1만여마리의 작은사슴, 4 000여마리의 히에나, 2 000여마리의 사자, 800여마리의 표범, 100여마리의 서우, 23만여마리의 들양 등 많은 짐승들이 있다.

이 자연동물원을 찾는 외국관광객은 해마다 12만명을 헤아린다고 한다.

관광객들은 관람용자동차를 타고다니며 희한한 동물세계를 직접 볼수 있다.

자연동물원의 한가운데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이 있다. 호텔의 여기저기에는 크고 작은 포대경들이 설치되여있어 앉아서도 동물세계를 구경할수 있다.

저녁의 호텔주변은 볼만 한 광경을 이룬다.

무시무시한 자연동물원의 밤이다.

하지만 호텔주변은 대낮같이 밝혀놓는다. 이 불빛을 따라 호텔주변으로는 늙은 들양이나 물소들이 주런이 모여든다.

그들은 사람들가까이에서 편안히 잠자리를 정했다가 아침에 사람들이 깨여날무렵이면 도로 자기 《집》들로 돌아가군한다.

맹수들은 불빛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다는것을 알며 아무리

제노라하는 맹수일지라도 사람은 무서운 존재인것이다. 바로 이 점을 알고있는 늙은 짐승들은 사자와 같은 맹수들의 습격에서 벗어나 무서운 밤을 편안히 지내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오군 하는것이다. 그러니 이 호텔주변은 늙은 짐승들의 아늑한《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잔무늬표범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지나 자동차를 타고 동물원으로 가는 길에는 야자나무숲이 우거지고 그윽한 향기를 뿜는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무성하다.

록음우거지고 경치 아름다운 열대수림은 말그대로 동물들의 활무대이다.

탄자니아의 이전 부대통령 알리 하싼 무위니는 **김일성**주석께서 동물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큰 규모의 훌륭한 동물원을 건설하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지니고계신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1985년 4월 조선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 부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동물원을 가지고있는 자기 나라에서 그이께 희귀한 동물들을 선물로 올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귀국한 그는 외교부, 내무부, 자원 및 관광부의 고위급 간부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 탄자니아의 제일 큰 자연동물원에서 **김일성**주석께 올릴 선물동물들을 마련할데 대한 지

시가 내려졌다.

부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속에 30여명으로 무어진 우수한 동물기술자들과 사냥군들이 자연동물원에 들어갔다. 그들은 탄자니아맹수로 알려진 잔무늬표범을 비롯하여 작은 들양, 아프리카타조 등 많은 동물들을 잡아들였다.

한편으로는 야생동물을 동물원조건에 적응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연구사업도 진행되였다.

부대통령은 여러차례 현장에 나가 매개 동물들의 상태도 알아보고 선물함을 만드는 일도 깊은 관심속에 보살폈다.

드디여 탄자니아부대통령 알리 하싼 무위니는 1985년 8월 23일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 마련한 4마리의 잔무늬표범을 비롯한 20여마리의 동물을 선물로 올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탄자니아인민의 지성이 깃든 선물동물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선물동물사를 잘 짓도록 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 올린 잔무늬표범가운데는 1973년 4월 12일 당시 소말리아대통령이 보내온것도 있다.

가장 먼 《려행》을 한 기린

짐바브웨에는 자기 나라의 희귀한 동물인 기린을 수송시간이 8시간정도 걸리는 나라에만 보내는 관례가 있다. 그것은 기린이 소음에 대단히 예민한 동물이기때문이다. 기린은 소음에 의한 자극을 남달리 강하게 받아 오랜 시간의 려행을 견디여내기 힘들어한다. 하지만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는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 8시간이상 수송하면 죽는다던 기린을 비행기로 20여시간이나 걸리는 조선으로 무사히 보내주었다.

로버트 지. 무가베대통령이 기린을 선물로 마련한다는것을 알게 된 해당 부문 일군들은 평양까지의 그 먼 길에 어떻게 기린을 무사히 보내겠는가고 매우 난처해하였다. 더우기 예민한 기린을 운반해가다가 비행기소음때문에 12마리가운데서 8마리나 죽은 실례가 있는지라 머나먼 조선으로 기린을 보내는것은 보통의 정성으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기린을 조선에 보내여 인민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김일성**주석께 기쁨을 드리려는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전문가들에게 수도로부터 1 500㎞나 떨어진 자연동물원에 가서 기린을 구해올것을 명령하였다.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따라 기린을 잡기 위한 사냥조가 무어지게 되였다.

사냥조원들은 자연동물원의 드넓은 동물세계를 말을 타고 누볐다. 말을 타고 달리다가 멀리 기린이 나타나면 거리를 좁히면서 묘준하여 둥그렇게 감은 굵은 끈을 기린의 목에 날쌔게 걸었다. 그들은 이런 사냥을 여러번 거듭하여 잡은 기린가운데서 가장 크고 보기좋은 기린을 2마리 선정하였다.

무가베대통령은 기린을 직접 잘 살펴보고나서 각별한 정성을 안고 기린의 먼 려행준비를 지휘하였다. 비행기소음을 막아주기

위해 솜으로 귀를 막고 오무라뜨린 다음 붕대로 감아주었고 비행기가 움직일 때 키가 큰 기린이 상하지 않도록 함안에 두툼한 가죽과 피대를 정성껏 대주었으며 목을 추길수 있게 물그릇까지 매달아주었다.

김일성주석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담아 무가베대통령은 1991년 9월 20일 이처럼 정성을 기울인 별무늬기린과 그물무늬기린을 선물로 올리였다.

김일성주석께 탄자니아의 이전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와 부대통령 알리 하싼 무위니도 기린을 선물로 올리였다.

기린은 키가 무척 큰 짐승이다. 기린의 키는 무려 4.5~6m에 달한다. 기린의 몸질량은 암컷이 500~750 kg, 수컷이 980 kg정도이다.

기린은 시각이 매우 발달하였다. 기린은 붉은색, 누른색, 풀색, 불색, 푸른색, 누른풀색을 구별할수 있다.

별무늬기린

기린은 사슴처럼 붉은색을 제일 경계한다.

기린의 위는 고도로 발달되였다. 때문에 짧은 시간안에 영양물질을 흡수할수 있다.

기린은 물이 가까이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한달이라도 먹지 않는다.

기린은 헤염칠줄 모른다. 때문에 물에 들어가지 않으며 강을 건느는 일이 거의 없다.

기린의 적은 사자이다. 사자는 기린이 물을 먹는 순간을 노린다. 그것은 기린이 눈이 밝은데다가 귀까지 밝아 적이 접근하는

그물무늬기린

것을 인차 알기때문이다. 사자는 기린이 물을 먹을 때 2~3마리가 협동하여 달려든다. 기린의 달리는 속도는 시속 50 ㎞이고 두발로 뛸 때 한발자국의 너비는 4m 나 된다. 적에게 쫓길 때에는 발로 차거나 대가리를 휘둘러 들이받는다. 수컷들끼리 싸워 목뼈가 부러지거나 지어 죽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기린은 온순한 동물이지만 필요한 때에는 달려들기도 한다.

새끼달린 어미는 사자의 공격을 받으면 다리로 치는데 그 힘은 대단히 센것이여서 타격을 받은 사자들은 대부분 뼈가 부러지고만다.

기린은 서서 자며 때로는 앉아서 자기도 하는데 목은 뒤로 돌려 대가리를 엉뎅이우에 척 올려놓고 잔다. 여러마리가 모여앉아 잘 때에는 엉뎅이를 안으로 놓고 목은 밖으로 향하게 하고는 목을 휘둘러 방어태세를 갖추고 잔다.

기린은 좀처럼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일생동안 5~6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나서 20초안팎에 숨쉬기 시작하고 일어서서 인차 어미를 찾는다.

기린은 자극성냄새, 연기 등에 매우 예민하며 싫어한다.

별무늬기린, 그물무늬기린은 사하라사막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살고있다.

수명은 14~25 년이다.

혹 메 돼 지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김일성**주석께 올린 선물동물가운데는 혹메돼지도 있다.

혹메돼지는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에서 살고있는 야생동물이다.

혹메돼지

귀아래와 웃턱송곳이의 뒤쪽에 혹이 있는 세상에서 보기드문 동물이다. 혹메돼지는 힘이 대단히 세고 무리로 다니기도 하므로 사람들이 범접하기가 힘들다.

혹메돼지의 특성은 이발이 특이한것이다.

수컷의 웃턱송곳이는 25~63㎝까지 자라며 암컷의 송곳이는 그보다 좀 작다.

혹메돼지는 이 굳센 송곳이를 리용하여 살아나가며 자기를 방어하기도 한다. 송곳이로 땅을 뚜지며 나무뿌리, 나무의 싹, 과일을 찾아 먹고 때로는 썩은 고기도 먹는다. 송곳이로 둥지를 크게 넓히고 몸을 숨기기도 한다. 놀라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맹렬하게 저항하면서 송곳이로 상대방을 타격한다.

동물원에서 혹메돼지는 그 이발로 견고한 문짝이나 방에 있는 물건들을 마사버리기도 한다.

혹메돼지는 숲이 무성한 초원에 불이 나도 자기 굴을 떠나지 않으며 불이 자기가 있는 굴을 통과할 때까지 나오지 않는다.

혹메돼지는 보통 암컷과 수컷이 새끼를 거느리고 작은 무리를 짓고 산다. 그리고 다리는 짧아도 달리는 속도는 매우 빨라 시속 45㎞나 된다. 달릴 때에는 꼬리를 안테나처럼 곧추 세우고 달린다.

혹메돼지는 기르는 조건에서는 사람을 잘 따르고 관리공도 알아보지만 갑자기 놀래우면 갈기털과 꼬리를 곧추 세우고 눈이 둥그래진다. 다음 순간에는 대가리를 약간 낮추면서 귀를 뒤로 세우고 발을 약간 움츠렸다가 앞으로 달려든다.

만약 이런 경우를 당하면 동물의 행동방향과 90°각으로 비켜서야 한다.

숲메돼지

숲메돼지는 **김일성**주석께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선물로 올린것이다.

숲메돼지는 마다가스까르와 감비아 등의 산림지대에서 산다. 울창한 산림에서 산다고 하여 숲메돼지라고 부른다.

이 메돼지는 눈앞에 4㎝정도의 혹이 두드러져 나와있고 웃턱의 송곳이는 7.6㎝, 아래턱의 송곳이는 16.5~19㎝이다.

숲메돼지

잠잘 때에는 암컷과 수컷이 다정하게 나란히 누워자지만 좋은 잠자리는 수컷이 차지하며 먹이도 수컷이 먼저 먹고 나머지를 암컷이 먹는다. 숲메돼지를 기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습도를 보장해주는것이다. 습한 지대에서 살던 숲메돼지에게 있어서 건조한 생활조건은 치명적인 타격으로 된다.

수명은 15년정도이다.

특별한 관심속에 마련된 사향고양이

김일성주석께서 받으신 선물동물중에는 특별한 관심속에 마련된 동물도 있다. 그것은 에티오피아의 이전 대통령 멩기스토 하일레 마리암이 올린 아프리카사향고양이이다.

1983년 자기 나라 인민들을 가장 가까운 벗으로 믿으시며 사심없는 원조를 주시고 아프리카대륙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기들의 투쟁에 언제나 굳은 련대성을 보내주시는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 대통령은 자기 나라로 돌아간 즉시 그이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나라의 귀중한 보호동물인 사향고양이를 선물로 올릴것을 결심하였다.

그해 4월 어느날 대통령은 당정치위원회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맞으며 선물동물수집사업을 빨리 다그칠데 대하여서와 유능한 포수들과 대학생들로 선물준비위원회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이 나라에서 선물동물들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벌어지고있던 어느날이였다. 나라의 희귀한 동물들을 선물명세에 넣어가던 대통령은 일군들이 작성한 동물명세표에 사향고양이가 없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사향고양이는 장생불로약으로 일러오는 귀중한 약재인 사향을 주는 희귀한 동물이다.

대통령은 일군들에게 절절하게 자기 심정을 이야기했다.

…나는 이처럼 귀중하고 희귀한 사향고양이가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있는것을 행운으로 생각한다. 사향고양이가 세계 인민들의 존경을 받고계시는 **김일성**주석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을것이다.…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멩기스토 하일레 마리암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선물명세표에 《사향고양이 10마리》라고 크게 써넣었다.

대통령은 선물동물을 마련하기 위한 사냥에서 늪들양과 땅서우새를 비롯한 희귀한 동물들을 마리수에 관계없이 제일 좋은것으로 선정하여 잡도록 특별명령을 내렸다.

선물동물을 마련하는 사업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도 제기되였지만 사냥조원들은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올리는 선물을 꼭 제기일에 가장 훌륭한것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절절히 이야기하던 대통령의 열정에 넘친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향고양이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희귀한 동물들을 거의 다 마련하였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현지에 나와 동물들을 하나하나 골라 제일 좋은것으로 40종에 150마리를 특별히 마련하였다.

멩기스토 하일레 마리암대통령의 지성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산지가 아프리카인 동물들이 모스크바를 거쳐 조선으로 가자면 심한 기후변동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고려하여 비행기안에 열풍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선물동물들을 싣고 특별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수행원들에게 수시로 동물들이 있는 곳의 온도와 습도를 재여보며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보고하게 하였다. 또한 유능한 동물전문가를 대표단성원으로 포함시켜 선물동물을 최대로 정성껏 관리하도록 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많은 선물동물을 가지고 평양을 찾아온 그를 뜨겁게 맞이하시였다.

평양에 머무르고있던 대통령은 어느날 조선에 함께 온 동물전문

가로부터 중앙동물원에서 희귀한 아프리카의 동물들을 많이 요구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자기 나라에 돌아간 그는 또다시 긴급회의를 열고 **김일성**주석을 흠모하는 에티오피아인민모두가 선물준비사업에 떨쳐나서게 했다.

대통령은 에티오피아동물총국장에게 과업을 주어 사향고양이를 선물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이렇게 되여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속에 마련된 사향고양이와 아프리카타조, 분홍펠리칸 등 희귀한 동물들이 1987년 8월 특별비행기를 타고 조선에 오게 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중앙동물원에 에티오피아에서 선물로 보내오는 동물들을 넣을 현대적인 동물사들을 새로 건설하도록 하시고 그앞에서 뜻깊은 선물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아프리카사향고양이가 그토록 희귀한 동물로 되는것은 그가 분비하는 향이 귀중한 약재로 되기때문이다.

향분비물은 사향과 류사한 효과가 있는 약으로서 정신착란증, 진통 등에 쓰인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향료로도 리용한다고 한다.

사향고양이의 향(씨베트)은 홍문과 생식기사이에 있는 향낭에서 분비된다. 향낭은 직경이 4~6㎝정도이고 2개의 귤쪽모양으로 되여있는데 그가운데 향을 분비하는 작은 구멍이 있다.

아프리카사향고양이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기르고있으며 목장을 조직하여 향을 채취하고있다. 아프리카사향고양이는 향분비물을 얻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잡아들여 그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국제적인 보호동물로 선포되고 원산지나라들에서는 국가적인 통제동물로 되고있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75돐을 맞으며 말리공화국의 대통령도 그이께 아프리카사향고양이를 선물로 올리였다.

고양이가 왜 쥐를 잡아 먹는가

고양이가 왜 쥐를 잡아 먹는가 하는것은 예로부터 사람들의 흥미를 자아내던 문제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와 민족은 민간이야기나 신화전설들에서 이에 대해 모두 제나름으로 해석하였다. 수백년동안 과학자들의 관심은 고양이가 왜 쥐를 잡아 먹지 않으면 야간시각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나중에는 거의 상실되여가는가 하는 문제에 돌려졌다.

도이칠란드의 하이델베르그대학의 한 생물학교수는 수년간의 연구끝에 세계동물생리학계를 난처하게 만들었던 그 수수께끼를 풀어냈다. 그는 타우린이라는 물질이 포유동물의 야간시각능력을 높여준다는것을 밝혀냈다.

그런데 고양이는 자체로 타우린을 합성할수 없다. 고양이는 몸안에 타우린이 오랜 기간 결핍되면 야간시각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쥐의 몸안에는 일종의 특수한 물질이 들어있어 자체로 타우린을 합성할수 있다. 그러므로 고양이는 오직 쥐를 계속 잡아 먹어야만 몸안에 부족되는 타우린을 보충하여 자체의 야간시각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살아갈수 있다. 이 연구성과는 공포되자마자 인차 안과전문가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원래 의학계에서는 일종의 《완고성야맹증》에 대하여 해결방도를 찾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었다. 안과전문가들은 이 성과에서 암시를 받아 이런 병에 걸린 환자들도 타우린이 결핍되여서가 아닌가고 추측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부 환자들에게 쥐고기를 먹여보았다.

세밀한 안과생리검사를 통해 쥐고기를 먹은 환자들의 감광기능이 증가되였으며 그에 따라 그들의 야간시각능력도 높아졌다는것이 확인되였다고 한다.

소말리아에서 보내온 동물들

조선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귀로에 오른 소말리아의 대통령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의 생각은 한곬으로 흘렀다.

앞으로 소말리아가 나아갈 앞길을 그려보는 대통령의 머리속에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수도 모가디쇼에《**김일성**도서관》을 정중히 꾸리고 주석께서 발표하신 로작들을 학습하던 못잊을 나날들이 떠올랐다.

독립후 오늘까지 자기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사심없는 원조를 주시였으며 소말리아혁명 3돐에 즈음하여 또다시 원조와 배려를 돌려주신 **김일성**주석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가슴속에는 자신의 성의뿐아니라 국내인민들의 지성이 깃든 뜻깊은 선물을 마련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이 굽이쳤다.

(소말리아의 희귀한 동물들을 선물로 마련하자. 가장 좋은것으로…)

소말리아에 도착하는 즉시 대통령은 해당 기관들에 위인께 올릴 희귀한 동물을 사로잡을데 대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하여 전국적으로 수백마리의 희귀한 동물이 마련되였다.

하 늘 소

자신이 직접 선물명세를 하나하나 따져보던 대통령은 하늘소가 빠졌다는것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소를 꼭 구해오라고 지시하였다.

하늘소는 고기가 별맛이고 건강에 좋은것으로 하여 소말리아

에서는 국가적으로 보호하고있는 동물의 하나였다.

대통령의 과업을 받은 일군들은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늘소산지에 나가 살면서 마침내 훌륭한 하늘소를 마련하였다.

선물동물들이 확정되자 대통령은 해당 전문가들에게 과업을 주어 야생상태의 동물들을 우리속에서 길들이도록 하였다.

각별한 관심속에 모든 준비를 끝낸 뒤에도 대통령은 많은 선물동물들을 배로 수송하게 되는 조건에서 수의사 한명과 관리공 한명을 따라 보내도록 하였으며 치료약과 먹이도 넉넉히 보장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돌렸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61돐을 맞으며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는 모든 정성을 담아 마련한 소말리아하늘소 2쌍을 비롯한 포유류 15종에 80마리와 조류 12종에 49마리, 파충류 4종에 12마리를 삼가 선물로 보내여왔다.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는 소말리아인민의 뜨거운 지성이 담긴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전에 조선에서는 하늘소를 나귀라고 불렀다.

김일성주석께서 나귀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는 소라는 의미에서 하늘소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신 때로부터 이름이 하늘소로 고쳐졌다.

하늘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B.C. 4천년경부터 집짐승으로 길러왔다.

에짚트와 메소포타미아 두 지역에서는 B.C. 4000~B.C. 3000년사이에 벌써 하늘소를 널리 리용하였다.

메소포타미아의 어느 한 지방에

하 늘 소

서는 추장들이 죽으면 하늘소들을 함께 묻었다고 한다.

하늘소는 소말리아야생하늘소로부터 집짐승으로 육종되였다.

소말리아하늘소는 에짚트, 수단 등의 사막 또는 반사막지대에서 산다. 수명은 약 40~50년이며 암컷이 수컷보다 오래 산다.

빨찌산을 도와준 젖소

제2차세계대전때 있은 일이다.

도이췰란드군의 중요교량을 파괴할데 대한 전투명령을 받은 이전 쏘련의 빨찌산이 적구로 들어갔다. 그런데 교량은 도이췰란드군의 삼엄한 경계속에 있어 좀처럼 접근할수가 없었다. 우거진 수림속에 매복하고있는 빨찌산들의 마음은 안타까왔다. 이때 한 빨찌산대원이 도이췰란드군의 병영부근에 있는 젖소우리에 수십마리의 젖소가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한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젖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그는 눈이 휘둥그래진 전우들을 뒤에 남기고 바람같이 수림을 따라 젖소우리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땅에 엎드려 은밀히 젖소우리로 접근하여 그 모서리에 숨었다. 젖소들은 눈알을 데룩거리며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때라고 생각한 그는 품에서 붉은기를 꺼내여들고 젖소들의 눈앞에다 힘껏 흔들어댔다.

순간 방금전까지 태평하게 낯선 사람을 구경하던 젖소들의 무리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젖소들은 붉은기를 보자마자 마귀에 홀린듯 저저마다 우리에서 빠져나와 사방으로 미친듯이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지키던 도이췰란드군 병사들은 다리를 향해 달려오는 젖소들을 보자 꽥꽥 고함을 치면서 막아나섰으나 소용이 없었다.

순식간에 사방이 수라장이 되여버렸다.

이 혼란된 틈을 리용하여 빨찌산대원들은 맹렬하게 적을 공격하였다. 《꽈르릉-》소리와 함께 다리는 산산쪼각나버렸다.

모두가 신통한 그의 계책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원래 빨간색은 소의 신경을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작용을 한다. 때문에 투우사들은 소를 흥분시키는데 빨간천을 리용한다고 한다.

동물세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전투승리에 도움을 준것이였다.

갓난 새끼의 몸질량은 평균 16~18 ㎏이다.

어미는 새끼를 낳은 다음 7~18 일만에 쌍붙을수 있다.

세계적으로 집짐승으로 된 하늘소에는 35 개의 품종이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중앙동물원에 나오시여 소말리아대통령이 선물로 올린 하늘소를 보시면서 하늘소는 몸집에 비해 귀가 큰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하늘소와 말을 교잡시켜 노새를 만들어보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대로 암말과 수하늘소를 쌍붙여 태여난 노새가 중앙동물원에서 살고있다.

밤 색 혹 소

김일성주석께 소말리아대통령이 올린 선물동물가운데는 밤색혹소도 있다.

밤색혹소

일반적으로 혹소는 잔등앞쪽에 큰 혹이 달려있는 소이다.

이 혹은 지방이 굳어진것으로서 이 혹을 제외하면 보통소와 아주 비슷한 종이다.

혹소의 혹은 소를 부릴 때 멍에를 거는데 쓴다.

혹의 모양은 혹소가 분포되여있는 지방에 따라 다르다. 즉 아프리카의 혹소의 혹은 짧고 높으며 아시아혹소의 혹은 길고 낮다.

야생동물의 《왕국》인 케니아의 마사이종족이 혹소를 많이 기르는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냥금지구역안에서 풀을 먹여 기르면서 정기적으로 혹소의 피를 뽑아 먹는다고 한다.

가 시 도 치

김일성주석께 소말리아대통령이 1973년 4월 12일 가시도치를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가시도치는 아프리카, 유럽남부, 쑤마뜨라섬, 쟈와섬 등에 퍼져있다.

가시도치는 고슴도치처럼 둥글고 땅딸막하고 단단하게 생겼다.

등쪽에는 털의 변형들인 굵고 굳은 가시가 많이 나있다.

몸길이는 58~90㎝, 몸질량은 8~15㎏이다.

가시도치가 사는 굴에는 보통때 드나드는 구멍외에도 위험이 닥쳐왔을 때에 드나들수 있는 구멍이 2~3개 더 있다. 굴길이는 18m나 되며 굴을 덮는 지붕면적은 6㎡, 깊이는 1.5m나 된다.

후각이 매우 예민하게 발달되여 적이 가까이 오면 우선 꼬리를 흔들며《쏴-쏴》소리를 내고 발을 구르면서 경고한다. 그래도 적이 도망치지 않으면 가시를 세우고 갑자기 뒤로 돌아서면서 들이받는다.

가시에 의한 상처는 치명적이여서 큰 범도 가시도치에게 폐와 간장이 찔려 고통스럽게 헤매다가 죽은 례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공격방법은 가시도치에게서 독특한것이다.

가시도치는 낟알, 과일, 나무껍질 등을 먹으며 농작물에도 해를 준다.

보통 1~4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데 새끼는 날 때부터 눈을 뜨고있으며 몸에는 짧은 가시가 나있다.

어미의 젖꼭지는 옆구리에 있어 눕지 않고도 새끼에게 젖을 먹일수 있다.

가시도치의 고기는 먹을수 있고 가시는 공예품으로 쓴다.

바위왕구렝이

조선의 중앙동물원에는 **김일성**주석께 이전 소말리아대통령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가 삼가 선물 올린 바위왕구렝이도 있다.

바위가 많은데서 산다고 하여 바위왕구렝이라고 부르는 이 뱀은 아프리카의 넓은 지역에 퍼져있다.

몸은 굵고 길이는 3.5~4.5m, 최고 10m나 되는것도 있다.

바위왕구렝이는 귀한 약재로 된다.

중앙동물원에는 또한 스웨리예 스칸센동물관 관장 요나스가 **김정일**령도자께 삼가 선물 올린 꼬리끝에서 신기한 방울소리를 내는 뱀도 있다. 이 방울뱀은 꼬리끝부분에 소리를 내는 기관이 있어 꼬리를 쳐들고 좌우로 빨리 움직이면서 방울이 울리는것과 같은 소리도 낸다. 소리는 아무때나 내는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다칠 때에만 낸다. 말하자면 방울소리는 그 어떤 치레거리가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것이다.

방 울 뱀

섬나라에서 온 원숭이들

김일성주석께 머나먼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까르에서 원숭이들을 선물로 보내여왔다.

아프리카, 인디아양지역에서 선참으로 민족해방투쟁을 벌려 독립을 선포한 나라는 아름다운 섬나라 마다가스까르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전 마다가스까르의 디디에 라찌라까대통령을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형제로, 전우로 믿어주시고 마다가스까르혁명에 사심없는 원조와 지지성원을 보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김일성**주석께서는 대통령의 자녀들이 즐거운 방학기간을 조선에 와서 보내도록 배려해주시였으며 방학을 즐기는 그들을 위해 오찬도 마련해주시고 기념촬영도 해주시면서 다심한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또한 대통령의 딸이 조선에서 생일을 맞게 된다는것을 아시고는 몸소 생일선물까지 보내주시였다.

김일성주석을 흠모하여온 디디에 라찌라까대통령은 그에 대한 답례로 지성어린 선물을 올릴것을 결심하였다.

고양이원숭이

디디에 라찌라까대통령은 **김일성**주석께 올릴 선물로 이 나라에만 있는 특산동물인 고양이원숭이를 마련하였다.

마다가스까르사람들은 매우 크고 재롱스러운 이 고양이원숭이를 특별히 애용하고있다.

디디에 라찌라까대통령은 자기의 지성이 담긴 고양이원숭이를 다섯차례에 걸쳐 **김일성**주석께 삼가 선물로 올렸다.

동물세계의 《가족》관계는 참으로 다양하다. 일생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가족도 있고 《부부》를 중심으로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사는 동물들도 있다.

고양이원숭이는 특이하게《할머니》를 중심으로 가족무리를 이루고 재미나게 사는 동물이다.

고양이원숭이들은《할머니》를 중심으로《딸》,《손자》,《손녀》까지 한데 모여산다.

이 가족무리는 몇마리의 수컷과 암컷으로 이루어지는데 한무리안의 고양이원숭이들은 서로 쓸어주고 핥아주고 애무하면서 화목하게 지낸다.

고양이원숭이들은 무리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본능이 대단히 강하다.

싸움을 할 때에도 자기 가족무리끼리는 서로 편역을 들며 세력권을 위해 다른 가족무리와 싸우기도 한다.

고양이원숭이들은 자기의 령토권을 가지고있다. 이들은 앞발과 겨드랑이사이에 있는 특수한 분비선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꼬리에 묻히거나 나무가지에 비비여 자기의 령토권을 표시한다.

이 특수한 냄새로 고양이원숭이들은 오래동안 떨어져있던《혈육》도 알아낸다고 한다. 그러나 아주 어린 새끼인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한번은 중앙동물원에서 한달정도 된 고양이원숭이 새끼를 엄지에게서 떼내여 곰새끼, 범새끼, 기타 초식류새끼들과 함께 약 2~3시간동안 두었다가 다시 엄지에게 가져다준 일이 있었다. 이때 엄지는 자기 새끼가 아니라고 쫓아버렸다.

고양이원숭이

고양이원숭이는 한번에 보통 1~2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갓난 새끼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배에 달라붙으며 2~3달 지나면 어미의 등에 업혀다닌다.

고양이원숭이의 생김새에서 특이한것은 꼬리이다.

긴 꼬리는 곧추 쳐들려져있는데 끝머리는 아래로 숙어졌다가 다시 약간 꼬부라져 올라가있다. 이 모양은 아주 경쾌한감을 주며 걸을 때에는 매우 보기 좋다.

꼬리의 이런 모양은 건강하다는 징표로도 된다. 건강이 나쁠 때에는 꼬리가 아래로 축 처져있다.

오늘 100여마리로 늘어난 고양이원숭이가족들은 지방동물원들과 공원, 유원지들에 지어 다른 나라 동물원으로 《세간》을 났다.

디디에 라찌라까대통령은 그후 **김일성**주석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고기맛이 특별히 좋은 진주닭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흰목도리여우원숭이, 검은여우원숭이를 더 준비하여 그이께 삼가 올렸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78년 11월 26일 중앙동물원에 나오시여 마다가스까르대통령이 고양이원숭이가 살아있는가 하는것을 자주 물어본다고 하시면서 사양관리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였다.

흰목도리여우원숭이

김일성주석께 마다가스까르대통령 디디에 라찌라까가 흰목도리여우원숭이를 선물로 보내여왔다.

흰목도리여우원숭이는 목과 가슴에 목도리처럼 보이는 긴 털묶음이 있다.

이 원숭이는 새끼를 낳으면 다른 원숭이들처럼 업어 기르지 않고 입에 물고다닌다.

또한 여우원숭이류가운데서 소리를 가장 크게 낸다.

이 원숭이가 내는 소리를 숲속에서 들으면 마치 괴물의 소리를

듣는것 같은 무서운감이 난다고 한다.

이 원숭이는 동물원에서도 개가 짖어대는것과 같은 큰소리로 떠들어댄다.

눈이 날카로와 무서운감을 주지만 성질은 온순하다.

사람이 만져주면 좋아하며 관리공이 시끄러울 정도로 감겨돌아간다.

그러나 이 흰목도리여우원숭이에게는 불의에 공격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늘 주의를 돌려야 한다.

새끼관리는 별로 잘하는 축이 못된다.

흰목도리여우원숭이

검은여우원숭이

김일성주석께 마다가스까르대통령 디디에 라찌라까가 검은여우원숭이를 선물로 보내여왔다.

검은여우원숭이는 집단력이 강한것이 특징이다.

여우원숭이족속은 깊은 숲속의 나무에서 산다.

코가 뾰족하여 여우와 비슷하지만 눈이 얼굴가운데로 모이고 량쪽눈으로 물체를 동시에 볼수 있다.

검은여우원숭이는 10~15마리정도 무리를 지어산다. 무리의 통솔권은 언제나 암컷이 쥐고있다. 힘센 수컷은 언제나 《대오》의 후위를 담당한다.

이 원숭이들은 자기들의 명확한 생활구역을 가지며 만약 다른 무리와 만나면 일제히 소리를 내면서 자기 구역을 지켜낸다.

때로 이 원숭이들은 자기들이 차지한 《령토》경계에서 싸우기

도 한다.

이 원숭이들은 자기들의 생활구역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무에 표식을 하거나 혹은 배설물을 돌아가며 문질러놓는다.

이러한 여우원숭이족속들은 현재 마다가스까르섬에만 살고 있다.

원숭이《산림감독원》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계절에는 산불감시를 하는데 많은 인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산불을 감시하는 일은 고독하고 단조롭기때문에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어느 한 나라의 동물학자는 1 년간의 노력끝에 성격이 온순한 금빛원숭이 4 마리를 《산림감독원》으로 키우는데 성공하였다.

산불감시임무를 받은 이 원숭이들은 높은 탑에 올라서서 이상한 연기가 피여오르는가를 경각성있게 감시한다.

만일 화재가 일어난 곳을 발견하면 즉시 탑에 설치된 무선경보신호기를 누른다.

원숭이들의 결함은 인내성이 부족한것이다. 때문에 2~3 시간 간격으로 《감시근무》를 교대시켜주어야 한다.

파키스탄에서 온 사자들

김일성주석의 탄생 64돐을 기념하여 1976년 5월 21일 당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총리 쥴피카르 알리 부토가 인디아사자《부부》를 선물로 보내여왔다.

예로부터 파키스탄에는 슬기와 용맹, 힘의 상징인 인디아사자를 가장 위대한분에게 선물로 드리는 풍습이 있다.

일찌기 부토총리의 마음속에는 **김일성**주석에 대한 숭배의 마음이 자리잡았으며 그 위대한분에게 자기 나라의 풍습대로 선물을 올리고싶은 간절한 마음이 솟구쳐올랐다. 부토총리는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제일 좋은 인디아사자를 마련할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사냥조원들은 맹수들이 제일 많은 서부산지대의 깊은 수림속에 나가 생활하면서 여러마리의 사자를 마련하였다.

부토총리는 그가운데서 제일 좋은것으로 두마리를 골랐다. 힘이 세고 사나운 인디아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굳고 센 참나무로 선물함도 잘 만들었다.

사자들에게는 희망과 비약의 나래를 펼치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조선을 따라배우려는 파키스탄인민의 마음을 담아 암컷은 《희망》, 수컷은 《나래》라고 이름지어주었다.

인디아사자는 3년이면 다 자란다. 다 자란 수컷에는 갈기털이 있지만 암컷에는 갈기털이 없다. 갈기털은 어깨뒤까지 나있고 가슴과 무릎에도 긴 털이 나있다.

발톱이 강하고 날카롭게 잘 발달되였다.

발톱은 보통때에는 발가락짬사이에 숨겨져있다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먹이를 잡을 때에만 나온다.

《희망》과 《나래》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주석의 관심속에 있었다.

1978 년 9 월 30 일 《희망》과 《나래》가 첫 새끼를 낳았다.

그해 11 월 중앙동물원을 찾으신 주석께서는 부토총리가 보내온 사자가 새끼를 낳았는가고 몸소 물어보기까지 하시였다.

인디아사자《희망》은 1978년부터 1989 년까지 7 배의 새끼를 낳았다. 새끼사자들가운데서 9 마리는 지방동물원과 다른 나라 동물원에 보내주었다.

사자들가운데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63 돐을 맞으며 탄자니아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가 삼가 올린 사자《부부》-《쇠돌》이와 《분옥》이도 있다.

이 사자들은 1978 년 6 월 20 일에 첫 새끼를 낳았다.

1983 년까지 이들이 낳은 여러마리의 새끼들도 지방동물원들과 다른 나라 동물원들에 보내주었다.

김일성주석께 1987 년 8 월 18 일 당시 에티오피아대통령도 사자를 선물로 보내여왔다.

사자는 아프리카의 넓은 초원에서 보통 몇마리의 수컷과 5~6 마리의 암컷 그리고 그 새끼들이 모여서 20 마리정도의 무리를 짓고산다. 때로 성숙한 수컷만 몇마리 모인것, 어린 수컷만으로 이루어진 무리도 있다.

사자들은 무리가 패로 나뉘여지거나 혹은 쌍이 협력하여 먹이를 사냥한다.

사자는 작은 동물들은 물론 자기보다 체통이 큰 흰수염들양, 늪들양을 비롯한 들양류와 줄말, 혹메돼지, 기린이나 아프리카물소도 잡아 먹으며 때로는 나어린 코끼리도 잡아 먹는다.

사자는 풀숲에 숨어있다가 대상물이 가까이에 오면 급히 달려들든가 두패로 갈라져서 한쪽 패가 숨어있는 다른편쪽으로 먹이짐승을 몰아잡는다. 몰아오는 역할은 대체로 수컷이 하고 실제로 먹이를 잡는것은 암컷이 한다.

먹이대상을 따라가는 사자의 속도는 시속 64 ㎞에 달한다.

사자는 자기의 먹이대상을 면바로 포착한다.

몇백마리의 들양류를 비롯하여 먹이대상이 자기앞을 지날 때

사자는 숨어서 관찰하다가 그 무리속에서 《늙은이》나 《환자》를 정확하게 잡아낸다. 그런다음 그 대상을 집요하게 따라가 물어메친다. 약한 짐승들은 맹수들의 그 눈빛에 걸리지 않으려고 무척 신경을 쓴다.

사자는 힘이 세므로 100 ㎏이 넘는 먹이도 입에 물고 곧잘 끌고간다.

사자는 헤염도 잘 치며 암컷이나 어린 새끼는 낮은 나무우에 잘 올라간다.

걸을 때에는 대가리를 낮추고 천천히 무릎마디가 누긋누긋하게 흔들흔들 걸어간다.

기르는 조건에서 사자는 점잖고 순한편이다. 그러나 범보다는 친근감이 없고 무표정하다. 보통때에는 순하고 조용한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맹수로서의 본성이 나타나군 한다.

어릴 때부터 인공적으로 기른 새끼는 6 달까지 사람을 따르며 순하게 놀지만 어미에게 붙어 젖을 먹으며 자란 새끼는 3 달정도 되면 매우 위험하다. 성이 나면 갈구리발톱을 내밀고 《왕-》하고 소리치며 앞발을 들었다가 내려칠 때에는 무서운 힘을 내군 한다.

사자의 갓난 새끼는 자체로 오줌과 똥을 싸는 능력이 없다. 어미가 젖을 먹이기전이나 혹은 젖먹인 후에 혀로 홍문과 생식기주변을 핥아주면서 자극해야 오줌과 똥을 누는데 이것은 어미가 먹어버린다.

암컷은 평균 2 년에 1 번 새끼를 낳으며 수명은 20 년정도이다.

동물학박사의 지성어린 선물동물

1979년 2월 18일 **김일성**주석께 마쟈르의 부다뻬슈뜨동물원 원장(당시) 홀라슈 샨도르가 매우 희귀한 동물인 원양 한쌍, 꼬인뿔양 3마리, 붉은부리황새 4마리를 선물로 올리였다.

동물학박사인 홀라슈 샨도르는 동물원의 력사가 오랜 유럽나라들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조선의 중앙동물원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인민을 위해 보다 훌륭한 동물원을 일떠세우시려는 **김일성**주석의 원대한 건설구상은 동물학자를 크게 감동시켰다.

그는 동물학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에게 바치는 가장 큰 지성은 희귀한 동물을 선물로 올리는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김일성**주석께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기 위해 과학연구사업과 관상용으로 가치가 있는 동물들을 선물로 드릴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마쟈르의 수많은 목장들과 동물연구소들을 찾아다니면서 털생산이 좋고 양의 진화발전에 대한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는 원양, 털가죽과 고기생산에 대한 연구가치가 있는 꼬인뿔양 등 선물동물들을 마련하였다.

원양은 B.C. 6000년경부터 집짐승으로 길러온다.

원 양

원양이란 집양의 선조라는 뜻이다. 원양은 야생하는 양들가운데서 가장 작은 양이다. 원양은 이딸리아의 서쪽에 있는 꼬르스섬과 지중해동부의 끼쁘로스섬의 바위가 있는 곳에서 산다.

원양은 암컷과 수컷에 다 뿔이 있다. 수컷의 뿔은 최고 1m에 달한다. 이때 뿔의 질량은 4~6 kg이나 된다.

야생원양의 쌍붙는 시기는 매해 12월부터 다음해 1월사이의 추운 겨울날이다. 이 시기 수컷들은 그 큰 뿔을 무기로 붉은캉가루처럼 암컷을《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하군 한다. 원양은 무리에서 제일 힘센 수컷이 암컷을 차지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기르는 원양과 다른 야생양들을 섞붙임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고있다.

마쟈르의 부다뻬슈뜨동물원 원장이 보내온 꼬인뿔양은 이름그대로 뿔이 우로 향하면서 길게 옆으로 비틀려있는 양이다.

꼬인뿔양의 원산지는 마쟈르이다.

암컷의 몸질량은 40~50 kg이고 털길이는 35~40 ㎝이다. 털은 5~6월에 1마리당 평균 5 kg씩 깎아서 섬유원료로 쓴다.

어미 1마리에서 한해에 40~60 kg의 젖을 짤수 있다.

꼬인뿔양

꼬인뿔양은 주로 가을에 쌍붙는다.

잠비아자연동물원에는 들양의 종수와 마리수가 세계 자연동물원가운데서 제일 많은데 몸질량이 900 kg에 달하는 꼬인뿔들양과 검은들양도 있다고 한다.

핀란드에서 온 유럽산양

김정일령도자께 1986년 4월 1일 당시 핀란드 헬싱키 코르께아싸리동물원 원장 일까 꼬이비스또와 부원장 레이프 볼룽비스트는 자기 동물원의 명의로 유럽산양을 비롯한 여러마리의 동물을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유럽산양

유럽산양은 몸질량이 24~50 kg으로서 작은 양에 속한다.

동작이 대단히 빠른 동물로서 바위에 잘 오른다.

산양의 수컷은 괴벽스러운 성격을 가지고있다. 쌍붙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암컷과 새끼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며 어떤 때에는 새끼를 뿔로 받아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유럽산양의 가죽은 렌즈닦개로 리용하며 겨울털은 옷솔 만드는데 쓴다.

유럽산양은 국제적인 보호동물이다.

장수를 기원하여 드린 동물들

거 부 기

김일성주석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1992년 4월 13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사는 김철규, 황정자부부가 이끼돌거부기를 정성껏 마련하여 선물로 드리였다.

오래 살고싶은것은 인간의 소원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부기를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보통 거부기라고 하면 거의 300년을 사는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350~400년을 사는 거부기도 있는데 그것이 중국 호북성에서 살고있는 이끼돌거부기이다. 일명 황우수거부기라고도 한다.

이 거부기는 잔등에 푸른 이끼를 인공적으로 심어 키우는데 이끼에서 귀한 약재를 내보낸다. 이런것으로 하여 이 거부기 한마리값은 굉장히 비싸다고 한다.

김일성주석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념원을 담아 그들부부는 이 이끼돌거부기를 그이께 선물로 올린것이다.

이들은 집에서 거부기를 기르는 동물업자이다. 조선에 와서 국제친선전람관을 돌아보았으며 **김일성**주석을 몸가까이 만나뵙는 영광을 지닌 한 동포로부터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위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 밤 그들은 흥분으로 잠들지 못하였다.

김일성주석께 자기들의 적은 성의나마 바치고싶

이끼돌거부기

은 마음속 충동을 안은 그들은 이끼돌거부기를 선물 올리기로 결심하였다.

이끼돌거부기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물려받은 이들 가정의 가보였다.

그들은 **김일성**주석의 건강에 이바지할수 있는 이 거부기를 가지고있는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그이께 선물로 드렸던것이다.

또한 거부기가운데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중국 흑룡강성의 최영철부부가 그이께 삼가 선물로 올린 이끼돌거부기도 있다.

뿐만아니라 에티오피아공화국의 이전 대통령 멩기스토 하일레 마리암과 소말리아의 이전 대통령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가 **김일성**주석께 선물 올린 접는등땅거부기와 얼룩땅거부기도 있다.

접는등땅거부기는 아프리카서부에서 사는데 등갑의 뒤부분이 서로 약간 접힌다고 하여 접는등땅거부기라고 한다.

등갑의 길이는 30㎝인데 등갑을 구부려 접으면 뒤다리까지 모두 갑안에 넣을수 있으므로 몸을 보호할수 있다.

얼룩땅거부기는 아프리카의 넓은 지역에서 사는데 몸질량은 20㎏정도로서 땅거부기들가운데서 큰 종류의 하나이다.

얼룩땅거부기

등갑의 길이는 50~80㎝로서 몸질량의 30%나 된다. 갑은 굳고 단단하여 100여㎏의 중량으로 내리눌러도 깨지지 않는다. 한두달 먹지 않고도 견디는 생활력이 강한 거부기이다.

중앙동물원에는 **김정일**령도자께 1985년 10월 7일 스웨리에스칸센동물관 관장이 삼가 올린 붉은귀거부기도 있다.

붉은귀거부기는 귀부분이 붉은색을 띠므로 붙인 이름이다. 등갑길이는 23~30 ㎝이다.

이 거부기는 장수보약재이며 또한 관상용이기도 하다.

푸른바다거부기

또한 1995 년 11 월 28 일 파키스탄 합동참모본부의장 공군중장 파루크 페르즈 한이 **김정일**령도자께 선물로 드린 파키스탄의 특산인 푸른바다거부기도 있다.

이 거부기는 물속 150~200m 까지 들어간다고 한다.

갑의 길이는 1m 이고 몸질량은 150 ㎏이나 된다.

합동참모본부의장은 령도자께서 잠시라도 휴식의 한때를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항에서 기를수 있는 어린 거부기를 선물로 올리였다.

주인을 찾아온 거부기

1947 년 13 살 나는 중국소년이 자기가 기르던 작은 거부기등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 강에다 놓아주었다.

이 거부기는 그후 여러번 주인을 찾아왔다.

1972 년 여덟번째로 주인을 찾아왔을 때 그는 무창의 다리목에서 또다시 거부기를 놓아주었다.

그때로부터 이 거부기는 장강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15 년되는 1987 년에 또다시 주인을 찾아왔다. 결국 이 거부기는 그가 기르다가 40 년전에 놓아준 후 아홉번째로 주인을 찾아온것이다.

푸른바다거부기들은 먹이와 번식지를 찾아 수만리씩 헤염쳐다닌다. 하지만 언제나 자기 번식지를 정확히 찾아내군 한다.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거부기들은 하늘에 빛나는 뭇별들과 태양을 기준으로 방향을 판단한다. 때문에 먹이를 찾아 바다물줄기를 타고 멀리 헤염쳐갔다가도 알낳이철이 되면 틀림없이 제 번식지로 되돌아온다.

흰 코 브 라

김일성주석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이께 올린 선물동물중에는 흰코브라도 있다.

그이께 중국 연변삼성무역공사 성원들이 1993년 8월 25일 장생불로약으로 알려진 흰코브라를 마련하여 선물로 올린것이다.

흰코브라는 일명 백사라고도 부른다.

삼성무역공사 성원들은 중국과 웰남국경지대에서만 사는 흰코브라를 잡으려고 깊은 수림속에 천막을 치고 다음해 5월까지 야외에서 살면서 애써 노력하였다.

흰코브라

그들은 온갖 지성을 다하여 동물함도 만들고 붉은천둘레에 월계관을 수놓은 증정문까지 마련하였다.

증정문에는 자기들의 진정을 담아 한자두자 이렇게 썼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선물 <백사>

중국 연변삼성무역공사 1993년 8월 12일》

이 흰코브라는 허약을 막고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재이다.

코브라를 일명《안경뱀》이라고 한다. 목부분의 무늬가 안경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코브라는 독뱀의 한가지로서 아시아의 남부와 아프리카에 퍼져있다.

몸길이는 1.2m인데 최고 5m되는 왕코브라도 있다.

열대지방에서 살고있는 코브라는 기여가다가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몸을 뱅뱅 똬리처럼 틀고 대가리부분을 곧추 세운다. 이럴 때에는 목부분이 마치 방패처럼 넓어진다.

이렇게 넓어진 목부분의 등쪽에는 안경을 낀 눈과 같은 무늬가 나타나는데 이런 목을 빙빙 돌리면 매우 큰 대가리가 눈을 희뜩이며 움직이는것 같이 보인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 큰 동물들도 어리둥절하거나 놀라서 달아난다.

이 뱀의 독은 신경독이므로 물리면 호흡이 마비되여 죽을수 있다.

인디아코브라에 물리면 15분안으로 죽는 경우가 있다.

아프리카의 코브라는 공격할 때 상대편의 눈에 독분비물을 쏜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부는 피리소리에 맞추어 추는《코브라춤》이 인기를 끌고있다.

오락에 쓸 때에는 독이발을 뽑은 코브라를 쓴다.

중앙동물원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희귀한 뱀들이 있다.

사　슴

사람들은 인간생활과 인연이 깊은 동물들에 자기의 사랑과 념원, 희망을 담아 갖가지 이름을 달아주고 귀중히 키운다.

수컷의 이름은《건건》, 암컷의 이름은《강강》, 두 이름을 합하면 《건강》! 이 사슴들은 **김정일**령도자께 중국공산당 길림성 훈춘현위원회와 훈춘현인민정부에서 올린 선물이다.

예로부터 중국사람들은 사슴을 건강과 행복의 상징으로 일러왔다.

훈춘현인민정부 일군들은 조중친선을 날로 발전시켜나가시는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그이의 탄생일을 맞으며 건강의 상징인 사슴을 올리기로 하였다.

그들은 훈춘제 1 사슴목장의 천여마리의 사슴가운데서 제일 좋은 우량종 사슴을 골라 4 달전부터 따로 기르게 하였다.

그들은 뜨거운 마음과 정성이 깃든 사슴을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1985 년 2 월 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해당 일군들에게 전달하였다.

친선방문단 단장인 길림성 훈춘현인민정부 현장은 격식없는 전달식에서 가장 존경하는 **김정일**령도자께 축원의 인사를 올리면서 탄생일을 맞으시는 그이께 자기들의 념원을 사슴의 이름에 담아올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데 대하여 감격속에 이야기했다.

사슴의 몸질량은 90~130 ㎏이나 된다.

뿔은 수컷에만 있는데 해마다 4~5 월이 되면 떨어지고 다시 새뿔이 돋아난다. 새뿔은 영양물질이 많고 말랑말랑하다.

한창 자랄 때인 6~7 월의 뿔을 록용이라고 한다. 뿔은 7, 8 월이면 다 자란다. 이때에는 차츰 피줄도 굳어지고 말라들며 뼈처럼 굳어졌다가 이듬해 봄에 저절로 떨어진다. 다 자란 뿔은 2 ㎏이나 된다.

꽃사슴

봄과 여름사이에 수컷의 뿔이 한창 자랄 때에는 소금기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땅우에 달라붙은 소금기있는 흙을 갉아 먹기도 한다. 심지어 바다가에까지 나와서 짠 모래를 핥기도 한다.

사슴의 혈액은 물론 록태(사슴의 태)와 록미(사슴의 꼬리)도 보혈강장제로 쓴다.

사슴은 봄부터 여름까지는 흩어져 살다가 쌍붙는 9~10월이면 다시 모인다.

사슴의 자기방어수단은 달리기뿐이다. 위험을 느끼면 빨리 뛰는데 그 속도는 70㎞/h에 달한다.

아무리 사나운 짐승들도 이 사슴을 뒤로 따라 잡지는 못하고 흔히 길목을 지켰다가 앞으로 갑자기 달려들어 잡는다.

사슴은 매우 놀라기를 잘하는 동물이므로 사슴에게 접근할 때에는 신호를 하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털을 세우면서 꼬리를 쳐들고 무리지어 뛴다.

사슴은 번식을 아주 잘하는 짐승이다.

사슴은 8~9㎏이나 되는 새끼를 낳는다.

동북아시아특산종인 사슴은 여름에는 나무그늘이 많은 지대에서 사는데 가둑나무잎, 아카시아나무잎, 버드나무잎, 단풍나무잎 등을 먹는다.

겨울에는 마른 잎과 풀뿌리를 뜨져 먹으며 나무의 연한 가지, 싹, 껍질을 먹는다.

사슴은 약 20년정도 산다.

중앙동물원에는 오늘 《대가정》을 이룬 사슴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있다.

김일성주석께 1979년 10월 31일 아름답기로 이름난 꽃사슴을 싱가포르의 순쿄사인유한공사 사장(당시)이 선물로 올리였다.

꽃사슴은 싱가포르에서 만년장수와 행복을 상징하는것으로서 매우 희귀한 동물이다.

이 사슴은 인디아를 비롯한 아시아남부의 일부 지방에 살고 있다.

조선의 사슴보다 몸집이 좀 작다. 몸길이는 1.35m, 몸질량은 45~65 kg이다.

꽃사슴에게도 뿔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적을 치는 무기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고 적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친다고 한다.

꽃사슴은 아름답고 성질이 온순하여 공원이나 정원, 유원지들에서 기를수 있다.

앵무새들이 전하는 사연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특이한 재간으로 하여 아득히 먼 옛날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앵무새들은 크게 웃부리가 갈구리모양으로 구부러든 독특한 부리에 뿔깃을 가진 《앵무》와 《애기앵무》로 갈라본다.

앵무새의 종류는 암닭만 한 큰것으로부터 참새만 한 작은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다.

많은 앵무새들가운데는 1980년 6월 23일 **김일성**주석께 《**김일성**주의연구 감비아소조》 책임자인 쌀리우 에이취. 죤과 소조성원들이 삼가 올린 변색앵무와 목도리앵무도 있다.

쌀리우 에이취. 죤은 감비아의 수도 반쥴에 있는 크랍아일랜드중등기술학교 미술교원이였다.

오래동안 교육부문에서 일해온 그는 **김일성**주석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읽고 그이의 위인상에 매혹되였으며 열렬한 주체사상신봉자가 되였다.

죤은 1979년에 《**김일성**주의연구 감비아소조》를 결성하였다.

그는 소조원들앞에서 **김일성**주석에 대한 흠모의 정을 누를길 없어 흥분된 목소리로 자기의 마음속에는 그이의 존함이 별처럼 간직되여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신봉자, 선전자로 될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을 높이 칭송

목도리앵무

변색앵무

하는 시와 가사를 써서 그이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였다.

어느날 그는 소조원들과 모여앉아 **김일성**주석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것이 무엇이겠는가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그는 감비아인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희귀한 앵무새를 선물로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앵무새를 구하는 일은 조련치 않았다. 아프리카에서도 앵무새는 매우 희귀하므로 쉽게 잡을수 없었다. 또 국경밖으로 앵무새를 내가는것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여있었다.

소조원들은 의논끝에 시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당국에서는 그들의 요청을 접수하고 이미 길들인 앵무새가 아니라 초원에 둥지를 틀고있는 가장 아름답고 령리한 앵무새를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농촌주민들에게 이들을 도와줄데 대한 지시까지 내렸다.

열대의 무더위속에서 농민들과 소조원들은 험한 산발을 넘고 깊은 수림지대를 샅샅이 뒤져가며 수십마리의 앵무새를 잡았다. 그가운데서 죤은 계절에 따라 색갈이 변하는 재롱스러운 변색앵무 한쌍과 목도리앵무 한쌍을 골랐다.

그는 아침저녁으로 앵무새를 돌보면서 몇달동안 훈련시켜 《**김일성**주석 고맙습니다.》, 《조선, 감비아친선 만세》라는 말을 잘할수 있게 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을 따르는 변함없는 마음을 담아 강하고도 변하지 않는 자연색갈을 그대로 가지고있는 나무를 다듬고 또 다듬어 함도 특별히 주문하여 잘 만들었다.

그후 1982년 4월 13일 죤은 조선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웠다.

중앙동물원에 온 앵무새들가운데는 또한 **김일성**주석께 세네갈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드린 목도리앵무를 비롯한 여러 종류

의 앵무새들이 살고있다.

금강앵무는 오스트리아 뚜쉬출판사 사장겸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연구소조》책임자인 안똔 뚜쉬가 1979년 7월 18일 감는꼬리원숭이 한쌍과 함께 주석께 선물로 드린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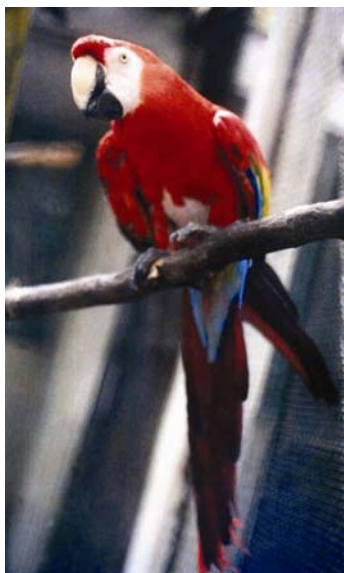
김일성주석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금빛으로 빛난다는 의미에서 금강앵무를 선물드리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이 직접 선물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되여 수도로부터 70~80리 떨어진 자연동물원에 가서 여러가지 아름다운 색이 섞인 금강앵무를 잡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다. 나무우에 살면서 조금만 가까이 가도 날아가는 금강앵무를 사로잡기 위해 전문기관이 특별히 준비한 새그물을 만들어썼다고 한다.

금강앵무는 앵무새들가운데서 제일 큰 종의 하나이다.

몸길이는 90㎝인데 2/3는 꼬리이다. 몸은 노란색, 푸른색, 불색, 검은색, 풀색이 섞여 금강석처럼 눈부시고 아름다우며 훈련을 주면 사람의 말을 잘 흉내낸다.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곧잘 흉내낼수 있는것은 그것들의 혀가 특별히 넓고 크며 자유로이 놀릴수 있는 육질로 되여있기때문이다.

금강앵무

금강앵무는 앵무새들가운데서 욕심많기로 소문이 났다. 이 새는 열매달린 나무를 발견하면 부리로 열매를 까서 씨를 뽑아 먹으면서도 울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는다. 이것은 먹이가 있다는것을 다른 새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먹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김일성주석께 파키스탄의 오리엔

탈선박회사 사장 파잘 메스킨이 1983년 9월 9일 많은 희귀한 새들과 함께 애기앵무들을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파키스탄에서는 애기앵무와 금화조를 행복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기고있다.

애기앵무는 온몸길이 20㎝정도, 몸질량 35~40g으로서 앵무새들가운데서 제일 작다.

몸은 풀색, 푸른색, 노란색, 흰색등인데 아주 귀엽다.

붉은꼬리재빛앵무

애기앵무는 아프리카, 오스트랄리아남부에 퍼져있다. 애기앵무는 그 변종이 40종이나 된다고 한다.

애기앵무는 가정들에서도 흔히 기른다. 애기앵무는 될수록 쌍으로 길러야 번식을 잘할수 있다. 그것도 마음에 맞는 쌍으로 길러야 한다. 애기앵무는 서로 의가 잘 맞지 않으면 언제까지든 서로《남남》으로 있게 된다. 때문에 한 조롱안에 한쌍을 넣어준 다음에는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만약 암컷과 수컷이 서로 몸을 기대고 깃다듬기를 해주거나 부리를 맞쪼으면 서로 정이 통한다는것이다.

하지만 부리로 톡톡 쪼아주거나《끼, 끼》소리를 내며 싸우는 경우에는 인차 갈라놓고 다른 대상을 넣어주어야 한다.

수컷이 지나치게 인사를 하듯 머리를 아래우로 움직이면서 자꾸 암컷에게 다가가 부리로 먹이를 먹여주려고 하는 행동은 바로《청혼》을 하는 행동이다. 만약 암컷이 싫어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먹으면 승낙한것으로 된다.

암컷이 알을 품으면 수컷은 먹이를 전문 날라다 부리로 먹여주기까지 한다.

암컷은 첫 쌍붙은 후로부터 1주일후에 5~7개의 알을 낳는데

하루 건너 1알씩 낳으므로 한번 알을 낳는데 10일정도 걸린다.

수컷은 새끼가 까난 후에도 먹이를 기껏 먹고 암컷에게 먹여주며 어미가 그것을 만문하게 만들어 다시 새끼들에게 먹여준다.

앵무새가운데는 **김일성**주석께 적도기네공화국의 이전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을 맞으며 드린 붉은꼬리재빛앵무도 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앵무새가운데서 말을 제일 잘 흉내내는 이 새를 보시며 매우 희귀한 새라고, 많이 번식시킬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앵무새도 지적회화를 할수 있다

앵무새가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은 고대로부터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앵무새가 단순한《되받아외우기》가 아니라 사람처럼 《사고》하며 말할수 있다는것이 최근에 증명되였다.

어느 한 나라의 박사는《알렉스》라는 앵무새를 오랜 기간 연구하며 훈련시켜 23종의 물건이름과 6종의 색갈, 5종의 모양, 여러종의 재질을 식별하며 6까지의 수자를 셀수 있게 하였다. 이 앵무새는 자기의 머리속에 기억된 말을 조립하여 50개이상의 식별, 요구와 거절의사를 자체로 표현한다고 한다. 즉 사람과 지적회화를 할수 있었다.

이 앵무새는 자기를 만지는것이 싫을 때에는《싫어.》라고 거절했고《널 만지고싶어.》라고 말하기전에는 훈련사도 못만지게 하였다.

이 앵무새의 이러한 행동은 앵무새가 침판지와 맞먹는 지적능력수준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서 앵무새도 훈련만 주면 사람과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을 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였다.

《숲속의 사람》—오랑우탄

김일성주석께 인도네시아대통령 수하르또는 1979년 10월 29일 조선로동당창건 34돐을 맞으며 자기 나라에서도 매우 희귀한 동물의 하나인 오랑우탄 한쌍을 선물로 드리였다.

그 어느 나라 누구에게도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보낸적이 없는 수하르또대통령이였지만 인민들에게 훌륭한 동물원을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김일성**주석의 위인적풍모에 감복되여 기성관례를 뛰여넘는 결심을 하였던것이다.

그는 수도 쟈까르따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랑우탄이 제일 많은 쑤라바야동물원에 오랑우탄 한쌍을 기를데 대한 과업을 주었으며 자신이 직접 동물원에 나가 오랑우탄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원숭이류는 5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오랑우탄은 류인원과에 속한다.

류인원의 털색은 거의나 검은색이다. 그러나 오랑우탄만은 길고 성근 붉은 밤색의 털이 온몸뚱이를 덮고있는 원숭이로서 일명 성성이라고도 부른다.

오랑우탄이란 말라이어로 《숲속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오랑우탄은 아프리카에서 사는 원숭이종류인 고릴라 다음가는 큰 류인원이다.

지난날에는 아시아대륙의 남쪽에도 널리 퍼져있었으나 지금은 일부 제한된 지역에만 있고 그 수가 적어 세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다.

오랑우탄은 인도네시아의 쑤마뜨라섬과 깔리만딴섬에만 퍼져있다.

이 나라에서는 오랑우탄을 비롯한 희귀한 자기 나라 특산동물이 다른 나라로 나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있다.

오랑우탄은 선키가 125 ~180㎝, 팔을 벌리면 그 너비가 2.4m이다.

몸질량은 수컷이 보통 75~110㎏이고 암컷은 약 80㎏이다. 기르는 조건에서 몸이 비대해지면 수컷이 204㎏, 암컷이 110㎏나가는것도 있다고 한다.

오랑우탄은 나무우에서 생활하기에 적응되여 뒤다리는 짧고 앞다리는 길어 무릎을 훨씬 지나간다.

귀는 작고 코는 납작하며 코구멍은 휑하니 들여다보인다.

오랑우탄은 깊은 산림의 나무우에《집》을 짓고 가족단위로 산다.

드물게 땅우에 내려오는데 이때에는 몸을 곧바로 세우고 두발로 걷는다.

오랑우탄은 흉내를 아주 잘낸다.

흉내를 잘 내는것은 원숭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바로 이 성질을 리용하여 원숭이를 잡는다.

사람들은 나무우에서 사는 원숭이동네를 찾아간다. 땅우에 그물을 펴놓고 그 우에 척 앉아 숱한 원숭이들이 보는 앞에서 맹물을 들이마신다. 그 다음에는 옆에다 술을 넣은 병을 세워놓고 곤드레만드레 취한듯 그물우에 네활개를 펴고 드러눕는다.

오랑우탄

사람들의 행동을 놓치지 않고 살피던 원숭이들은 이때라 하고 나무우에서 내려와 술병을 쥐고 들이마신다. 흉내를 내느라 시작한 일인데 병안의 술도 구미에 맞는지라 밑창이 날 때까지 마셔버린다.

이번에는 진짜 취한 원숭이들이 사람들처럼 또 네활개를 펴고 그물우에

드러눕는다. 바로 이때 잠자는체 하던 사람들은 일어나 그물을 거두어 원숭이들을 손쉽게 《체포》한다.

오랑우탄은 기억력도 대단히 좋다.

오랑우탄의 행동에는 참으로 《숲속의 사람》다운 행동들이 많다.

다 늙은 오랑우탄은 《젊은이》들처럼 재주로는 인기를 끌 자신이 없는지 철울타리에 엉치를 척 붙이고 앉아서 사람들에게 서너번 박수를 보내주고 먹을것을 달라며 손을 내민다. 이러는 오랑우탄을 동정하여 사람들이 먹이를 던져줄 때 그것이 오랑우탄이 앉아있는 곳까지 미치지 못하면 신경질을 부린다. 흔히 성날 때 하는 짓대로 이발을 흉하게 드러내며 자기의 커다란 손잔등으로 자기가 앉아있는 콩크리트바닥을 세차게 두드린다. 그리고는 《여기다 좀 던져라.》하고 말하듯 괴상한 소리를 지른다.

오랑우탄은 심술 또한 보통이 아니다.

암컷과 수컷이 한우리에서 사는 다정한 《부부》이기는 하지만 만약 수컷에게 먹이를 더 먼저, 더 많이 주지 않고 암컷에게 먼저 주면 당장에 큰 일이 난다. 수컷은 암컷을 잡아 먹을듯이 펄쩍 뛰면서 마루바닥을 큰 손으로 사정없이 두드려댄다.

그 위협이 무서워 암컷은 제꺽 먹이를 내놓는다. 때문에 동물원에서 먹이를 줄 때에는 항상 수컷을 먼저 생각하여야 평온한 분위기속에서 《식사》가 보장된다.

동물원의 오랑우탄은 새 관리공이 오면 그를 타진해보고는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 신입관리공의 눈치를 보면서 가까이에 접근하였다가 불의에 달려들어 다리를 꽉 붙잡고는 아무 곳이나 물어주고 달아난다.

오랑우탄의 몸질량이 30 ㎏보다 작을 때에는 애무하여주는것으로 동물과 친숙해질수 있지만 그 이상되면 동물이 관리공과 힘겨루기를 해보려고 한다.

오랑우탄은 조심스럽고 겁이 많은 동물로서 처음에는 자기의 관리공까지도 경계하면서 곁을 잘 주지 않는다. 잠잘 때에도 안

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자지 않는다.

오랑우탄은 령리하여 여러가지 재주로 관람자들의 인기를 끈다. 철봉, 그네뛰기, 력기, 도립, 자전거타기 등 여러가지 재주를 부린다.

오랑우탄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습성이 있다. 때문에 훈련할 때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면 《요령》이 생겨 동작을 형식적으로 하려고 한다. 강한 요구성을 가지고 훈련시켜야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할수 있다.

오랑우탄은 사람이 앓는 병은 거의 다 앓으며 지어 홍역까지 한다.

수명은 약 50년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중앙동물원을 찾으시였을 때 오랑우탄은 인도네시아대통령 수하르또가 보내여온것이라고 하시며 력기도 시켜보게 하시고 오랑우탄이 자전거를 잘 탄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에 온지 얼마 안되는 새끼오랑우탄이 앓아서 전혀 먹지 못하고 죽게 되였을 때 비행기를 띄워 그가 좋아하는 남방과일을 가져다 먹여 살리도록 하여주시였다.

어느날 동물원을 찾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별스레 점잖은 티를 내면서 왔다갔다하는 오랑우탄을 바라보시다가 이 동물에게 무엇을 먹이는가고 물어보시고 류인원이 제 고장에 있을 때에는 남방과일을 많이 먹었을것이라고 하시며 귤이나 바나나를 줘보라고 말씀하시였다.

오랑우탄은 먹이를 덮치다싶이 집어다가 날쌔게 먹어버리고 맥주까지 한고뿌 쭉 마시였다. 그다음에는 담배에 불을 붙여주자 애연가인양 제법 코로 연기를 내뿜는것이였다.

이러한 오랑우탄의 모습을 흥미있게 바라보시던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웃으시며 류인원의 얼굴이 못생기기는 못생겼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물원일군들에게 류인원을 밖에 내다놓으면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겠다고, 조선에 없는 동물은 다른 나라들에서 사와서라도 인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

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동남아시아나라들에 있는 모자를 썼다 벗었다 하면서 사람의 흉내를 내는 원숭이와 남아메리카지역에 있는 작은 원숭이, 교예를 하는 곱등어도 가져다 놓으면 근로자들과 아이들이 매우 좋아할것이라고, 이제부터는 외국에 나가는 대표단들도 돌아올 때에는 조선에 없는 희귀한 동물들을 구해오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오랑우탄은 조선의 기후풍토에 순응되여 새끼까지 낳게 되였고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있다.

가장 큰 류인원 고릴라

고릴라는 아프리카의 열대산림속에서 사는 몸집이 가장 큰 류인원이다. 키는 거의 2m 나 되고 몸질량은 250 ㎏이다.

이 원숭이는 웃몸이 잘 발달되였으며 특히 《팔》이 길고 힘이 세다.

주먹으로 제 가슴을 쾅쾅 두드리는 습성이 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쎈지 5 리밖에서까지 들린다고 한다.

이 동작은 무리에 자기 위치를 알리기도 하고 다른 짐승에게 위협을 주는데 리용된다고 한다.

고릴라는 매우 령리하다.

밤이면 몸집이 큰 수컷이 나무밑에서 제 무리의 《안전》을 지켜 보초를 선다.

고릴라는 앞발의 힘이 매우 세며 그 힘은 악어의 입을 두《손》으로 찢어버릴만큼 크다.

하지만 고릴라는 좀처럼 다른 짐승과 싸우지 않으며 사람에게도 함부로 달려들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피하여 달아나면 달려든다.

고릴라는 술을 좋아한다.

이 습성을 리용하여 산림에 술독을 묻어두었다가 그것들이 실컷 마시고 취해서 잠잘 때 사로잡는다.

타이에서 보내온 동물들

구 관 조

동물세계에는 앵무새를 내놓고도 팔가나 구관조처럼 말 잘하는 새들이 있다.

김일성주석께 타이왕국 그란드꼬국제무역유한주식회사 사장 프라시트 포타스톤이 1979년 7월에 팔가와 구관조를 선물로 올리였다.

그는 1978년에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중앙동물원에서 **김일성**주석께 세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각계 인사들이 보내여온 귀중한 선물동물들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았다. 그는 자기도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많은 동물을 선물로 드릴것을 결심하였다.

조선을 떠나기에 앞서 그는 자기의 뜨거운 마음을 담은 타이사를 건설해줄것을 부탁하였다. 타이에 돌아간 그는 가족들과 회사일군들 그리고 친우들과 진지하게 토의하여 선물동물의 종류를 정하였다.

행복과 번영의 상징인 희귀하고 고운 새들이 선물로 선정되였다.

사장은 자기 온 가족과 함께 회사일군들로 직접 선물준비조를 뭇고 새들이 사는 산골짜기, 높고 낮은 봉우리들과 키높은 나무들에 오르고 또 올랐다. 새를 잡는 일은 여간

구 관 조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들은 새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가면서 한마리한마리의 새들을 정성껏 마련하였다.

그는 새들을 우리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직접 자기 가정에서 새들을 기르면서 사양관리표도 작성하고 생태학적특성도 관찰하였다.

말 잘하는 새들인 팔가와 구관조에게는 《타이, 조선, 친선, 단결》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워주고 여러가지 재롱을 배워주었다.

중앙동물원에 타이사가 훌륭히 건설되고있던 1979년 7월 12일 포타스톤사장은 팔가와 구관조를 비롯한 조류 12종에 21마리를 자신이 직접 가지고 조선에 왔다.

그는 **김일성**주석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자기 가족과 친우들, 그란드끄국제무역유한주식회사 전체 일군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선물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타이에서 선물로 가져온 새들을 다 중앙동물원에 보내주어 잘 기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포타스톤사장은 직접 중앙동물원을 찾아가 관리공들에게 새들을 기르던 경험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구관조는 찌르레기만 하며 몸색은 자주색에 윤기나는 검은색이 섞인 혼합색이다.

날개의 한부분만이 흰색이다.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새라고 하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따라 하지 않는다.

새가 말하는것은 철저히 먹이에 대한 조건반사현상이다. 때문에 먹이를 주어야 기분이 좋아서 말을 한다.

이밖에도 중앙동물원의 타이사에는 여러가지 희귀한 새들이 살고있다.

흰 공 작

김정일령도자께 타이왕국 그란드쯔국제무역유한주식회사 사장 프라시트 포타스톤은 1981년 3월 26일 4마리의 흰공작을 선물로 드리였다.

이미 조선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께 삼가 희귀한 동물들을 선물로 올린 그는 그후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 참가하게 되였다. 그는 회의에서 **김정일**령도자를 처음으로 뵈옵고 그이를 흠모하는 조선인민의 열화와 같은 마음을 목격하게 되였다.

대회에 참가하여 그처럼 흠모하여 마지 않던 **김정일**령도자를 뵈옵고 자기 조국에 돌아간 그는 위인을 따르는 순결한 마음을 담아 귀한 손님에게만 올리는 흰공작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타이에서 공작새는 장수와 행복을 상징하는 새로 알려져있다. 그는 수도에 있는 동물원에 나가 흰공작 여러쌍을 가져다 몇달동안 기르면서 고르고 또 골라 4마리를 선정하고 선물함도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

흰공작은 꿩과에 속하는 조류이다.

공작은 약 2000년전부터 사람들이 길러왔고 흰공작은 그의 변종으로서 1500년경에 생겨났다.

흰공작의 머리꼭대기에는 17~20개의 깃으로 된 깃관이 세로 부채모양으로 퍼져있다.

흰공작의 수컷에는 길고 흰 장식깃이 있는데 공작의 깃처럼

흰 공 작

무늬가 있어 매우 아름답고 우아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암컷은 밤색기가 많은 수수한 깃을 가지고있을뿐이다.

번식기에는 수컷이 암컷앞에서 아름다운 깃을 활짝 펼쳐들고 《독춤》을 추면서 암컷을 유인한다.

수컷은 기분이 좋을 때에도 그 깃을 펴군 한다.

번식기가 지나면 장식깃이 빠지고 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이듬해 봄이 되면 다 나온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들이 모여 장식깃을 펴고 너도나도 부채춤을 추기때문에 숲속이 환해진다고 한다.

조선에는 이미 **김일성**주석께 1979년 9월 6일 타이왕국 국회 하원의장 붕텡 통싸와스디가 타이왕국과 타이인민의 이름으로 삼가 올린 흰공작이 있었다.

그는 조선방문을 준비하면서 자기 나라의 전체 인민들에게 특산종이며 아름다운 새들을 잡아 **김일성**주석께 선물로 드리자고 호소하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국회 하원의원들과 함께 몇달동안 새들이 제일 많은 깊은 산에 올라가 생활하면서 한마리한마리 새들을 정성껏 마련하였다.

어느 한 상인은 아들을 데리고 험한 산발을 타고다니며 오색조를 잡는데 성공하였고 한 평범한 로동자는 자기 집에서 흰배물닭을 정성다해 길렀다. 또한 이름있는 동물학박사는 공작새를 변이시켜 흰공작을 마련하였다.

타이인민의 이러한 지성이 어린 흰공작과 오색조 4마리, 팔색조 2마리, 밤물까마귀 14마리, 푸른물닭 4마리 등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붕텡 통싸와스디는 타이왕국친선촉진대표단 단장으로 조선에 왔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1돐을 축하하여 **김일성**주석께 직접 선물을 드리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몸소 그와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악 어

타이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만 악어를 선물로 드린다고 한다.

김일성주석께 타이왕국 그란드꼬국제무역유한주식회사 사장 프라시트 포타스톤이 1979년 9월 6일 타이악어를 선물로 올리였다.

파충류전문가들과 함께 강에 나가 살면서 악어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악어가 선정되자 그는 자기 집에 악어장을 만들어놓고 민물을 길어다가 기르며 인공조건에 습관되도록 하였고 먹이, 온도, 습도, 기타 습성을 적은 표도 작성하였다.

타이악어

그는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정성들여 마련한 타이악어를 **김일성**주석께 삼가 선물로 드리였다.

악어는 지구에서 살고있는 파충류가운데서 가장 크고 발달된 사나운 동물이다. 유럽을 내놓고 거의 모든 대륙에 퍼져있다.

악어에게도 다정한 《친구》가 있다.

바로 악어새가 포악한 악어의 더없는 《길동무》이고 《친구》이다.

악어는 해가 뜨면 물속에서 나와 강기슭에서 해바라기를 하며 쉰다. 이때 악어는 큰 입을 쩍 벌리고있다. 그러면 물촉새류의 작은 파랑새인 악어새가 날아와 악어의 입안을 다니며 이발짬의 고기찌끼를 쪼아 먹는다. 악어는 자기의 입안을 청소해주는 이 새를

잡아 먹지 않으며 오히려 반가와한다.

타이악어는 중국, 타이, 인도네시아 등에서 살고있는 진귀한 동물이다.

타이악어의 가죽은 질이 좋아 고급일용품을 만드는데 쓴다. 악어가죽으로 만든 혁띠나 가방, 박제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예품들은 자기와 가장 친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로 리용된다.

중앙동물원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보내온 악어들이 살고있다.

닐악어는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김정일**령도자께 선물로 드린것이다.

닐악어는 악어류가운데서 제일 큰데 보통 몸길이가 4.8m, 몸질량이 100㎏정도 된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닐강, 북아메리카의 미씨씨피강에서 사는 악어는 길이가 최고 10m에 달하는것도 있다고 한다.

이 닐악어는 모지바뚜은쟈대폭포부근의 악어농장에서 선정되였다고 한다.

중앙동물원에는 또한 **김정일**령도자께 2007년 9월 27일 중국호목신용투자자문유한공사 총경리인 장조량이 선물드린 바다악어 한쌍도 있다.

그는 중국에서 사업상관계로 만났던 조선의 한 일군으로부터 **김정일**령도자께서 인민들의 즐거움과 문화정서생활을 위해 중앙동물원에 말과 애완용개를 비롯한 많은 동물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께 선물을 드리고싶은 충동을 받게 되였다.

어떤 선물을 올릴것인가를 놓고 고심하던 그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 앞으로도 영원불멸하리라는 의미에서 예로부터 근 100년을 사는 억센 동물로 알려져있는 바다악어를 선물로 올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동물전문가와 함께 자신이 직접 오스트랄리아에 가서 바다악어를 해결한 다음 중국 단동까지 무사히 운반하였다.

그가 보내온 바다악어 한쌍은 중앙동물원에 현재까지 없던 종류로서 파충류가운데서 가장 큰 종류이다.

다 자란 바다악어는 온몸길이가 6~7m, 최고 10m이며 체중은 1 000 kg에 달한다고 한다.

김정일령도자께 2008년 8월 20일 그는 악어거부기를 또다시 선물로 올리였다.

그는 세계적으로 멸종의 위기에 직면하였던 희귀한 동물인 악어거부기 한쌍을 선물올리기로 결심하고 동물학에 조예가 있는 전문일군과 함께 악어거부기의 서식지인 남아메리카에 가서 해결하였다.

악어거부기는 얼핏 보면 악어와 비슷하다.

성격이 게으른 악어거부기는 주동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자주 조용히 물밑에 누워 자기를 위장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있는다.

혀는 분홍색이며 흔들면 마치 곤충같아보인다.

평시 물에서 싸우기 좋아하지 않지만 륙지에서는 사납게 공격하고 문다고 한다.

악어거부기는 원산지에서 과도하게 잡고 팔아서 거의 전멸되다싶이 되였다.

현재 세계에서 진귀하고 희귀한 생물순서중 6번째에 꼽히는 동물이고 세계야생동물보호대상에 들어있다.

하나의 동물관을 통채로

조선의 중앙동물원에는 스웨리예 스칸센동물관 관장 요나스 왈스트룀이 **김정일**령도자께 선물 올린 동물관이 있다.

이 동물관에는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요나스의 열렬한 숭배와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이 뜨겁게 어려있다.

요나스는 로동자의 가정에서 태여나 로동을 하며 동물학을 공부한 동물업자이다.

그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여 동물세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되였다.

그의 소박한 희망은 사멸단계에 이른 동물들을 번식시켜 그것을 세상사람들에게 보여주는것이였다.

자금부족으로 독자적인 동물원을 가질수 없었던 그는 자기를 배워준 스승의 도움으로 스칸센이라는 고장에 있는 국가동물원안에 자그마한 부지를 얻어 수족관을 꾸리였다.

이 나날에 그는 자기의 포부와 희망을 리해해주고 자기의 수족관에 대한 소개기사를 많이 쓴 녀기자를 안해로 맞이하였다.

요나스는 안해와 함께 집에서 동물들을 기르면서 연구사업도 하고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 등 여러곳을 다니면서 희귀한 동물들을 구해다 번식시키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 요나스는 출판물들을 통하여 유익한 동물자원이 국가의 법으로 보호증식되고 식물원과 동물원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과학지식보급기지로 되고있는 조선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되였다. 인민의 소원이 현실로 되는 나라,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나라인 조선에 대한 한없는 동경의 마음이 솟구쳐올랐다.

더우기 이 모든것이 **김일성**주석의 높으신 뜻을 이어가시는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라는것을 알게

된 요나스는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한없이 숭고한 뜻을 지니신분, 고매한 풍모로 인민에게 사랑을 주시는분 … 그처럼 위대한분에 대해 알게 된것은 내 한생의 다시없는 영광이다.)

이때로부터 요나스는 조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김정일**령도자의 로작들을 열심히 연구하였으며 조선의 많은 출판물들을 읽게 되였다. 그 과정에 령도자의 인간상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였다.

그는 **김정일**령도자께 자기 온 가족의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싶었다.

거듭되는 토론끝에 자기와 온 가족이 가장 큰 정성을 기울이고있는 희귀한 동물들가운데서도 특별히 귀중히 여기는 흰귀비단털원숭이 한쌍을 골라잡았다. 흰귀비단털원숭이는 이들이 남아메리카에 가서 힘들게 잡아다가 번식시켜 보물처럼 키우고있던 소중한 재산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 1984년 2월 16일 요나스는 원숭이관리에 필요한 자료들과 함께 영양가높은 사료를 정성들여 만든 함에 넣어 평양으로 달리는 자기들의 마음이 담긴 흰귀비단털원숭이 한쌍을 선물로 올리였다.

중앙동물원을 찾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요나스가 보낸 선물동물인 흰귀비단털원숭이를 두번씩이나 보아주시고 조선에 없는 희귀한 동물이므로 잘 관리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으며 앞으로의 번식전망과 그 보호관리에 대하여 세세히 보살펴주시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요나스는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흰귀비단털원숭이가 중앙동물원에서 새끼를 낳은 사진까지 받아본 그는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는가, 한 나라의 령도자가 소박한 저의 선물을 두번씩이나 보아주시였다니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자연을 사랑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가꿔주시는 **김정일**령도자께 요나스는 뜻깊은 조선로동당창건 40돐을 맞으며 하나의 동물관을 통채로 선물 올리기로 결심하였다.

요나스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먼저 자기 수족관에 있는 희귀하고 보기 드문 포유류와 어류가운데서 상태가 제일 좋은것을 골라 자기가 직접 관리하였다.

흰머리비단털원숭이

그는 자기 수족관에 없거나 부족한,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물들을 다른 나라에 가서 사다가 기르면서 그 상태를 관찰하기도 했다.

작은 동물들과 희귀한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마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스웨리예사람들도 보기 힘든 값비싼 가는날개수염어는 동남아시아에 가서 마련하였다.

동물관운영에 필요한 대형려과기, 물거품제거기, 특수유리를 비롯한 설비들도 정성껏 마련하였고 스칸센수족관에 하나밖에 없는 산소주입기도 선물명세에 올렸다.

1985년 5월 30일 요나스는 선물동물관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해 가족과 함께 조선을 찾았다.

김정일령도자의 관심속에서 중앙동물원의 경치좋은 곳에 요나스의 제의대로 선물동물관이 일떠서고있었다.

요나스는 이번 길에도 **김정일**령도자께 올릴 희귀한 동물들을 정성껏 마련해가지고왔었다.

원숭이류에서 제일 작은 꼬마비단털원숭이와 머리가 하얀 흰머리비단털원숭이, 밤에만 활동하는 눈이 특별히 큰 밤원숭이, 코개곰…

꼬마비단털원숭이는 세계적으로 멸종되여가는 종이여서 흔치 않은것이였지만 라틴아메리카에 가서 잡아다가 직접 번식시킨것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물관을 준비하는 전과정에 대한 기록영화를 촬영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조선을 방문하고 돌아간 요나스는 **김정일**령도자께 기쁨을 드리자면 선물관이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될뿐아니라 선물동물들이 잘 살고 정상적으로 유지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양관리방법과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도와주기 위해 동물전문가들까지 보내주었다.

드디여 1985년 10월 평양의 중앙동물원에는 현대적인 선물동물관이 일떠섰다.

이 10월에 요나스는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온 가족의 지성어린 선물을 안고 두번째로 평양을 찾았다.

요나스는 선물관을 개관하는 날까지 매일 현장에 나와 공기조절기와 산소주입기의 스위치까지 살펴보며 머나먼 북유럽에서 극진한 정성으로 또다시 안고온 20여종의 희귀한 물고기와 밤동물, 파충류들을 제손으로 하나하나 넣고 관리방법까지 배워주었다.

1985년 10월 18일 중앙동물원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 올리는 선물동물관 개관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 개관모임이 있은 후 친선훈장과 **김정일**령도자의 선물을 수여받은 요나스는 선물동물관을 보다 훌륭히 보충완비하여 그이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릴 굳은 결의를 다졌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요나스에게 기록영화 《평양에 온 요나스》를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을뿐아니라 중앙동물원의 선물동물관을 몸소 찾아주시였다.

조임왕구렝이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물동물관을 돌아보시며 자연계에서 노는 동물들을 보는것처럼 실감있게 훌륭히 꾸린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며 모든 성의를 다한 요나스의 뜨거운 지성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여기에 희귀한 동물들이 많다고 하시며 보기좋은 형광고기와 고운 비단털원숭이, 눈이 큰 밤원숭이와 몸으로 먹이를 비틀어 잡아 먹는 조임왕구렝이를 보시면서 그 특징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말씀해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자기의 선물관을 보아주시였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요나스는 국가수반들에게만 차례지는 이처럼 훌륭한 영예를 안겨주신 그이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요나스는 **김정일**령도자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또다시 많은 자금을 들여 자외선고열등을 비롯한 설비와 시약 그리고 희귀한 동물을 선물로 보내왔다.

이와 함께 그는 조선을 방문하면서 찍어간 환등필림 120여카드를 현상하여 자기 친우들과 동업자들에게 보내주며 대대적으로 조선에 대하여 선전하였다.

요나스는 세계인민들이 협력하여 온 세계의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본보기로 되는 아름다운 나라 조선의 중앙동물원에 대한 책을 출판하였다. 책에서 그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자기에게 돌려주신 배려에 대하여, 친절한 조선사람들에 대하여, 조선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후에도 그는 선물동물관을 돌아보고 동물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편지를 **김정일**령도자께 삼가 올렸다.

요나스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80돐과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맞으며 또다시 조선을 방문하여 여러 나라에서 수집한 동물들가운데서 가장 좋은것을 골라 선물로 드리였다.

그리고 그는 선물동물기르기에 필요한 물고기원색도감과 비타

민류, 물고기치료약을 따로 준비하여 보내여왔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후 스웨리예 스칸센수족관을 방문하는 조선일군들을 통하여 요나스에게 땅거부기기르기기술자료와 흰두루미를 보내주신것을 비롯하여 4 차례의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1987 년 10 월 21 일 요나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박사칭호를 수여받았다.

그 다음해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가 올린 선물동물관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동물원일군이 그이께 요나스가 지난해에 명예박사칭호를 수여받고 감격해하였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치고는 그런 사람이 쉽지 않을것이라고 그의 지성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 첫 선물동물을 올린 때로부터 10 년이 지난 어느날 요나스는 조선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 **김일성**주석을 잃은 커다란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시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와 함께 진귀한 물고기들을 또다시 선물로 드리였다.

요나스는 그후에도 해마다 여러 종류의 파충류를 선물로 보내여왔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속에서도 2008 년 12 월 1 일 중앙동물원을 찾으시였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동물원이 그사이 그야말로 천지개벽하였다고,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개건확장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며 종업원들이 1 년내내 밖에서 동물을 사양관리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모두에게 은정어린 선물을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물고기종류도 지금보다 50~60 종 더 들여다주고 백마와 노새, 버새, 애완용개도 더 보내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날 중앙동물원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이 다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20여년전에 하나의 동물관을 통채로 선물올린 요나스가 지금도 조선에 동물들을 계속 보내오고있다고 하시면서 그의 남다른 지성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스웨리예주재 조선대사관일군들을 통하여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요나스는 그이의 인민을 위한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하고싶은 절절한 마음을 담은 자기의 선물을 한시라도 빨리 전달하기 위해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안고 조선대표단성원들을 찾아 비행장으로 달려나왔다.

그는 선물들을 보내올 때 자기와 안해가 같이 협력하여 쓴 스웨리예의 19개 동물원들에 대한 책도 함께 보내여왔다.

요나스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스웨리예 동물원협회산하 19개 동물원들을 다 돌아보면서 많은 품을 들였다고 한다.

스웨리예에는 남쪽의 스꼬에로부터 북쪽의 라플란드까지 크고 작은 동물원들이 있는데 매해 근 400만명의 참관자들이 오고있다고 한다.

그는 이 책에서 어떻게 거대한 코끼리를 비행기로 운반하고 어떻게 범사를 꾸리며 물개의 놀이터는 어떻게 만드는가 등 사양방법과 동물치료에 대하여서도 생동하게 서술하였다.

그는 책에서 스웨리예동물원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증식시키기 위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도 적극 노력하고있다고 하였다.

그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요나스의 풍부한 경험과 동물애호정신을 알수 있다.

요나스는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희귀한 동물 근 150종에 1 500여마리를 선물로 보내여왔다.

김정일령도자와 외국의 한 동물업자사이에 맺어진 특이한 20여년간의 인연!

만사람이 모두 《수수께끼》로 여기는 이 인연의 뿌리는 과연 무엇이기에 그토록 오랜 세월 푸른 잎새를 펼쳐왔던가.

그 수수께끼의 답은 바로 요나스도 말했듯이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끝이 없기때문이다.

그이의 인간적매력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눈부신 빛을 뿌리였다.

김정일령도자를 따르고 받드는것이 현 시대의 옳은 지향이라고 그는 믿었기에 그의 뜨거운 위인숭배열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이 없을것이며 또하나의 국제친선의 전설로 길이 전해질것이다.

아래에 요나스가 보내온 수많은 동물들가운데서 희귀한 원숭이들과 물고기 몇종을 소개하려고 한다.

흰귀비단털원숭이

흰귀비단털원숭이는 쥐만 한 크기의 원숭이로서 하얗게 반짝거리는 털묶음이 귀고리처럼 부채살모양으로 펼쳐져있으며 귀는 그속에 파묻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귀의 흰털묶음은 나서 20일부터 자라기 시작하고 40일 되면 약 10㎜정도 곧추 서게 된다. 90일 지나면 귀털이 뒤로 넘어가며 150일이 되면 흰털묶음이 생겨 귀바퀴주변을 에워싼다.

흰귀비단털원숭이는 성질이 온순하지만 갑자기 큰소리로 놀래우거나 심하게 흔들어놓으면 놀라서 광란적인 상태로 된다.

노여움도 많고 길고 높은 소리로 울기도 하며 때로 엄살도 곧잘 부린다.

특징적인것은 분비물을 내보내여 나무나 주위환경에 묻혀놓는것이다. 우두머리들은 주위의 모든것에 이런 《표식》을 하며 같은 족속들과 자기 몸에까지 발라놓는다. 무리안의 개별적원숭이들은 이보다는 적게 표식해놓는다.

이러한 표식들은 원숭이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준다. 즉 암컷들의 성적흥분과 낯선 원숭이의 령토침입, 알지 못할 다른 동물의 출현 등 많은 정보가 이에 의해 알려진다.

흰귀비단털원숭이

흰귀비단털원숭이들은 교제신호로써 소리신호도 리용한다.

격분을 나타내거나 도전을 예고할 때에는 귀청을 째는듯한 새된 소리를 지른다. 때로는 《티씨-이씨-》하는 등의 높은 소리를 내기도 한다.

집단안의 질서는 암컷과 수컷의 우두머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두 우두머리들은 각이한 도전신호를 리용한다. 즉 귀에 있는 털묶음을 수평으로 펴면서 움직이지 않고 몸털을 빳빳이 일으켜세우며 눈섭을 내리우고 몸통을 둥글게 굽힌다.

몸을 활모양으로 굽힌것은 집단안에서의 일종의 시위이다. 이런 행동은 다른 원숭이들에게 복종과 종속관계를 요구하는것이다.

흰귀비단털원숭이의 위협신호는 엉덩이돌리기와 꼬리를 들고 생식기를 보이는 행동이다.

새끼낳이는 수컷의 방조밑에 진행되며 갓난 새끼는 수컷이 받아 털을 핥아주고 업고 나온다.

수컷이 암컷보다 어리고 새끼관리경험이 없을 때에는 암컷이 여러날동안 새끼를 혼자 업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암컷은 젖을 먹일 때에만 새끼를 끼고있고 젖을 먹인 후에는 다시 수컷에게 넘겨준다.

이 원숭이는 아마조나스강의 하구로부터 브라질의 동북부까지

에 분포되여있다.

무성한 숲속의 나무우에서 살면서 벌레, 작은 새와 알, 나무열매 등을 먹는다.

수명은 약 10~15년이다.

성질이 급하나 사람들과 잘 친숙해지며 생김새가 곱고 재롱스럽게 놀기때문에 동물원에서 관상용이나 애완용동물로 많이 기르고있다.

꼬마비단털원숭이

오늘날 지구우에서 살고있는 원숭이들가운데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작은 원숭이는 꼬마비단털원숭이이다.

몸길이는 12~15㎝, 꼬리는 20~21㎝로서 꼬리가 몸길이보다 더 길다.

이 원숭이는 1823년에 서부브라질에서 처음 발견된것으로서 보통 손가락길이만 하다고 하여 손가락원숭이라고 부른다.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림의 나무웃부분에서 가족무리를 이루고 사는데 성질은 급하며 찬찬히 마주 보면 대가리털을 거꾸로 세우고 몸을 흔들면서 위협한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 뒤로 돌아서서 엉뎅이주변의 털을 세우고 뒤를 돌아보면서 좌우로 몸을 움직인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자세이다.

꼬마비단털원숭이

손가락원숭이는 방안의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만져보고 장난하는 특성이 있다.

대체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활동하나 위험이 닥쳐오면 날랜 동작으로 피하며 나무가지우에서 뒤걸음질하는 천성적인 《교예배우》의 기질도 가지고있다.

동물방안에 조명시설이 로출되여있으면 올라가 다치거나 감전되여 떨어져 상처를 입을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이 원숭이가 발가락을 상하는 경우에는 상처자리를 계속 핥기때문에 아물지 못하고 발가락마디가 떨어져나갈수 있다.

서로 사귈 때에는 높고 가늘게 떨면서 째는듯한 소리도 내고 새들처럼 지저귀거나 재잘거리는듯한 소리도 내며 구부러진 날카로운 발톱으로 애무도 해준다.

갓난 새끼는 당콩알만 한데 그 몸질량은 보통 15g 정도이다.

이 원숭이를 잡아 먹는것은 사나운 새들과 뱀들이다.

손가락원숭이는 주로 과일이나 벌레를 먹으며 수명은 약 10년이다.

이 원숭이는 몸이 작고 사람과 비슷한 특징들이 많은것으로하여 매우 가치있는 실험동물로 되고있다.

오늘날 이 원숭이는 사멸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수출하는것은 극히 제한되여있다.

느린밤원숭이

몸질량이 500~1 500g 밖에 안되는 작은 원숭이가 힘이 세다고 하면 믿기 어려울것이다.

그 동물이 바로 느린밤원숭이로서 둥글둥글한 몸매를 가진 작은 동물이다.

코마루는 희고 어딘가 난감한 표정을 짓고있는듯 하다.

이 원숭이의 특징은 대단히 느리고 한발자국씩 조심히 옮겨짚으면서 천천히 움직이지만 먹이가 있거나 누가 잡으려 할 때에

느린밤원숭이

는 날쌔게 이동하는것이다.

이 느린밤원숭이의 발잡는 힘은 대단히 강해서 무엇을 붙잡고있을 때에는 어른 2명이 당겨도 떼기 힘들다. 몸크기에 비해 들어올리는 힘도 매우 세다.

성질은 내성적이고 조용하지만 싫어하는것을 시키면 《구-구-》하고 으르렁거리거나 《끼이-끼이-》하고 높은 소리로 울며 대가리를 날쌔게 돌려 물어뜯기도 한다.

잠잘 때에는 몸을 둥글게 하는데 대가리는 앞다리사이에 넣는다. 둥글고 큰 눈을 가지고있어 얼굴은 얼핏 보면 올빼미와 비슷한감을 준다.

발가락끝이 특이하게 생겨 벽체 모서리짬을 잡고도 벽과 천정에 잘 기여오른다.

이 원숭이의 수컷은 다른 원숭이들과 달리 자식관리에 무관심한《아버지》로서 이따금 새끼를 업어주기도 하나 마지못해 하는 행동이라 오래 가지 못한다.

느린밤원숭이는 약 10년 산다.

다람쥐원숭이

큰 동물들로부터 작은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대체로 힘과 힘의 대결인 싸움을 거쳐서야 무리의 우두머리로 선발된다.

그러나 다람쥐원숭이세계에서는 싸움이 아니라 《딩굴기경기》

다람쥐원숭이

의 우승자가 우두머리로 된다.

다람쥐원숭이의 몸질량은 겨우 1 kg이며 몸길이는 30 ㎝, 꼬리길이는 37~47 ㎝이다.

눈주변은 희미하고 코끝을 포함한 입주변이 마치도 검은색마스크를 쓴것 같이 보이는 이 원숭이는 주로 수십마리 또는 100여마리로 되는 큰 무리를 이루고 산다. 이러한 무리는 자주 갈라지거나 다시 결합되군 한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성숙한 수컷이다. 나이먹은 수컷들은 때때로 자기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바닥에서 딩굴며 제일 오래 딩구는것이 우두머리로《당선》된다. 이 원숭이는 아마조나스강가에 널리 퍼져있다.

빠나마에서 관찰한 작은 원숭이집단은 2마리의 성숙한 수컷과 6마리의 어린 수컷들을 포함하고있었는데 이 집단은 매일 2.5~4.2 ㎞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잠자리는 제정된 장소 혹은 그 부근에 잡군 하였다고 한다.

이 원숭이들은 이따금 두발로 걷기도 한다. 나무꺽대기웃부분에서 공중으로 뛰여오르면서 날아가는 곤충을 잡기도 한다.

긴 꼬리는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나 물건을 감아쥐지는 못한다.

귀여운 다람쥐원숭이들은 휴식할 때 꼬리를 등뒤에로 올려붙이는 특징이 있으며 다른《동무》와 만날 때에는 서로 입을 맞추며 기쁨을 표시한다.

다람쥐원숭이들은 여러가지 소리신호로 교제를 하며 26~52가지 소리신호를 낸다고 한다.

이 원숭이들은《밥》을 먹을 때 어린 아이처럼 많은 량을 바닥에 흘리면서 먹다가 그것을 다시 주어먹는 습관이 있으며 그릇

에 담긴 물보다 흐르는 물을 더 좋아한다.

다람쥐원숭이의 새끼들은 갓나면 어미의 배나 등에 달라붙어 있으며 어미는 40분에 한번씩 젖을 먹인다.

새끼는 밤낮으로 어미에게 붙어있고 어미의 잔등우에서 기여다니며 자유로이 활동한다.

다람쥐원숭이는 작고 귀여우며 온순하기때문에 흔히 애완용동물로 기르지만 무리를 지어사는 습성이 강하기때문에 기르는 조건에서 한마리만 기르면 적적해하며 쉽게 죽어버린다.

최근에 인공위성의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고있다.

물 총 고 기

물총고기는 1766년에 알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유익한 관상용물고기이다.

현재 동남아시아와 미크로네시아의 민물수역에서 산다.

몸뚱이길이는 10~15㎝이다. 자연계에서는 30㎝가량 된다.

이 고기의 특징은 《물총》으로 먹이를 쏴떨구어 먹는것이다.

물총고기는 공중 또는 어항벽에 잠자리, 나비, 파리, 모기, 하루살이 등 벌레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재빨리 입으로 물총을 쏴서 그것들을 물걸면에 떨구어놓고 잡아 먹는다.

물총고기

물총고기의 입천정에는 가늘고 긴 홈이 나있는데 여기에 둥실하게 생긴 혀가 올라가 붙으면 가늘고 긴 관이 된다. 물총고기가 아가미를 갑자기 닫으

면 이 관으로 물을 내뿜게 되는데 물은 보통 1.2m, 최고 3m나 나간다.

엄지고기들은 대체로 3m높이까지 물총을 쏜다고 한다.

물총고기는 알을 3 000여개나 쓸며 그것들은 12시간이면 까나온다.

물총고기를 많이 기르게 되면 방안에 파리와 모기가 없게 된다.

청 흑 검 어

세상에는 사는 과정에 암컷이 수컷으로 성별이 달라지는 요술쟁이같이 신비한 물고기가 있다.

그 물고기가 바로 청흑검어이다.

검어는 1840년에 알려져 널리 기르고있는 이름난 관상용고기이다. 검어는 그후 인공적으로 오래 기르는 과정에 여러가지 아름다운 색갈을 가지게 되였다.

검어류에는 흑검어, 청검어, 황검어, 붉은눈긴꼬리검어 등 여러가지가 있다.

검어의 몸뚱이길이는 자연계에서는 8~12 ㎝, 어항안에서는 7~10 ㎝이다.

청흑검어의 수컷은 꼬리지느러미아래부분이 긴칼처럼 생겼으며 엉덩이지느러미는 쌍붙기기관으로 되여 가늘고 길며 끝이 뾰족한것이다.

수컷은 낳아서 2~3달사이에 엉덩이지느러미가 쌍붙기기관으로 변하면서 꼬리지느러미에도《긴 칼》이 뻗어져나와 수컷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청흑검어

4~5달사이에는 몸균형이 잘 잡혀 보기도 좋고 번식용으로서도 좋은것으로 된다.

그런데 새끼를 몇번씩 낳던 암컷의 엉뎅이지느러미가 부채모양으로 넙적하던것이 갑자기 가늘고 긴 쌍불기기관으로 변하면서 꼬리지느러미밑부분에 칼모양의 꼬리가 길죽하게 뻗어나와 수컷모양으로 되는것도 있다.

이것을 성달라지기수컷이라고 한다.

이때부터는 수컷구실을 하느라고 암컷을 따라 다닌다.

이러한 수컷은 2~3년동안 암컷노릇을 하다가 나타난다. 이 수컷은 몸뚱이가 대단히 크면서 칼모양의 꼬리는 짧게 생겨 번식용으로는 나쁘다.

동물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드물다.

해마(바다말)라는 고기는 수컷의 배에 새끼주머니가 있는데 암컷이 거기에 알을 낳아 넣어주면 수컷은 거기에 정액을 뿌려 수정되게 한다. 결국 수컷의 배에서 새끼가 한마리씩 까나오게 된다.

검어류들은 성질이 순하면서도 급한 편이고 다른 종류의 관상용고기들과 싸우지는 않으나 저들수컷끼리는 자주 싸운다.

또한 신선어, 진주어, 검은치마고기, 공작어, 금붕어들의 수염과 꼬리를 뜯어먹는 나쁜 버릇이 있으므로 이러한 고기들과 한 어항에서 함께 기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어항안에서 기르던것을 바께쯔나 소랭이같은데 옮겨놓아 환경을 바꾸어주면 죽는 수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열대말뚝망둥어

물에서도 살고 땅으로도 기여다니는 물고기가 있다.

열대말뚝망둥어라고 부르는 이 고기는 조선의 서해연안에 살고 있는 말뚝망둥어와 비슷한 관상용고기로서 남쪽지대에서 산다.

몸통은 둥글고 밑부분이 넙적하게 생겨서 옆으로 자빠지지 않게 되여있다.

눈은 대가리등쪽에 툭 삐여져나와 몹시 사나와보인다.

근육질로 튼튼하게 생긴 가슴지느러미는 물에서는 노의 역할을 하지만 땅에서는 다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유리면이나 나무우로 올라갈 때에는 빨반의 기능으로 몸을 물체에 붙여준다.

열대말뚝망둥어

말뚝망둥어는 보조숨쉬기기관이 발달되여있기때문에 물에서 사는 시간보다 땅에 나와 사는 시간이 더 많다.

몸이 젖어있는 조건에서는 해빛이 곧바로 비치는 마른 모래밭이나 풀밭으로 기여다니면서 먹이를 찾아 잡아 먹으며 나무나 돌바위우에도 올라가 사방을 바라보기도 한다. 어미가 나무우에 올라가 주위를 살피고 다른것들은 모래밭에서 재미나게 논다.

두눈은 서로 앞뒤좌우로 제각기 움직이는데 한쪽눈으로 앞에 있는 먹이를 찾거나 살펴보며 다른 눈으로는 뒤쪽 또는 옆에서 자기를 해치려는 적수들이 오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높이 뛰기도 하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청 소 고 기

물고기세계에도 얼룩히에나 못지 않은 《청소부》가 있다.

청소고기라고 부르는 이 고기들은 먹성이 좋아서 다른 물고기가 먹다버린 찌꺼기까지 말끔히 먹어치우는 《청소부》의 역할까지 한다.

이 물고기들은 대체로 입이 밑으로 향해져있고 주둥이에는 3~4쌍의 짧은 수염들이 있다. 이 수염으로 모래, 자갈들을 파헤치고 그밑에 숨어있는 실지렁이까지 모조리 잡아 먹는다.

몸뚱이는 둥글게 생기고 옆줄 아래웃쪽에는 비늘판에 번쩍이는 굳은 비늘이 두줄로 엇바꾸어 줄지어있다.

청소고기

청소고기들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몸뚱이 밑부분이 넙적해서 옆으로 자빠지지 않게 생겼으며 작은 기름지느러미가 하나 있고 몸뚱이는 매우 큰것이다.

이 고기는 다른 물고기들은 절대로 해치지 않을뿐아니라 방어수단이 철저하여 다른 물고기들로부터 피해도 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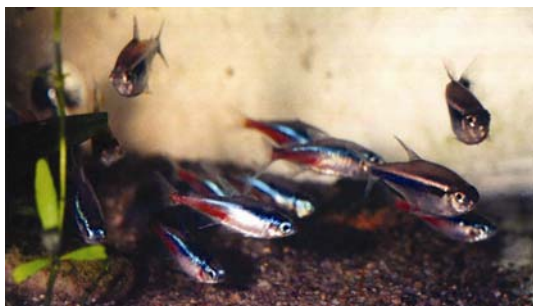
청소고기들은 주로 물바닥에서 살면서 모래속이나 자갈밑에 숨어있는 먹이들을 찾아 돌아다니다가는 갑자기 곧추 뛰여 물걸면에 올라와 공기를 마시고는 도로 내려간다.

형 광 고 기

열대의 수많은 물고기들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와 《녀왕》의 자리를 차지한 고기는 형광고기이다.

일명《녀왕어》라고까지 불리울 정도로 아름다운 관상용물고기이다.

형광고기는 이름그대로 형광등처럼 환한 불빛을 내뿜는듯한 현란한 고기이다.

몸길이는 3~4.5㎝이며 몸의 높이가 비교적 높고 날씬하다.

형광고기

몸의 가운데는 옆으로 줄이 나있는데 이 줄은 형광등보다 더 진한 푸른 빛으로 번쩍인다. 눈도 역시 형광등색으로 빛나고 등쪽은 검은색이며 배쪽은 흰색을 띤다.

모든 지느러미들은 유리처럼 맑은 투명색이여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형광고기는 무리를 지어 어항안을 계속 돌아치는 버릇이 있다.

알쓸이어항안이 지나치게 어두우면 잠만 자면서 알쓸이를 잘하지 않기때문에 잘 살펴보면서 종이로 밝기를 조절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물고기의 갓난 알과 갓난 새끼는 빛을 싫어하기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 가 지

동물들의 자기보호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

몸색갈의 변화, 형태의 변화, 냄새 …

위험이 닥쳐오면 주머니에 물 혹은 공기를 넣어 배를 크게 만들어 마치 뽈처럼 보이게 하여 자기를 보호하는 보가지도 있다. 즉 적수들에게 먹을것이 아닌것처럼 보여 쫓아버리는것이다.

풀색보가지

보가지는 바다물고기로서 큰 강물을 따라 올라와 덜 짠 물에서 사는데 그 모양이 아름다와 관상용으로 기른다.

이 물고기는 몸에 비늘이 없으며 알과 간장에는 독이 있다. 때문에 이 고기는 알과 간장을 뽑아버리고 깨끗이 씻어 먹어야 한다.

보가지는 이발이 쎄서 쇠줄도 자를 정도이다.

보가지는 자연에서 늦봄부터 초여름사이에 큰 강에 올라와 모래와 자갈이 섞인 곳에 근 1만개의 알을 단번에 쓸어놓는다.

신 선 어

신선어는 1928년부터 관상용으로 기르기 시작한 아름다운 고기이다.

신선어의 몸생김은 다른 종류의 물고기와는 전혀 다르다. 몸뚱이는 둥글고 납작하며 등지느러미와 엉뎅이지느러미는 특이하게 길게 뻗어있으며 배지느러미는 수염모양으로 뒤로 길게 뻗어

신 선 어

있다. 가슴지느러미는 맑은 색이여서 그의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으나 몸뚱이만 유유히 다니는 그 모습이 마치도 전설에 있는 하늘의 신선이 내려오는것 같다고 하여 신선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한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는 굉장히 길게 늘어져서 그 모습이 마치도 전설에 나오는 금강선녀의 옷자락 같이 아름답다.

신선어는 오래동안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기르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개량되였다.

긴꼬리신선어는 모든 지느러미들이 지나치게 길어졌기때문에 굼떠서 먹이도 빨리 따라가 덮치지 못하여 다른 물고기들에게 뗴우고 마는수가 많다. 때문에 굶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기를 때 주의를 돌려야 한다.

검은신선어는 온몸과 지느러미들이 검은색으로 치레된것이 특징이다.

검은치마신선어는 뒤쪽 검은색부분이 마치도 검은색치마를 입은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고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노란신선어는 얼룩신선어가 갑작변이하여 생겨난것이다. 새끼고기때에는 흰색에 가까운 노란색 즉 미색이던것이 차차 커감에 따라 노란색이 세져 진한 노란색으로 된다.

신선어의 수컷은 번식기가 되면 더욱 사나와져서 싸우는 성질이 세진다. 다른 물고기들이 달려들면 맞받아 내쫓아 먼 곳까지 밀어내고 암컷을 지킨다. 때문에 번식기가 되면 조용하던 어항안이 쌀쌀한 싸움터로 변한다.

자세히 보면 두마리가 한패가 되여 어느 한 구석을 차지하고 다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지키면서 먼 곳까지 쫓아버리고 돌아오는데 이때 물고기막기는 두마리가 다 하지만 쫓는것은 수컷이고 암컷은 계속 자리를 지킨다. 결국 신선어는 다른것들과의 싸움으로 자기 짝을 지켜내고 쌍을 이룬다.

만약 어항에서 이러한 쌍을 보면 인차 이것들만 남기고 다른것들은 다른 물고기어항에 옮겨주어야 한다.

신선어들은 주로 아침과 저녁무렵에 알쓸이를 시작하는데 암컷이 대가리를 우로 향하고 알쓸이판에 알관을 대고 우로 서서히 올라가면서 알을 한줄로 쓸어붙이고 옆으로 물러서면 기다리고있던 수컷이 암컷과 같은 동작으로 정액을 뿌려 수정시킨다.

최고 1 000개의 알을 쓴다.

살아있는 3억년전의 물고기

시라칸스는 고생대(약 3억년전)에 생겨나 점차 번성하여 세계 각지에 퍼졌다가 1억년전부터 줄어들어 수천만년전에 사멸됐다고 하던 고기이다. 일명 라티메리아라고도 부른다.

몸길이는 1.5m, 몸질량은 35~60㎏정도이다.

매 지느러미는 부채모양이고 몸색은 푸르며 금속광택을 띤다.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의 형태에는 원시적인 점이 많다.

그런데 이 물고기의 한종이 1938년 아프리카의 동쪽연안에서 잡히여 《산 화석》으로 세계적인 화제거리로 되였다.

그후 1952년에 아프리카의 동쪽연안과 마다가스까르섬사이에 있는 꼬모로제도부근에서 2마리가 잡히였으며 이 부근 바다의 수백 m깊이에서 또다시 10여마리가 잡히여 오늘날 살고있는 물고기가운데서 가장 희귀한 종류로 학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 물고기는 륙지에 사는 하등한 척추동물의 선조에 가까운것이라고 보고있다.

알쓸이가 끝난 다음에도 엄지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알이 까나올 때까지 알에 신선한 물이 흐르도록 가슴지느러미로 열심히 부채질을 해준다. 알에 어지러운것이 있으면 입으로 닦아주기도 하고 떨어지는 알이 있으면 입으로 물어다 도로 붙여주기도 하며 죽은 알이 있으면 입으로 떼여버린다.

신선어는 알에서 새끼가 까나올 때까지 물관리, 온도관리,《병치료》를 엄지자체가 하는 특이한 본능을 가진 관상용물고기이다.

엄지들은 주위환경이 복잡하거나 어떤 부딪침에 의해 놀라게 되면 새끼들을 잡아 먹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별한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어느 한쪽이 버릇이 나빠서 새끼건사를 잘못 하거나 새끼를 독차지하려고 하면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싸움질을 하면서 새끼들을 다 먹어버린다.

이밖에도 선물관에는 빛이 없는 메히꼬의 동굴에서 발견된, 날 때부터 눈이 없고 후각으로 먹이를 찾는 소경고기와 보통 물고기처럼 다니다가도 다 자라면 거꾸로 누워다니는 누운헤염고기, 번식기가 되면 몸색갈을 아름다운 색갈로 변화시키는 무지개고기, 입에다 알을 넣어 깨우는 입부화고기를 비롯하여 참으로 희귀한 물고기들이 많다.

고 슴 도 치

김정일령도자께 스웨리예 스칸센동물관 관장 요나스가 특별히 마련하여 올린 선물동물가운데는 고슴도치와 무미고슴도치도 있다.

고슴도치라면 누구든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천연요새》로 생각한다. 그것은 고슴도치의 몸을 덮고있는것이 유연한 털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이기때문이다.

사나운 개도 입술과 혀바닥이 온통 피투성이로 되면서까지 달려들어보다가 끝내는 물러서고야 만다.

고슴도치는 데굴데굴 굴러가며 가시털에 마른 나무잎과 풀들

을 많이 달라붙게 하므로 수풀속에서는 도저히 찾을수 없다.
고슴도치는 두번째 방어수단으로서 참기 어려우리만큼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
고슴도치는 살모사도 잡아 먹는다.
고슴도치는 독나비와 걸음벌레와 같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있거나 참기 어려울만큼 역한 냄새를 풍기는 벌레들도 잡아 먹는다.
식충류에는 무미고슴도치도 있다.
무미고슴도치는 마다가스까르의 사막지대의 떨기나무가 무성하고 이끼가 많은 곳에서 즐겨산다.
몸길이는 40 ㎝ 안팎이다.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는 몸에서 내보내는 강한 냄새이다.
암컷과 수컷의 중요한 련계수단도 냄새이다.
암컷은 하루밤사이에 200 ㎡나 되는 넓이에 냄새나는 분비물을 바르고 돌아다니며 그 냄새에 의하여 수컷은 암컷을 쉽게 찾는다.
어미는 한번에 15~25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젖꼭지는 29 개로서 포유류가운데서 제일 많다.
어미는 새끼에 대한 보호본능이 강하며 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끼를 다 낳으면 마른풀을 물고다니며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물어다가 깔개짚밑에 넣고 누가 다칠세라 그우에 누워서 휴식하거나 잠을 잔다.
불안하면 새끼들을 은폐된 곳에 물어다놓고 깔개짚을 덮고 그우에 누워있는다.

한마음으로 마련한 선물동물

김정일령도자께 스웨리예 스코네동물원 원장인 스타판 오께뷔와 스웨리예 애르브동물원 원장 울레 라쏜이 시라소니 한쌍을 선물로 올리였다.

동물세계에서는 《근친결혼》이 보통현상이다.

하지만 이 시라소니《부부》는 한 나라의 북쪽과 남쪽에서 온 동물들이 서로 만나 쌍을 이룬것이다.

스코네동물원 원장과 애르브동물원 원장은 **김정일**령도자께 하나의 동물관을 통채로 선물드려 세계 동물학자들속에서 그 명성이 높아진 스웨리예 스칸센수족관 관장 요나스 왈스트룀을 통하여 령도자의 인민적풍모와 사랑의 정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더우기 그들은 1999년 가을 중앙동물원대표단이 저들의 동물원을 방문한 기회에 **김정일**령도자에 대하여 더 깊이, 더 잘 알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그들은 힘을 합쳐 선물을 마련할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게 되였다.

스웨리예는 북유럽에 위치한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동부에 자리잡고있는 나라이다.

면적의 15%가 북극권안에 있어 년중 절반은 북극의 밤으로 되며 다른 나라들보다 춥다.

이 나라의 제일 북쪽끝지방에서는 12월초부터 이듬해 1월 10일경까지 태양이 수평선우에 나타나지 않으며 반대로 5월말부터 53일간은 백야가 계속 된다.

스코네동물원은 스웨리예의 북쪽지방에, 애르브동물원은 남쪽지방에 자리잡고있다.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있어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마련하는

시라소니

선물에 **김정일**령도자를 흠모하는 자기들의 마음이 비끼게 하겠는가를 여러차례 토론한 끝에 좋은 생각에 도달하였다.

그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선물 올린적이 없는 시라소니를 선정하되 근친번식을 막고 좋은 후대를 얻어 자기들의 지성이 영원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쪽과 북쪽의 두 극단에서 사는 암컷과 수컷을 《결혼》시켜 조선에 보내자는것이였다.

그들은 약속대로 성의를 다해 마련한 암컷과 수컷을 2001년 12월 29일 해당 일군들을 통하여 **김정일**령도자께 올리였다.

시라소니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맹수의 한 종류이다.

세계적으로 시라소니의 종류는 3종이다.

스웨리예에서 온 시라소니는 조선을 비롯한 북아시아와 유럽지역에 분포되여있는 종이다.

시라소니의 몸길이는 대체로 80~100㎝, 몸질량은 30㎏미만이다.

털은 황갈색 혹은 연갈색의 바탕에 진한 흑갈색점들이 드문드문 박혀있는데 폭신하고 부드럽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하루밤에 100여리를 돌아다니면서 다람쥐, 토끼, 사슴, 노루 등을 잡아 먹는다.

시라소니는 깊은 눈속에서도 잘 뛰며 나무에도 잘 오르고 헤염도 잘 친다.

성질이 거칠고 싸움도 잘하지만 적이 접근하면 우거진 나무가지속이나 바위굴에 들어가 몸을 숨기며 나무숲으로부터 멀리 가

지 않는다.
시라소니의 수명은 10~15년이다.

검은귀시라소니

김일성주석께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검은귀시라소니를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검은귀시라소니는 시라소니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귀끝에 검은 털묶음이 있어 그렇게 부른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낮에는 숲속에 숨어있다.

동작이 대단히 빨라 새무리를 습격하여 한번에 몇마리씩 잡는다.

땅에서 2m높이로 뛰여올라 나는 새들도 잡는다. 초원에서 작은 들양, 토끼, 새 등을 잡아 먹으며 때로는 집에서 기르는 양을 잡아 먹기도 하고 그밖에 망구스도 잡아 먹는다.

개에게 쫓기우면 나무우에 기여오르지만 때로는 맞받아대드는 경우도 있다.

이란과 인디아에서는 검은귀시라소니를 길들여 비둘기 등의 조류사냥에 리용한다고 한다.

눈 개 곰

김정일령도자께 스웨리예에서 보내온 선물동물가운데는 눈개곰도 있다.

스웨리예 흐르비크유원지경영회사에서 1987년 2월 14일 그이께 눈개곰을 선물로 올린것이다.

김정일령도자께 실무늬꿩을 올린 이들은 자연보호와 동식물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그이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진귀한 눈개곰 한쌍을 특별히 마련하여 선물로 올리였다.

눈개곰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사는 몸질량이 7~8㎏, 몸길이 42~60㎝의 작은 동물이다.

눈개곰의 발가락은 길고 발톱은 움츠러들지 않는다.

동작은 느리지만 나무에 오르는 솜씨와 헤염솜씨가 대단하다.

《대식가》이기때문에 자기 주위의 무엇이든지 다 먹어버린다.

작은 동물로부터 시작하여 새알, 곤충, 남새, 물고기 등 눈앞에 보이는 모든것은 다 눈개곰의 먹이로 된다.

강이나 개울가에서 먹이사냥을 할 때에는 앞다리를 물속에 잠그고 감탕을 뒤집어쓰면서 먹이를 잘 잡는다.

알에 솜씨있게 구멍을 내고 속을 파먹으며 물고기, 게 등 연체동물도 즐겨 먹는다. 동물질먹이외에 강냉이를 특별히 좋아하며 강냉이밭을 황폐화시키기도 한다.

눈 개 곰

눈개곰은 침선이 없기때문에 먹이를 물에 잠그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물과 함께 먹는다.

동물원에서 사는 눈개곰은 배합빵도 물에 잠그었다가 먹군 한다.

호기심이 무척 강한 동물로서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도 위험한 장소에 뛰여드는 경우가 있다.

눈개곰은 먹이를 찾으면 그 모양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흥미있는 동물이다. 즉 털을 팽팽하게 눕히고 큰 귀를 곧추 세우고 뒤발로 서서 달려가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날랜 동작으로 나무에 오른다.

《부부정》이 좋아 《가족》이 한 굴속에서 함께 거짓겨울잠을 4~5월까지 계속 잔다.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지 않기때문에 도시나 섬에서도 산다. 애완용으로 기르기도 한다.

눈개곰은 애무를 즐기며 장난이 심하고 강아지울음소리와 같은 소리로 즐거움을 표시한다.

눈개곰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흥미를 가지는 원숭이와 비슷하다.

조선에서 《후대》를 본 침판지

김정일령도자께 1986년 스웨리예 콜모덴유원지경영회사 동물원 원장이 침판지(수컷)를 선물로 올리였다. 여기에도 깊은 사연이 있다.

1986년 선물동물을 접수하기 위해 스웨리예에 갔던 중앙동물원 일군들은 그곳에서 스웨리예 콜모덴유원지경영회사에서 침판지번식을 잘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동물원일군들의 머리속에는 중앙동물원의 침판지들이 떠올랐다.

김일성주석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안고 이전 르완다대통령과

자이르대통령이 삼가 올린 침판지들이였다.

후대를 남기는것은 동물들의 본능이지만 왜서인지 침판지는 일반동물원에서 오래동안 번식을 잘하지 못하고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해보고 번식시켜보라는 **김정일**령도자의 여러차례의 말씀이 있었다.

중앙동물원 일군들은 침판지번식경험을 알아보려고 스웨리예의 콜모덴유원지경영회사를 찾았다.

이 회사는 곱등어놀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희귀한 짐승들을 기르는 자그마한 동물원을 운영하고있었다.

중앙동물원 일군들로부터 찾아온 사연을 들은 동물원원장은 매우 반가와하였다.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들을 때마다 조선으로 달리는 마음을 진정할길 없었던 그는 **김정일**령도자께 자기들의 지성을 바칠수 있는 행운이 차례진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번식용으로 기르던 두마리의 침판지가운데서 수컷 한마리를 그이께 선물로 드리였다.

그들은 중앙동물원 일군들에게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발전하는 아름다운 조선을 날씨가 좋은 계절에 방문하고싶은 자기들의 소원이 현실로 되는 그날이 오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동물 한쌍을 마련하여 그이께 또다시 선물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다.

침 판 지

침판지는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눈다.

적도기네에 흰머리침판지집단이 살고있다는것이 알려져있으며 1972년에는 금발머리의 침판

지가 소개되였다.

침판지에서 혈액형이 O형과 A형인 집단이 발견되였다고 한다. 난쟁이침판지의 적혈구의 면역학적특성은 모든 원숭이류가운데서 사람에 가장 가깝다.

침판지는 여러마리로부터 수십마리정도가 무리를 짓고 사는데 무리는 1~2마리의 다 자란 우두머리수컷과 여러마리의 암컷 그리고 새끼들로 이루어진다.

침판지는 오랑우탄과 달리 활동력이 매우 강하다.

침판지는 몸웃부분이 더 발달되여 뜀뛰기능력은 약하며 깊은 물에 들어서기를 꺼려한다. 때문에 동물원의 침판지동산주위에는 깊은 물홈을 만들어놓았다.

물을 건느는것을 싫어하지만 사다리나 긴 장대가 있으면 그것을 타고 밖으로 도주하는 일도 있다.

침판지는 청각, 시각이 발달되였고 색도 가려본다.

성질은 쾌활하고 떠들어대거나 울부짖는 때도 있다.

지능정도가 상당히 높고 《도구》를 쓰는 방법도 잘 깨달으며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 쓸줄도 안다.

침판지는 흰개미를 잡아 먹을 때 먼저 휘청거리는 적당한 나무가지를 골라 손에 쥐고 흰개미둥지구멍에 명중하여 넣는다. 흰개미가 나무가지에 달라붙으면 그것을 꺼내여 입에 가져다대고 핥아 먹는다. 결국 침판지의 먹이생활에 나무가지라는 《도구》가 리용된것이다.

침판지는 굳은 나무열매를 뼈쪼각이나 나무막대기로 깨먹기도 한다.

침판지는 약 40년 산다.

침판지는 번식이 힘들어 새끼를 낳는 비률보다 죽는 비률이 더 높다고 한다. 때문에 침판지는 국제보호동물로 등록되여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들과 인민들이 올린 침판지들을 넣을 침판지사를 높은 수준에서 새로 짓도록 하시고 여러차례 이곳을 찾으시여 먹이문제, 온도보장문

제를 비롯한 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구경온 사람들이 류인원에게 이것저것 망탕 먹이면 속탈이 생길수 있으니 먹이표를 짜놓고 그대로 먹일데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였다.

또한 류인원이 있는 방의 온도가 16~18℃이면 춥지 않은가고 하시며 전기방열기도 보내주시였다.

침판지는 조선의 기후풍토와 먹이에 순응되여 3마리의 새끼까지 낳게 되였다.

침판지의 《아침》

어느날 침판지를 구경온 아이들은 옹근 과자를 침판지들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어린 침판지가 제꺽 그것을 주어 관리공에게 바쳤다. 기특한 행동에 관리공은 침판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입을 맞추어주고는 과자를 절반 끊어 《동생》과 나눠주었다.

이것을 한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던 다른 침판지는 누군가가 또다시 던진 옹근 과자를 풀숲에서 찾아내여 관리공총각에게 고스란히 갖다바치는것이였다.

성성이가 글을 쓰다

어느 한 연구소에 있는 카온츠라고 부르는 검은성성이는 26개의 영어 자모를 알고있을뿐아니라 그 자모로 250개의 단어를 맞추어 쓸줄 안다고 한다.

이 성성이는 항상 가지고다니는 단어표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찾아낸다.

늘 근무성원들과 숨박곡질을 하자고 성화를 먹이기도 하며 때로는 단어표를 가지고 료리를 청하기도 한다.

특별비행기를 타고온 서우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안고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검은서우와 흰서우들을 선물로 보내여왔다.

집바브웨에는 전통적으로 국가수반들에게 만년장수를 축원하여 서우를 선물하는 관례가 있다.

무가베대통령은 **김정일**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 참가하여 처음으로 만나뵙게 되였다.

비범한 통찰력으로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안고있던 무가베대통령은 **김일성**주석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시여 중앙동물원을 희귀한 동물들이 제일 많은 동물원으로 꾸리시려 마음쓰시는 **김정일**령도자께 자기 나라의 희귀한 동물인 서우를 선물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무가베대통령은 짐바브웨의 많은 자연동물원가운데서 제일 크고 여러가지 동물들이 많은 환궤자연동물원에서 선물동물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서우는 세계적으로 사멸되여가는 동물이여서 잡기가 매우 힘들었다. 더우기 조선에 와서도 잘 자랄수 있고 또 많은 새끼를 낳을수 있는 좋은 표준동물들만 골라 잡는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무가베대통령은 안전담당국무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립절행사준비위원회가 책임지고 짧은 기간에 선물을 마련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내각에서는 1주일에 1번씩 서우를 비롯한 선물동물을 마련한 정형을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웠다.

봄철장마로 서우를 잡는 문제가 어렵게 되였을 때였다.

무가베대통령은 즉시 내각비상회의를 열고 직승기를 동원시킬데 대하여 명령했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사자를 비롯한 맹수들과 서우와 같이 크고 힘센 희귀한 동물들이 많은 환궤자연동물원의 상공에는 직승기가 떠오르게 되였다.

직승기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서우를 포착한 포획조원들은 마취약침이 달린 총으로 쏘아잡군 했다.

무가베대통령은 잡은 동물들을 수도로부터 약 500㎞ 떨어진 블라바요에 있는 동물원에서 얼마동안 기르면서 제일 건강하고 기질이 좋은것으로 고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각각 한쌍씩의 검은서우와 흰서우가 선정되였다.

무가베대통령은 서우가 열대동물이기때문에 다루기 힘들다고 하면서 서우전문가와 기술자도 보내주어 사양관리방법과 번식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알려주고 오도록 했다.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서우를 실어오는 일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가까운 어느 한 나라에 가있는 조선의 무역선을 리용하자는

검은서우

흰서우

사람도 있었고 조선으로 가는 외국의 배를 리용하자는 사람도 있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서우를 실어오는 일이 인민을 위한 일인데 이것저것 타산만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비행기로 실어오도록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관심속에 비행기가 날아온 사연을 알게 된 짐바브웨사람들은 진정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런데 서우가 어찌나 큰지 비행기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또다시 이에 대하여 아시게 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형수송기로 실어오게 하자고, 인민들이 희귀한 동물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겁게 휴식하도록 하기 위한 일인데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서우가 대형수송기를 타고 조선으로 날아오게 되였다.

먼 옛날 서우는 아시아나 유럽에 널리 퍼져 살고있었다. 하지만 오늘 서우의 종은 5종으로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만 산다.

검은서우는 1653년에 동부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였는데 몸질량이 1.5~2t으로서 흰서우보다는 좀 작고 몸색갈은 누른 밤색 또는 진한 밤색이다.

검은서우는 깊은 숲이나 열대수림, 초원, 반사막지대에서 산다.

시력이 약하기때문에 20~40m밖의 물체를 잘 가려보지 못한다. 그러나 소리를 잘 들으며 냄새도 잘 맡는다.

1시간에 10㎏의 먹이를 먹는데 먹이의 장통과시간은 38~40시간

이나 된다. 이것은 소화률이 낮다는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서우가 사멸되여가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한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서우를 너무 많이 잡은것이다.
검은서우의 새끼배는 기간은 11~18달사이이다.
중앙동물원에 들어온 검은서우는 464일만에 1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갓난 새끼의 몸질량은 35㎏이였다.
검은서우는 약 40년 산다.
흰서우는 검은서우와 함께 아프리카에서만 살고있다.
흰서우는 몸질량이 1.7~3.6t으로서 5종의 서우가운데서 가장 크며 땅우에서는 코끼리 다음으로 큰 동물이다.
흰서우는 검은서우에 비해 입이 네모나고 커서 입서우라고도 한다.
흰서우의 수명은 약 45년이다.
아프리카의 원산지들에는 약 2 000마리의 흰서우가 살고있다.
흰서우의 코등과 머리앞부분에는 곧추 선 뿔이 각각 1개씩 나있는데 큰것은 80㎝나 된다. 이 뿔은 1.5m나 자랄 때도 있다고 한다.
서우는 이 뿔을 물체에 갈아 뾰족하게 하여 자기 방위에 리용한다.
서우의 이 뿔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마구 잡아 야생하는 마리수가 점차 줄어들고있다.
오늘 서우는 국제적보호동물로서 엄격한 법적보호를 받고있다. 케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원산지들에서는 서우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단속통제가 실시되고있다.

사연깊은 흰범

중앙동물원에는 **김정일**령도자께 중국 흑룡강성 민족경제개발총공사 총경리 최수진동포가 2004년 6월 16일에 선물 올린 흰범 한쌍도 있다.

그는 조선을 자주 방문하는 과정에 흰범을 선물로 올릴 결심을 하였다. 특히 **김정일**령도자의 고향인 백두산에 흰범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였다.

그는 백호에 비유하는 조선에 흰범이 없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흰범이 나올수 있는 모든곳을 찾아다니였다. 그러다가 자연동물원인 동북호림원에서 흰범이 출생했다는것을 확인하고 전문가들과의 협의하에 한쌍의 흰범을 마련하였다.

흰범을 **김정일**령도자께 선물드리려는 총경리의 결심에 온 가족이 호응하여나섰다. 그때 당시 그는 가정과 기업의 자금형편이 매우 곤난하여 싱가포르에 있는 자기 집과 호텔을 팔고 영국에서 류학하던 딸을 중도에서 데려오면서 3년동안 자금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마련한 흰범을 광동성호림원에서 관리하도록 맡기고 자기집에서 2 000여km나 되는 그곳까지 몇번이나 오가면서 흰범관리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고 수송도중에는 사고가 날세라 딸 3명과 부인까지 다 동원하여 꼬박 여러밤을 새우

흰 범

며 륙로로 운반하였다.

그는 지성어린 선물을 해당 일군들에게 전달하면서 조선인민들이 흰범을 보면서 백두산의 모진 설한풍속에서 항일전을 벌리신 **김일성**주석과 그이의 위업을 계승한 **김정일**령도자를 대를 이어 영원히 받들어모시고나갈 의지를 가다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그가 **김정일**령도자께 선물올린 흰범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우선 조선의 백두산에는 꼭 흰범이 있어야 한다는것이고 다음은 **김정일**령도자께서 백두산에서 흰범을 타고 호령하시면 그 기상이 더 한층 높아져 제국주의자들이 벌벌 떨게 될것이라는것이다.

중앙동물원에 들어온 흰범은 지금까지 여러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범과 조선민족

범화석은 북극지방에서 많이 발견되였다. 때문에 호랑이의 고향이 북극인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1960년대에 평양부근의 검은모루유적에서 약 100만년전의 범화석이 발견되면서 범이 아주 먼 옛날부터 조선민족과 함께 살아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민족의 력사에서 호랑이가 처음 등장한것은 고조선의 건국신화이다. 여기에는 범과 곰이 태백산 신단수아래의 한 동굴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단군전설에 의하면 고조선의 시조 단군은 오래동안 세상을 다스리다가 산에 들어가 산신이 되였는데 산신그림에는 범이 단군과 함께 있다고 한다.

산신인 호랑이는 조선민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되여왔으며 고려시기부터 이러한 산신신앙이 토템신앙의 변종으로 널리 퍼졌다.

한쌍의 군마

중앙동물원에는 **김정일**령도자께 중국의 한 일군이 보내온 군마 한쌍이 있다.

1998년부터 조선의 과학원(당시)과 아래연구기관들과의 과학기술교류진행과정에 **김정일**령도자의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인품에 감동되여 그이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여온 그는 이미 조선을 방문하여 2001년 3월에 세계에서 제일 큰 개인 스위스의 쎄인트 버나드 최우량순종 3마리를 그이께 선물로 드렸다.

조선방문시 해당 일군들로부터 **김정일**령도자께서 어리실 때부터 말타기를 즐겨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그는 그이의 탄생일을 맞으며 군마 한쌍을 선물로 올리고싶은 의향을 제기하였다.

예로부터 군마는 장군의 날개로써 《장군》과 《군마》라는 두 단어는 불가분리의 단어로 알려져있다. 집짐승가운데서 말은 마지막으로 길들여진 짐승이며 처음부터 전쟁에 리용되여왔다. 전장의 이름난 장군들의 공적은 례외없이 령리하고 억센 말들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었다.

세계의 곳곳에는 주인을 위해 헌신한 이름있는 말들의 조각상이 세워져있으며 력사와 더불어 그 공적은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귀국후 그는 군마를 기르는 단위를 찾아내기 위해 자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10여일간 전화도 하고 출장을 다니던중 베이징에 있는 어느 한 군마연구소에 제일 좋은 군마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2001년 4월중순부터 8월초까지 12차례에 걸쳐 군마연구소에 가서 **김정일**령도자께 군마 한쌍을 선물로 드릴수 있는 방도를 토의하고 해당 당,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그는 군마연구소의 일군들과 선물준비 및 수송문제와 관계되

는 실무적문제를 토의하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조선방문기간 받은 인상에 대하여 감회깊이 이야기하였다. 그는 선군정치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김정일**령도자께 군마를 선물로 올리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긍지높이 선전하였다.

선물을 올리면서 그는 《저의 이 선물은 적은것에 불과하지만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존경심과 흠모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그이를 따르는 길에서 변함이 없을것이라는 뜻이 담겨져있습니다.》라고 뜨겁게 이야기하였다.

중앙동물원에는 **김정일**령도자께 중국홍콩화려국제자원유한공사 리사회성원들인 베이징장성양광호텔 리사장 백아남과 광주요태집단공사 주석 양수평이 2008년 8월 21일 삼가 올린 4필의 말도 있다.

베이징장성양광호텔 리사장 백아남, 베이징예술학원 예술부주임 조성민은 2007년 12월 **김정일**령도자께 고급말안장 2개, 구름을 뚫고나가는 3필의 말을 형상한 동조각품을 선물로 올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008년 4월 조선을 방문한 백아남에게 은차잔세트를 답례선물로 보내주시였다.

그때 그는 감격에 겨워하면서 자기는 **김정일**령도자께서 말타기를 즐겨하신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의 공장에서 생산한 말안장을 쓰시면서 잠시나마 휴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 올린것인데 이렇게 답례선물까지 보내주시니 정말 고맙다고, 앞으로 유럽종의 고급말 4필을 마련하여 그이께 선물로 올리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말을 전문으로 키우는 자기는 말타기운동이 얼마나 좋은가를 잘 알고있다고 하면서 꼭 훌륭한 말을 마련하여 **김정일**령도자께 선물 올릴 결심을 해당 일군들에게 전달하였다.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자기의 말목장에 있는 수백마리의 말들가운데서 가장 좋은 유럽혈통말 4필을 골라냈다.

그는 4월에 평양에 함께 왔던 홍콩화려국제자원유한공사 리사회성원이며 광주요태집단공사 주석인 양수평과 합의하여 선물

을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령도자께 선물 올리는 말을 조선대표단에 넘겨주는 의식을 성대히 진행하여 그이를 열렬히 흠모하는 자기들의 성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이 보내온 말들은《흑룡》,《루이니》,《달》,《태양공주》라는 특이한 이름들을 가지고있다. 그중에서《흑룡》과《태양공주》는 중국을 대표하여 아시아올림픽 장애물극복경기에 참가하여 1등한 유럽혈통 명말의 후대이다.

《명문가》의 후대로 태여나 한살때부터 우아한 체격과 특이한 기질을 가지고있는 《태양공주》는 중국경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인기가 대단한 말이다.

그리고 《루이니》와 《달》은 새끼를 밴채로 조선에 왔다.

멋진 생김새와 깊은 사연이 깃든 이 말들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으로 끊임없이 찾아오고있다.

조선의 중앙동물원에는 **김정일**령도자께서 몸소 보내주신 백마를 비롯하여 여러종의 말들이 많다.

1987년 마가을 어느날 중앙동물원을 찾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백마를 비롯한 좋은 말들을 가져다놓으면 참관자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동물원에 몸집이 크고 아주 건강한 백마와 밤색말 3필을 보내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느날 중앙동물원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일군들로부터 동물원에 온 사람들이 백마를 보고 좋아한다는 대답을 들으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 중앙동물원에 또다시 백마를 보내주시였으며 다른 나라 인민들이 선물로 올린 귀중한 말안장까지 보내주시였다.

오늘 중앙동물원에는 **김정일**령도자께서 보내주신 말들이 보금자리를 펴고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백마의 공적

그리스도교세계의 영웅들중에서 유명한 인물은 수백년간에 걸친 무어족의 강점을 끝장낸 엘 씨드장군이다. 에스빠냐사람들은 그를 자기 나라의 구원자로, 전설의 영웅으로 전해오고있다.

그의 이러한 공적, 이러한 명성은 그가 타고다닌 백마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 말은 그가 말을 육종하던 한 교부에게서 받은것이다.

소년시절 그는 교부가 말을 골라 잡으라고 하자 왜서인지 특별히 못생기고 어린 말을 골라 잡았다. 그러자 성난 교부는 《바비에까!》(멍텅구리)라고 소리쳤다. 엘 씨드는 그 백마의 이름을 바비에까라고 짓고 일생 그 말을 자기 살붙이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었다. 바비에까는 주인을 태우고 수많은 전장을 주름잡아 달리고 또 달리였다.

그러던 1099년의 어느날 엘 씨드는 전장에서 그만 부상을 입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엘 씨드는 마지막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리하여 부하들은 점점 식어가는 그의 몸을 갑옷으로 완전무장시켜 말안장에 고정시키고 생기없는 손에는 검을 쥐여주어 높이 쳐들게 하였다.

백마는 침묵상태에 있는 자기의 주인을 태우고 시내를 빠져 한밤중에 무어족의 숙영지로 달렸다. 주인의 뜻을 아는지 백마는 적진을 향하여 곧추 맹수같이 돌진하였다.

백마우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놀란 무어족들은 엘 씨드가 살았다고 하면서 겁을 먹고 내뛰였고 에스빠냐인들은 그들을 따라가 족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수백년간에 걸친 무어족의 강점을 끝장내는데 이바지한 백마의 공적을 못잊어 엘 씨드가 죽은 후에는 누구도 이 말을 타지 않았다고 한다.

말 승 냥 이

중앙동물원의 말승냥이는 **김정일**령도자께 중국 단동경영무역상사 사장 박성국이 올린 선물이다.

할빈의 농민가정에서 태여나 무순공업대학을 졸업하고 무역을 하기 시작한 그는 회사들과 무역거래를 하면서 조선에 여러차례 찾아왔다.

그 나날에 **김정일**령도자의 위인상을 목격한 그는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안고 국가적인 명절때마다 그이께 축전과 축하편지를 계속 보내여왔다.

1999년 박성국은 중앙동물원을 참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받으신 선물동물들에 대한 해설을 깊은 감동속에 받은 그의 가슴속에서는 자신의 자그마한 지성도 여기에 바치고싶은 뜨거운 마음이 솟구쳐올랐다.

어떤 동물을 선물로 마련할것인가 생각을 거듭하던 그는 중앙동물원에 말승냥이가 없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전 인류의 지성이 모이는 이 집에 말승냥이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그는 그것을 꼭 마련하여 선물로 올리고싶었다.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곧 선물동물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내몽골지방에서 승냥이들이 야밤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 그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여 끝내 7㎏짜리 암승냥이를 구입하였다.

2000년 9월 15일 그는 정성담아 마련한 선물을 안고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는 **김정일**령도자께 올리는 선물을 해당 일군에게 전달하면서 그이께서 중앙동물원에 돌려주신 크나큰 은정은 인민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라고 감동깊이 이야기했다.

그후에도 그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과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맞으며 또다시 승냥이 한쌍을 마련하여 선물로 올리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중국 감숙성에 가서 수차에 걸쳐 사냥군들을 만나보면서 발육상태가 제일 좋은것으로 골라 한쌍을 마련하였다.

말승냥이는 일명 늑대라고도 하는데 몸질량이 25~45㎏되는 큰 승냥이를 말한다.

말승냥이는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의 산악지대, 산림지대, 사막지대, 초원 등에서 산다.

털색은 흰색, 밤색, 재색, 검은색 등으로 각이하다.

열대지방에서 사는 종류는 털이 짧고 해발 4 000m의 높은 지방에서 사는 티베트늑대는 길고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있다. 북아메리카에서 사는 산림늑대나 재색승냥이라고 부르는 종류는 대단히 체통이 크며 큰것은 79㎏에 달하는것도 있다.

말승냥이는 사슴, 토끼, 작은 설치류, 게, 죽은 동물의 고기 등을 먹으며 식물질먹이도 조금씩 먹는다.

직경 30~95㎞나 되는 넓은 원모양의 행동권을 가지며 매우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는데 시속은 45~85㎞ 정도이다.

말승냥이

시각, 청각, 후각이 모두 잘 발달되여 짐승들을 덮치는데 유리하다.

말승냥이는 조심성이 많으면서도 성격이 급하다. 또한 잔인하고 악착스러워 자기들끼리도 물어뜯는 일이 있으며 매우 검질기기도 하다.

말승냥이의 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매우 민활한것이다.

동물원에서 말승냥이는 놀이터와 방사이에서도 걸어다니지 않고 계속 같은 거리를 반복하여 뛰여다닌다.

암컷과 수컷은 한번 쌍을 지으면 일생 사이좋게 산다고 한다.

암컷과 수컷은 새끼를 낳으면 서로 협력하여 기르며 처음에는 소화된 고기를 토하여 새끼에게 먹여준다.

악착한 개승냥이

개승냥이는 중간크기의 말승냥이만 한 크기로서 몸질량은 14~21 ㎏정도이며 큰 개와 비슷하게 생겼다.

개승냥이도 여우와 같이 행동이 민첩하다.

개승냥이는 집단적으로 다른 동물들을 포위공격하므로 크고 작은 동물들이 다 무서워한다.

여우처럼 교활하기도 하여 잡아 먹을 동물을 보면 멀리까지 따라가면서 잡아 먹기 편리한 곳으로 유인한다.

매우 악착스러워 동물원안의 동물방사이와 놀이터사이의 쇠그물이나 철창사이로 발이나 꼬리가 나오면 같은 족속끼리도 물고 놓지 않으며 뜯어 먹는다고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개승냥이마리수는 점점 줄어들어 중요한 보호동물로 취급되고있다.

북극에서 온 여우

-50℃가 되면 자연의 모든것이 얼어붙고만다. 그러나 -80℃에서도 사는 동물이 있다. 그것은 로씨야의 깜챠뜨까, 일본의 혹가이도, 카나다, 알라스카 등 북위 55°부근에서 사는 북극여우이다.

김정일령도자께 체스꼬 쁘라하동물원 원장 보흐미르 꾸랄이 이 희귀한 북극여우를 선물로 올리였다.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그이께 갈기양을 비롯한 3종의 희귀한 동물을 선물로 마련해올린 보흐미르 꾸랄원장은 80돐행사에 참가하여 주석을 뵈옵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그의 소박한 정성을 헤아리시고 은정깊은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선물을 받아안은 그는 흥분으로 잠들지 못하였다.

다음날 그는 중앙동물원을 돌아보는 기회에 **김정일**령도자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린 선물동물들을 보면서 **김일성**주석의 높으신 뜻을 이어나가시는 령도자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였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시고 비범한 령도력으로 인민을 이끄시는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여 **김일성**주석의 기쁨이 마련되고 주체혁명위업이 담보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보흐미르 꾸랄원장의 가슴은 격정으로 높뛰였다.

김정일령도자께 자신도 지성어린 선물을 꼭 올리고싶은 생각이 가슴가득 차올랐다. 그는 조국에 돌아가는 즉시 선물동물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희귀한 동물을 쌍으로 마련하는 일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는 자기 동물원에 없는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멀리 아시아의 남쪽으로, 히말라야산기슭으로 어려운 길을 걸었다.

보흐미르 꾸랄원장은 희귀한 북극여우를 비롯하여 여러마리의 정성어린 동물들을 마련하였다.

1993년 9월 2일 그는 **김정일**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삼가 선물을 올리였다.

북극여우

온통 얼음강산인 북극지방에서는 사람이 곧추 서서 걷지 못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분다. 년중 9개월이나 눈이 오는 이곳의 온도는 -50℃이다. 바로 이런 강추위속에서 북극여우가 살고있다.

북극여우는 추위속에서 살수 있는 몸구조를 가지고있다.

우선 귀가 매우 작다. 그것은 열을 소모할수 있는 부분 즉 몸에서 삐여져나온 부분을 작게 하기 위해서이다.

발바닥에는 겨울에만 털이 나있다.

털색은 겨울에 흰색이고 여름이나 가을에는 재색으로 되는데 흰털은 길고 관처럼 안이 텅 비여있어 그안에 차있는 공기가 보온제역할을 한다.

북극여우는 한달동안 먹지 않고도 살수 있다.

북극여우는 구릉지대의 가운데에 구멍을 파고 둥지를 만들고 산다. 땅굴은 오랜 기간 리용되며 해마다 새로 늘인다.

굴에는 20~30㎝직경의 입구가 많으며 굴안의 넓이는 1㎡, 높이는 30㎝정도이다. 흥미있는것은 이 굴을 대대로 살면서 살기 편리하게 보수하는것이다.

북극여우는 여름에는 과일, 물열매류, 바다풀 등을 먹으며 죽은 넝에의 고기도 먹는다. 눈이 덮여있을 때에는 큰 동물 즉 북극곰, 승냥이 등이 먹다가 남긴것을 얻기 위하여 먼 곳으로 떠

난다. 북극곰이 먹다 남긴 뼈다귀도 필사적으로 핥아먹으며 그것마저 눈속에 감춰두었다가 후에 또 핥는다. 먹을것이 정 없으면 동물들의 배설물도 골라서 먹는다.

북극여우의 새끼밴 징조는 수컷이 암컷에게 먹이를 양보하는데서 나타난다. 쌍을 이룬 후 암컷은 식욕이 왕성해져서 수컷이 먹이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끼는 여러마리 낳는데 주로 어미가 담당하여 젖을 먹이고 둥지를 이동하며 수컷은 그들을 보호해준다. 새끼들은 나서 2달동안에 먹이사냥법을 체득하지 못하면 엄혹한 겨울에 죽고만다.

수명은 기르는 조건에서 약 14년이라고 한다.

또한 1989년 설명절을 맞으시는 **김정일**령도자께 노르웨이공산당 트롬스주위원회 위원장이 삼가 올린 북극여우도 있다.

김정일령도자께 2007년 9월 30일 중국 단동조신수산유한공사 총경리 정성수도 북극여우 한쌍을 선물 올리였다.

그는 2007년 8월 조선을 방문하여 만경대와 주체사상탑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여러곳을 참관하고 TV를 통하여 **김정일**령도자께서 낮과 밤이 따로없이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지시찰하시는 모습을 뵈옵고 조선의 선군정치의 위력과 조선인민들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잘 알았다고 하면서 희귀한 한쌍의 북극여우를 선물로 올리겠다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그는 북극여우를 찾기 위해 한달동안이나 중국의 여러 지방들과 전화도 하고 출장을 다니며 고심끝에 북극여우 한쌍을 찾아내게 되였다.

이렇게 마련한 북극여우 한쌍을 조선로동당창건 62돐을 맞으며 **김정일**령도자께 선물로 올리였다. 그러면서 그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이 세상에 없는 정치입니다. 장군님만 계시면 조선은 꼭 이기며 조선의 통일은 멀지 않았습니다. 통일만 되면 조선은 더욱 강해질것입니다.》라고 절절히 이야기하였다.

《초원의 청소부》—얼룩히에나

김정일령도자께 1986년 4월 전 민주도이췰란드 베를린동물원 원장이 얼룩히에나를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베를린동물원 일군들은 조선과 친선적인 동물교류를 진행해나갈것을 념원하고있었다.

그들은 **김정일**령도자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리는 선물동물들을 보면서 세기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숭배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중앙동물원 일군들이 선물동물을 수송하는 길에 베를린동물원에 들린적이 있었다.

이때 베를린동물원 일군들은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필요한 온갖 방조를 다해주었다.

그들은 이 기회에 **김정일**령도자께 선물을 올리고싶은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하게 되였다.

베를린동물원 일군들은 중앙동물원 일군들을 통하여 **김정일**령도자께 자기 동물원에서 기르던 새끼밴 얼룩히에나 암컷 한마리와 수컷 한마리를 선물로 올리였던것이다.

얼룩히에나

얼룩히에나는 사하라사막지대에서 산다.

일반적으로 히에나는 개와 비슷하며 몸길이는 1m정도, 몸질량은 27~54㎏이지만 얼룩히에나는 몸길이가 130~160㎝정도,

몸질량은 59~87 ㎏이다.

얼룩히에나는 턱과 이발이 아주 든든하여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먹다 남긴 뼈도 와작와작 깨물어 먹는다.

죽은 동물, 썩은 고기, 다른 동물들이 먹다 버린 찌꺼기들을 먹으므로 《초원의 청소부》라고 부른다.

얼룩히에나는《초원의청소부》가 될만 한 생리적기능을 가지고 있다.

앞이와 송곳이는 연한 고기덩어리를 물어끊고 앞어금이는 뼈들을 부스러뜨리는 역할을 하며 어금이는 곧바로 선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있어 가죽이나 힘줄을 쉽게 끊는다.

위안에 들어간 거친 뼈는 완전히 소화된다.

얼룩히에나가 먹이를 실컷 먹고 45 시간이상 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룩히에나는 무리로 있을 때 양, 염소, 송아지를 잡아 먹으며 힘이 세여 하늘소들도 끌어간다.

먹이감을 잡을 때에는 30~80 마리의 대집단으로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있으면서 사냥한다.

자기 무리의 구역안에는 홍문의 분비물을 발라 경계면을 만들어 놓거나 배설물을 경계면에 싸놓고 그것을 표식물로 하기도 한다.

만약 다른 집단의 얼룩히에나가 먹이사냥을 하다가 경계선을 넘어오면 그것들을 물리치고 먹이들을 자기가 차지한다.

얼룩히에나는 사자와 먹이경쟁을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얼룩히에나가 잡은 먹이를 사자들이 빼앗아 먹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얼룩히에나가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사자의 먹이를 빼앗는 경우도 있다. 사자와 얼룩히에나가 싸우다가 얼룩히에나가 죽으면 사자는 얼룩히에나의 고기를 잘 먹지 않지만 얼룩히에나는 죽은 사자고기를 다 먹어버린다.

기르는 조건에서 얼룩히에나는 비교적 순한편이며 겁이 많다.

수명은 대체로 12 년이다.

가장 오랜 동물원에서 올린 오색방울새

2000년 7월 25일 오스트리아의 쉔부른동물원 부원장 다그마르 슈라테르와 원장보좌관 페터린 하르트가 조선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이미 조선의 중앙동물원에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께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이 흠모의 마음담아 올린 선물동물들이 많다는것을 잘 알고있었으며 바로 자기들도 조선의 중앙동물원에 오스트리아동물관을 만들어 **김정일**령도자께 선물 올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고싶어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하였던것이다.

이들은 이 기회에 **김정일**령도자께 오색방울새 4마리를 편지와 함께 올리였다.

오스트리아의 쉔부른동물원 일군들은 뜨거운 마음을 안고 중앙동물원을 돌아보면서《우리 동물원은 세계 최초의 동물원이라는 긍지가 있다. 그러나 세계의 진정한 마음들이 모인 조선의 중앙동물원이야말로 세계의 모든 동물원들가운데서 가장 긍지높고 자랑할만 한 동물원이다.》라고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 세상에 동물원이 생겨난지도 250여년이 된다.

지구우에 처음으로 생긴 동물원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윈에 있는 쉔부른동물원이다.

오스트리아황제 프란츠 1세는 황후와 16명의 아이들을 위해 동물원을 세웠다.

세상에 처음 생긴 이 동물원은 왕실사람들을 위한것이였다.

원래 이 쉔부르노지대에는 1570년에 야생동물원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동물들이 사는 곳이 사람들에 의하여 심히 황폐화되고 동물들이 많이 사냥당했으며 지대도 너무 작았다.

그리하여 1752년부터 동물원 건설을 시작하여 거의 7년이 지난 1759년에 완공하였다.

오색방울새

이 동물원의 중심은 동물원 한가운데 서있는 경쾌한 인상을 주는 정각이였고 그 둘레에 동물사들이 있었다. 이 정각에서 황제부부가 식사를 하군 하였다고 한다.

정각은 30종류의 동물을 상징한 유화 등으로 장식되여있었는데 바로 이 30종류의 동물은 1752년부터 1759년사이에 이 동물원에서 살던 동물들이다.

1755년부터 동물원에서는 4년동안 서부인디아에 대한 견학을 진행하여 흥미있는 조류들을 많이 잡아왔고 많은 식물도 채집해왔다.

황제는 죽을 때까지 이 동물원에 애착을 가지고있었다 .

다음 황제인 요세프 2세는 아프리카에 대한 견학을 조직하고 이것을 통하여 동물원의 동물종류를 많이 늘이도록 하였다. 이때에는 동물원에 대한 구경이 무료로 진행되였다고 한다.

1828년에 처음으로 이 동물원에 기린을 가져왔다. 이것은 사변으로 되였으며 사회생활의 이모저모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의상, 장식 등 많은 생활필수품들은 《기린》이라는 표식을 달고 널리 판매되였다. 지어 연극무대에도 기린이 등장하였다고 한다.

이 동물원에는 1914년에 약 712종에 3 500마리의 동물이 있었다. 제1차세계대전시기 관리상 난관이 조성되여 약 900마리로 줄어들었고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동물원이 폭격을 맞아 400마리로 줄어들었다.

전제제도가 무너진 다음에는 오스트리아공화국이 이 동물원을

넘겨받았다.

이 동물원의 이름은 옛날 말투를 그대로 살려《메나게리 쉔부른》으로 부르고있다.

이 동물원이 생긴 후 100년이 지나서야 세계에서 두번째 동물원인 벨지끄의 안트워프동물원이 생겼다고 한다.

1992년 쉔부른동물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최초의 동물원으로서 창립 240돐을 크게 기념하였다.

오색방울새는 방울새과에 속하는 새로서 유럽과 아시아서부, 아프리카북부, 북아메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산다.

머리와 목덜미는 검은색이고 가슴은 밤색, 날개는 검은색, 꼬리는 흰점이 있는 검은색 등 여러가지 색갈이 난다고 하여 오색방울새라고 한다.

몸전체의 길이는 13㎝이며 고원과 수림, 깊은 산림의 기슭에서 작은 무리 또는 쌍으로 산다. 풀대의 이삭끝에 앉아 풀씨를 쪼아 먹으며 꽃봉오리나 새싹, 작은 벌레도 먹는다.

밤나무 또는 도토리나무, 과일나무, 단풍나무에 둥지를 틀기 좋아한다.

오색방울새의 생활에서 재미있는것은 암컷이 둥지를 틀 때 수컷은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것이다.

북방에서 번식한것은 남쪽으로 이동하여 겨울나이를 한다.

오색방울새는 화려한 색갈과 아름다운 울음소리로 하여 많은 조류애호가들속에서 그리고 동물원에서 오래전부터 길러오고 있다.

해외동포의 지성이 담긴 가나리아

김일성주석께 총련 교또본부 부위원장 김종술이 1991년 10월 28일 가나리아를 비롯한 11종의 아름다운 관상용새들을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일본땅에 살고있는 그에게 있어서 **김일성**주석은 마음의 기둥이였고 위대한 스승이였다. 더우기 그는 조국에 있는 자기의 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김일성**주석의 품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친부모도 다 주지 못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는 **김일성**주석의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소박한 마음을 담아 **김일성**주석께 삼가 선물을 올릴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오랜 생각끝에 특별히 관상용새들을 선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자연을 사랑하시는 **김일성**주석께서 사업의 여가시간에 새들의 지저귐소리를 들으시며 피곤을 조금이라도 푸시기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었다.

김종술부위원장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선물동물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교또동물원을 비롯한 일본의 여러 동물원에서 귀엽고 아름다운 관상용새들을 구입하였다.

그는 뜨거운 마음안고 마련한 선물을 가지고 **김일성**주석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왔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김종술부위원장을 친히 만나주시고 새들이

참 곱다고 매우 만족해하시며 그의 뜨거운 지성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가나리아의 다른 이름은 금방울새이다.

금방울새는 울음소리가 은방울소리같이 아름답고 몸색갈은 황금과 같이 빛난다고 하여 사람들이 무척 사랑하는 새이다.

가나리아

이 새는 꽃참새과에 속하는 새이다.

서아프리카의 까나리아제도에 분포되여있다 하여 가나리아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이 새를 각이한 방향에서 변형시켜 여러가지 품종을 얻어내고있다.

기르는 사람들의 취미에 따라 울음을 곱게 울게 하거나 색을 다양하게 하거나 또는 몸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등으로 품종을 변화시키고있다.

소리를 잘내게 개량된 가나리아종류에는 노래를 부르는것, 높은 울음소리를 내는것, 낮은 울음소리를 내는것, 피아노소리를 내는것 등이 있다.

알에서 까나오기전부터 록음기에 제일 잘 우는 가나리아의 소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반복하여 들려주면 그런 방향에서 소리를 낼수 있다고 한다.

색갈방향으로 개량된 가나리아종류는 무려 30여가지나 된다. 이러한 새들에게는 색갈이 퇴화되지 않도록 색소먹이를 먹인다. 즉 붉은 가나리아에게는 홍당무우와 같이 붉은 색소가 있는 먹이를 만들어 먹인다.

노래를 부를수 있게 개량된 가나리아들이 실지 합창을 한 신

비한 이야기도 있다.

쏘프라노에서 바스까지 갖가지 소리를 낼수 있는《가나리아 합창단》이 로씨야민요와 베토벤의 《월광쏘나타》를 포함한 수십곡의 노래를 우크라이나지방에서 대성황리에 불렀다고 한다.

가나리아들은 조류학자들의《훈련지도》밑에 완전한 화음을 이룰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1980년에는 전문성악가들과 함께 수백만관람자들앞에서 음악공연을 하였다.

가나리아는 기르는 조건에서 최고 24년까지 산다.

김정일령도자께 1983년 11월 단마르크 율렌 울프보콤뮨 트빈려행인민학교 교장 미케일 놀링이 조선을 방문하면서 가나리아 한쌍을 선물로 올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가 서부율렌주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를 뭇고 책임자로 사업하면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널리 해설선전하며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일본에서 온 동물들

조선과 일본사이에는 국교가 없다. 조선동해를 사이에 둔 두 나라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로 되여 아직까지 국교가 없는것은 일본정부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기인된다.

이러한 일본에서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위인상에 감복된 정계, 사회계인사들이 여러가지 동물들을 선물로 보내왔다.

선녀옷두루미

김일성주석의 탄생 75돐에 즈음하여 일본 교또동물원 원장 다까마쯔 도시히데가 그이께 1987년 5월 17일 선녀옷두루미를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조선의 중앙동물원과 일본의 교또동물원사이의 교류는 1986년 6월부터 시작되였다.

두 동물원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져 교또동물원 원장은 조선의 동물교류대표단과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가지였다. 이 과정에 그는 평양에 대하여, 행복한 조선인민에 대하여 알게 되였으며 **김일성**주석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되게 되였다.

선녀옷두루미

그는 조선을 다녀온 교또대표단 성원들로부터 중앙동물원의 선물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 진정할수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김일성**주석께 삼가 올린 선물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 동물원에서 애지중지 기르던 특별히 희귀하고 아름다운 선녀옷두루미와 파타고니아메토끼를 선물로 선정하였다.

볼수록 그 모양이 아름다우며 재롱스러운 동물들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나의 소박한 지성이 인류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대한분께 조금이라도 기쁨이 된다면…)

그는 자기가 직접 그 동물들을 길들였다.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계기로 자신이 직접 동물들을 그이께 선물드리기로 결심한 그는 배편으로 조선방문의 길에 올랐다.

그해 5월 21일 중앙동물원에서는 **김일성**주석께 교또동물원 원장 다까마쯔 도시히데가 드리는 선물을 증정하는 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선녀옷두루미는 무대우에 선 무용배우마냥 하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자기딴의 박자에 맞춰 《독춤》을 춘다. 관람자가 있건없건 계속되는 이 새의《독춤》은 언제나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

두루미들은 누기많은 초원이나 넓은 평원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아름다운 새이다.

아침에 깨여나면 무리지어 하늘을 훨훨 날아 먹이를 구하려 떠났다가 저녁이 되면 제 잠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보호동물인 두루미는 그 종류도 여러가지이다. 사람들이 흔히 백학이라 부르는 흰두루미도 있다.

푸른두루미를 아름다운 날개옷을 입은것 같다고 하여 선녀옷두루미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녀옷두루미는 아프리카의 잠베지강이남지역에 분포되여있다.

머리에는 연한 은백색의 매우 부드러운 비로도와 같은 깃이 있으며 목과 등에는 질서있게 누워있는 버들잎모양의 아름다운

깃이 있다.

발아래까지 길게 늘어진 검은 날개깃은 고상하고 우아한감을 주며 마치도 날개옷처럼 보인다.

선녀옷두루미는 물가까이의 풀밭에서 쌍을 짓고 1~2 마리의 새끼를 거느리고 산다.

낟알, 풀씨, 곤충류, 파충류, 물고기 등을 먹고 산다.

두루미의 수명은 대체로 50~60 년이다.

캉 가 루

1990 년 7 월 24 일 **김정일**령도자께 일본 교또시 시장 다나베 도모유끼가 붉은캉가루 한마리를 선물로 올리였다.

친선과 우호를 위한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밑에 진행되던 동물교류는 1987 년에 들어서면서 더 활발히 진행되였다.

파도 사나운 바다길을 오가며 조선과 동물교류를 진행하는 과정에 교또시장은 조선의 중앙동물원에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과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김정일**령도자께 드린 선물동물들이 많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시장은 **김정일**령도자께 자기의 흠모의 마음이 담긴 붉은캉가루를 선물로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온갖 정성을 다해 마련한 선물을 조선을 방문하는 교또시문화관광국장에게 보내면서 **김정일**령도자께 올려줄것을 위임하였다.

붉은캉가루는 오스트랄리아대륙의 대부분지역에 분포되여있다. 캉가루가운데서 가장 큰 종류의 하나이다.

오스트랄리아에는 캉가루만도 약 150 종이 있다고 한다.

동물이라고 아무 상대와 무턱대고 쌍을 뭇지 않는다.

암컷들은 자기의 상대를 정함에 있어서 남보다 용맹스럽고 의지가 강하며 가족을 거느릴수 있는가를 《시험》해보고서야 결

심을 내린다. 그 시험은 다름아닌 수컷들끼리 진행하는 힘겨루기이다.

캉가루의 힘겨루기는 마치도 권투경기를 련상시킨다. 앞다리가 짧은 캉가루는 마치 사람처럼 뒤발을 버티고 서서 권투선수들처럼 싸움을 한다. 앞발로는 상대방의 얼굴을 사정없이 치고 밀어놓으며 뒤발로는 껑충껑충 모두발로 상대방을 차기도 하고 뒤로 돌아 한발로 차기도 한다.

붉은캉가루

마치 훈련받은 태권도선수들을 련상케 하기도 한다.

한번 싸움할 때마다 어찌나 격렬한지 털들이 눈에 뜨이게 뽑혀 날아난다. 누구든지 완전넘어뜨리기를 당하지 않아도 점점 뒤로 밀리며 싸움을 포기하고 달아나는쪽이 진것으로 된다.

그러면 이긴 수컷은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동시에 《안해》를 얻을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것이다.

붉은캉가루는 뒤다리로만 뛰는데 한번 뛰는 거리는 보통 1.2~1.9m이고 전속력으로 달릴 때에는 9m에 달해 마치 나는것같이 보인다. 그러니 캉가루는 너비뛰기명수라고 해야 할것이다.

짧은 거리를 달릴 때에는 시속 48㎞나 되는 속도를 낸다고 한다.

붉은캉가루는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 기르는것으로 특이한 짐승이다. 새끼를 배면 약 30~40일만에 한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몸길이는 2.5㎝이고 몸질량은 어미의 6만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호두알만 한 새끼이다.

암컷의 배에는 앞으로 열린 새끼주머니가 있으며 그속에 4개의 젖꼭지가 있다.

캉가루는 태반이 불완전하기때문에 새끼는 새끼집안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불충분하게 발육된 상태로 낳는다. 새끼는 새끼주머니에 들어가 어느 하나의 젖꼭지에 붙어서 젖을 먹는다. 젖은 자체로 빨아먹는것이 아니라 젖몸근육의 수축작용에 의하여 흘러나오는것을 피동적으로 받아먹고 자란다.

주머니속에서 7~8달정도 자란 새끼는 밖으로 나와 초원에서 자란다.

바깥세상에 나온 새끼는 먼저 자기 어미를 뒤발로 차는 련습부터 한다. 다음에는 자그마한 나무를 상대로 높이뛰기훈련을 한다.

물기가 한창 오르는 작은 나무는 탄성이 있어 꺾어지지도 않고 새끼캉가루가 밟아도 발딱발딱 일어서기때문에 높이뛰기훈련에서 아주 리상적인 대상이다.

어미는 자립할 나이가 된 새끼가 또다시 주머니에 뛰여들지 못하게 주머니밖에서 젖을 먹을수 있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주며 포근한 주머니가 아니라 드넓은 초원이 집이라는것을 깨우쳐준다.

붉은캉가루는 들개의 사냥을 받군 하므로 무리속에서 항상 엄지들이 교대로 보초를 선다.

들개의 사냥을 받았을 때 미처 무리를 따라 뛰지 못한 새끼를 엄지는 반드시 찾아온다.

캉가루라는 이름의 유래

1770년 6월《노리》호를 몰고 어느 한 고장에 당도한 영국탐험가는 배부위에 주머니가 있는 괴상한 동물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래서 토착주민에게 물었더니 《캉가루》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 괴상한 동물을 《캉가루》라고 불렀다.

후에 알고보니 《캉가루》는 괴상한 동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방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였다.

아메리카표범

조선의 중앙동물원에는 **김정일**령도자께 일본 교또시 시장이였던 다나베 도모유끼가 선물 올린 아메리카표범이 있다.

아메리카표범은 아메리카주의 제일 큰 고양이과 동물로서 아메리카맹수의 전형이라고 말할수 있다.

얼핏 보면 표범과 비슷하지만 표범보다 더 튼튼하다.

아메리카표범은 북아메리카남부와 남아메리카의 습한 지대에서 많이 산다. 몸질량은 63~136 kg정도이다.

아메리카표범은 원숭이, 메돼지, 파충류와 물고기를 잘 먹는다.

헤염을 아주 잘치며 물에 들어서기를 좋아한다.

아메리카표범은 강이나 못주변이 얕은 곳을 선택하여 물고기가 아래로 통과하는것을 지그시 기다리고있다가 돌연히 앞발로 내리친다. 그러면 그것이 발톱끝에 걸려나와 땅우에 떨어진다. 그다지 깊지 않은 곳에서는 헤염치는 물고기도 잘 잡아낸다.

거부기에게는 아메리카표범이 아주 무서운 적이다.

아메리카표범은 알을 낳으려고 연안에 나오는 거부기를 습격하여 먹는다.

거부기를 붙잡으면 뒤집어서 배를 우로 향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발톱으로 몸의 연한 부분을 후벼낸다. 이때 발톱은 수술칼과 같다. 전부 먹어버리지 않으므로 남은 부분은 주민들이 가져간다.

아메리카표범은 사람을 보면 오히려 자신이 먼저 피하며 특이한 정황외에는 사람을 습격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아메리카표범은 혼자 산다.

기르는 주인을 잘 알아보며 사람이 옆에 가면 대단히 좋아한다고 한다.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새끼와 함께 기르면 사이좋게 놀며 동작이 민활하고 보기도 좋다. 큰 아메리카표범은 활동이 둔하고

민활하지 못하다.

아메리카표범의 털가죽은 대단히 귀중하며 이 표범을 사냥하는 원인의 하나가 털가죽때문이라고 한다.

아메리카표범은 몸체의 여러 부분을 약재로 리용한다.

백 조

김일성주석께 일본《백조의 회》회장 마쯔이 시게루가 1991년 10월 25일 가장 깨끗한 마음을 담아 백조(혹고니)를 선물로 올리였다.

일본에 있는《백조의 회》는 백조의 분포와 번식을 촉진시키고 사멸을 막는 등 보존관리를 통제하고 소개 및 추세를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동물원에 찾아오시였을 때 물새못가에 이르시여 여러 종류의 물새들을 보시며 혹고니가 매우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였다. 주석께서는 못가의 아름다운 전경과 세계 여러곳에서 모여온 물새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루종일 여기 있으면 늙지 않겠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동물들은 사람들의 생활과 뗄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문학작품들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백조는 비교적 많은 작품들에 등장하는《인기인물》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백조가 한번 짝을 무으면 일생 갈라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큰고니(백조)

금 꿩

백조는 사랑의 대명사로 불리우며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을 낳고있다. 백조는 세계에서 첫 발레무용작품의 《주인공》으로 된 남다른《궁지》를 가지고있다.

발레무용의 시초를 1581년 프랑스 부르봉왕조의 궁전에서 왕자의 결혼을 축하하여 공연된 《왕비의 발레, 코마크》로 보고있지만 로씨야에서《백조의 호수》가 발레로 공연된 이후부터 이름있는 음악가들이 발레를 위한 작품을 많이 쓰게 되였다고 한다.

백조는 유럽, 동남아시아로부터 로씨야의 아무르강주변까지 분포되여있다. 조선에는 해마다 11월에 와서 겨울을 나고 3월 초순에 다시 번식지로 간다.

백조는유럽에서 900여년 기르는 과정에 반가금화되였다.

부리는 붉은색이고 코구멍주변과 부리주변은 검은색이다.

김정일령도자께 모스크바동물원 일군들도 백조와 금꿩을 선물로 올리였다.

동물원원장 웨. 웨. 스삐찐은 조선과 동물교류를 하는 과정에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76돐에 즈음하여 새로운 품종을 늘이는데 특별히 의의가 큰 개 옵차르까 한쌍을 선물로 올리였다.

그후 조선을 방문하여 중앙동물원을 참관하면서 요나스의 선물관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이 동물원의 일군들은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자기들의 동물원에서 기르던 백조와 금꿩을 선물로 올리였다.

조선에 온 희귀한 개들

씨비리하스끼

김정일령도자께 총련 오이따현 벳뿌시지부 위원장 최성교가 씨비리하스끼를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해방전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믿음속에 총련 한개지부의 책임자로 일하며 조선공민의 영예를 빛내여가고있었다.

여러차례 조국방문단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통하여 그는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 외국의 수반들과 인민들로부터 받으신 선물동물들을 모두 중앙동물원에 보내주시여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신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또한 **김정일**령도자의 배려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동물전문가로 자란 아들의 모습에서 한없이 고마운 조국의 사랑을 가슴가득 느꼈다. 그의 가슴속에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께 진귀한 동물을 선물로 올려 그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마음이 가득차올랐다.

씨비리하스끼

그는 동물업자들과 련계를 가지고 4개월동안 개들을 기르면서 그가운데서 제일 좋은것을 고르고 골랐다.

그는 조국을 방문할 때 씨비리하스끼를 비롯하여 6종에 8마리의 희귀한 개들을 가지고 와서 **김정일**령도자께

삼가 올리였다.

그후 다시 조국에 온 기회에 그는 령도자께서 중앙동물원을 찾으시여 여러 종류의 개들을 다 가져다 놓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다는 말씀을 전해듣게 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 그는 또다시 희귀한 개들을 마련하여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씨비리하스끼는 씨비리를 비롯한 추운 지방에서 썰매를 끄는 개로 리용되며 북극탐험에도 리용된다. 이 개는 아주 용감하고 멋지게 생겼다. 거동은 승냥이같지만 상당한 정도로 조용하고 온순하여 집지키는 일은 잘하지 못한다. 이 개는 지구력이 있고 그 어떤 곤난도 극복하려는 의지력이 매우 강하다.

최성교가 보내온 개들중에는 도베르만, 불테리어, 쎄빠트, 복서, 시바, 기슈도 있다.

도베르만은 도이췰란드의 도베르만에 의해 만들어진 종으로서 사람이름과 같이 불리우는 개이다.

불테리어는 《최고의 투견》으로 불리우는 개이다. 개가 소를 물어 죽이는 경기가 금지되자 영국에서는 투견경기에 흥미를 가지게 되였다. 경기에는 힘이 세고 재치있는 기질을 가진 개가 필요했다. 하여 1846년 불도그와 잉글리쉬 테리어를 교배시켜《최고의 투견》인 불테리어를 얻어냈던것이다.

불도그는 전형적인 영국종으로서 14세기부터 소를 잡는데 리용되여왔다. 불도그는 소를 추격하여 따라가 코를 물고 소가 넘어질 때까지 놓지 않는 이악성과 힘을 자랑하였다.

그후에는 이 개의 성질이 많이 온순해졌다고 한다. 공격형성질로 하여 어깨와 체구가 굵직하며 머리가 크고 주둥이는 짧다.

꼬리와 털도 짧다. 이것은 싸움개로서 상대에게 공격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한 본성과 지속적인 개량결과에 얻어진것이다.

걸모양은 매우 우악스럽지만 알고보면 매우 부드러울뿐아니라 애교도 부릴줄 아는 친근한 품성을 소유하고있다.

이 개는 령리하고 싸우려는 성질이 강하며 용감성과 인내성,

견인력, 지구력이 강하므로 다른 동물과 싸우는데 리용된다.

김정일령도자께 1994년 10월 1일 일본 요꼬하마시 이시가와상사 사장 장용봉도 도베르만을 비롯한 희귀한 개들을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애국적상공인들이 조국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김정일**령도자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장용봉은 그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수산물과 어구들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들과 무

《오수의 견》에 대한 이야기

옛날 조선력사에는 주인을 위해 목숨바친 개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이웃마을 잔치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산모퉁이에서 쓰러져 잠들었다가 산불이 난줄도 모르고 곯아 떨어져 위험에 처한 주인을 개가 목숨바쳐 구해낸 이야기이다. 후날 주인은 개의 고마움을 못잊어 개무덤을 정성스레 만들어주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에서 한그루의 나무가 자라났다고 한다. 바로 이 나무 즉 오수라는 말이 후날 그 고을이름으로 되였다고 한다.

전설같은 이 이야기가 사실에 기초한것이라는것을 증명하는 력사기록이 전해지고있다.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기록한 문헌은 고려시기의 문인 최사(1188-1260년)가 쓴 《보한집》이다. 책에서는 개주인은 선비 김개인이고 그가 개의 충절을 노래하여 지은것이 《견분곡》(개무덤노래)이라고 서술하였다. 이 이야기는 리조시기 력사문헌에도 기록되여있다.

세계최초의 만화로 알려져있는 영조 21년(1745년)의 《의구도》에는 주인을 산불로부터 구원해내는 개를 형상한 그림이 수록되여있으며 이보다 앞서 《동국여지승람》 제39권에도 오수라는 지명과 함께 충견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여있다.

역을 하는 상공인이다.

장용봉은 머나먼 오스트랄리아에서 좋은 품종의 생복을 수집하여 조국의 바다가양식장에 보내왔으며 륜전기재와 어구자재들도 많이 보내여왔다.

그는 **김일성**주석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였다는 비보를 받고 **김정일**령도자께 상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가셔드리려는 마음에서 자기가 소중히 기르던 개가운데서 희귀한 품종을 골라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스 파 니 엘

중앙동물원에는 **김정일**령도자께 1995년 11월 26일 미국의 뉴욕 탑코회사 사장 리금순이 삼가 올린 잉글리쉬 코커 스파니엘이 있다.

다섯차례나 조선을 방문하여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한 그는 그이께 자기의 지성이 깃든 선물을 올리고싶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애완용개를 선물로 마련하여 **김정일**령도자의 곁에서 항상 재롱을 부리면서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리금순은 옛날 왕족들만 키운다고 하던 유명한 애완용개인 스파니엘가운데서 제일 재롱스럽고 귀여운 코커 스파니엘을 선정하고 자신이 직접 기르면서 관찰해보았다. 그가 보낸 선물에는 **김정일**령도자의 건강을 바라는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리금순이 절절한 마음담아 올린 애완용개 잉글리쉬 코커 스파니엘을 조선인민이 다 볼수 있도록 중앙동물원에 보내주시였다.

200여종이나 되는 애완용개들가운데서 스파니엘을 두번째로 꼽는다면 좀 섭섭해할만큼 이 개는《애교》와《친절》이 철철 넘치는 개이다. 스파니엘이란 《에스빠냐개》라는 뜻이다.

이 개는 프랑스와 미국에서 많이 살고있다.

스파니엘은 사교적이고 매력적인 개로서 세련된 생김새와 사치스럽고 아름다운 털, 쾌활하고 온화한 성질, 애정깊은 표정으로 하여 애완용개로 사랑받고 있다.

스파니엘

이 개들은 개들끼리도 사교성이 좋다.

잔잔한 파도모양의 털이 비단결같이 아름답고 다리의 뒤쪽과 배의 좌우쪽에는 아래로 드리운 긴 장식털이 있다.

털색은 여러가지이다.

스파니엘종도 여러 품종으로 개량되고있다. 미국에 사는 잉글리쉬 코커 스파니엘은 원래는 사냥개로서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이 개의 조상은 오랜 날짐승사냥개로서 17세기 도요새(코크)사냥에 쓰이면서부터 코커라는 이름이 붙게 되였다.

이 개는 사냥물의 주의를 빙빙 도는 습관이 있으며 새의 냄새를 맡으면 꼬리를 흔들어 새가 나타났다고 알려준다. 목표물이 더 가까이 접근하면 엉뎅이를 흔들어 새가 날아간다고 알려주어 사냥군이 그것을 사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객실에서 사는 개로 되였으며 령리하고 응석부리기 좋아하는 생기발랄한 가정개로서 놀이와 산보를 즐긴다.

잉글리쉬 코커 스파니엘은 친절하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있는 작은 개로서 TV광고 등에 소개되고있다고 한다.

스파니엘종개들은 이처럼 애완용개들가운데서도 손꼽히는 동물이다.

쎄인트 버나드

김정일령도자께 2001년 3월 1일 중국심양농업과학기술개발원 부원장 송사용이 쎄인트 버나드 순종 3마리를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였던 할아버지로부터 **김일성**주석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영웅적조선인민에 대하여 많은것을 배우며 자라났다.

송사용은 조선을 방문하여 금수산기념궁전과 국제친선전람관 등 여러곳을 참관하는 과정에 어찌하여 온 세계가 **김정일**령도자를 세기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는가를 심장으로 느끼게 되였다.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한 그는 이런 선물관은 지금도 조선에만 있고 앞으로도 조선에만 있게 될것이라고, 이 전람관은 위인칭송의 대전당이라고 흥분된 자기의 심정을 표시하였다.

온 세계가 수많은 선물을 보내오는것으로 탁월한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표시하고있는 오늘 무엇을 선물 올려야 자기 마음의 천분의 일이나마 성의를 표시할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는속에 여러날이 흘러갔다.

생각끝에 그는 자기가 동물연구사라는 자각을 안고 조선에 없는 희귀한 동물인 세계적으로 제일 큰 개 쎄인트 버나드를 올리기로 결심하였다. 이미 1995년에 스위스에 가서 사온 쎄인트 버나드 순종 20마리를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여 성과를 거두고 그후 순종마리수를 5 000마리나 확보한 경험을

쎄인트 버나드

가진 그는 수많은 개들가운데서 가장 좋은것으로 3마리를 골라 **김정일**령도자께 삼가 선물로 올렸다.

쎄인트 버나드는 300여종이나 되는 개품종가운데서 단연 《왕》이라고 할수 있는 개이다.

일반적으로 이 개의 몸질량은 100㎏이나 되는데 최고 138.4㎏ 나가는것도 있다. 이 개는 일명 《알프스의 왕자》라고 부른다.

쎄인트 버나드는 스위스의 눈깊은 알프스산속에서 행방불명된 길손들을 구원해낸 개로 널리 알려졌다.

서유럽의 남부에는 이딸리아,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및 도이췰란드지역에 걸쳐 동서로 뻗어있는 큰 산줄기가 있다. 이 산줄기의 이름은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알프스라고 한다.

알프스산의 이딸리아에 가까운 스위스국경에는 험한 고개가 있는데 여기에 962년에 한 수도원이 세워졌다. 이 곳의 수도승들은 오랜 세월 이 고개를 넘는 길손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들은 길을 찾아 헤매거나 깊은 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숙박소에 날라다 돌봐주었는데 이 사업에 바로 쎄인트 버나드라는 개들이 리용되였다. 이 고개의 이름이 쎄인트 버나드였다고 한다. 고개이름을 본따 개의 이름도 쎄인트 버나드라고 불렀다. 쎄인트란 말은 성자라는 뜻이다.

1800년경에야 이 숙박소에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특수한 구조용개가 있다는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이 개들은 포도술이 든 작은 병과 빵을 담은 그릇 그리고 옷가지를 싼 꾸레미를 목에 걸고 구조작업에 종사한다고 한다.

두세마리씩 무리지어다니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한마리는 숙박소를 향해 짖어대고 한마리는 쓰러진 길손의 곁에 누워 몸을 덥혀주거나 손목이며 얼굴을 핥아서 온기가 있게 해주며 의식을 회복시키려고 길손의 입에 술병을 가져다댄다.

이 개는 후각이 대단히 발달되여 6m 얼음깊이에 빠진 사람도 잘 찾아 구원해낸다. 또한 눈사태를 예감하는 신비로운 육감을 가지고있어 사태가 일어나기 몇분 몇초전에도 그것을 알고 위험

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도와주기도 하였다. 구조작업도중에 죽은 개들도 많다고 한다. 이런 헌신적인 개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개는 벨리라는 개이다.

주인의 복수를 한 군견

로씨야의 어느 국경초소에 스따로스찐이라는 군견수가 있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정력을 군견에게 바쳤다. 그가 기르는 군견은 주인의 낯색을 보고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군 하였다.

어느날 국경을 넘으려던 적들과의 격전에서 스따로스찐이 희생되고 군견도 부상을 당하였다. 사람들은 희생된 군견수의 시체결에서 군견이 자기 주인을 보위하기 의해 적의 오른손에서 물어 뜯어낸 두개의 손가락을 발견하였다. 군견은 자기 주인을 위해 희생적으로 싸웠던것이다. 이때로부터 이 군견을 《웨르노스찌》라고 부르게 되였다. 웨르노스찌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뜻이다.

이 군견은 상처가 다 나은 다음에도 새 군견수의 말을 듣지 않고 늘 스따로스찐이 전사한 곳에 달려가 슬피 짖군 하였다. 사람들은 그후 이 개를 군견으로 더는 쓰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스따로스찐의 생전의 전우인 알렉싼드르에게 기르라고 주었다.

후날 이 군견은 알렉싼드르를 따라 어느 한 작은 도시로 이사왔다. 그때는 이 군견이 자기 주인을 잃은지 8년이 되는 해였다.

새 고장으로 온 개는 왜서인지 매우 불안해하면서 길가에 나가서도 냄새를 맡아보고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개가 갑자기 어디론가 떠났는데 아무리 불러도 돌아서지 않았다.

이로부터 2시간이 지난후 사람들은 이 개가 사람 하나를 물어죽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현장에 가보니 죽은 사람의 오른손 손가락이 2개 없었다. 바로 그 사람이 8년전 국경을 넘어와 스따로스찐을 쏴죽인 놈이였다.

주인의 복수를 한 개는 고요히 숨졌다. 원쑤와의 격투를 벌릴 때 몸에 여러발의 탄알을 맞았던것이다.

이 개는 쎄인트 버나드의 《성견》으로서 40명의 행방잃은 사람들을 구원하였다.

그러다가 1814년 어느 겨울날 밤 길잃은 한 길손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나선 이 개를 승냥이로 잘못 알고 총으로 쏘는바람에 죽었다고 한다. 이 개가 하도 유명하다나니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설이 돌고있다.

이 개는 베른의 자연박물관에 박제품으로 보관되여있는데 그 가슴에는 인명구조의 공로로 받은 수많은 메달이 장식되여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애견가들은 이 개의 용감하고 희생적인 《업적》을 영원히 전하기 위해 개공동묘지에 기념비를 만들어세웠다. 그 비에는 개가 구원한 길손을 등에 업은 모습이 새겨져있다고 한다.

어느 옛날 이 나라의 기사 한사람이 하인과 함께 눈내린 고개를 내려가다가 눈사태를 만나 눈속에 묻혔는데 이 개에 의해 두 사람이 다 살아났다.

기사는 령리하고 헌신적인 개의 소행에 감동되여 그후 자기가 죽을 때 자기와 개의 모습을 묘에 같이 새겨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지난 수백년간 이 개들에 의하여 구원된 사람들의 수는 약 2 500명이나 된다고 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동물원에 여러가지 종류의 개를 다 가져다놓으면 보기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김일성**주석과 자신께서 받으신 선물개들을 모두 중앙동물원에 보내주시였다.

들　개

김정일령도자께 1988년 11월 19일 짐바브웨대통령이 들개를 선물로 올리였다.

짐바브웨에서는 희귀한 동물들과 함께 들개를 특별히 보호한다고 한다. 관광객들에게도 야생동물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선물

로 주는 례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관례를 깨뜨리고 **김정일**령도자께 삼가 들개를 선물로 올렸다.

들개는 사하라사막이남의 평원 혹은 산림지대에서 산다.

들개의 몸이 히에나와 비슷하다고 하여 히에나개라고도 부르며 아프리카들개, 사냥개라고도 한다.

몸질량은 16~27 ㎏정도이다.

포유류에서 《부부정》이 류다른 동물의 하나이다.

이 들개는 먹이를 먹을 때에도 싸우지 않고 제각기 한덩어리씩 먹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물고있는것을 뜯어 나누어 먹으며 휴식하거나 잠잘 때에도 수컷과 암컷은 다정히 누워있다.

동물원에서 사는 들개의 수컷은 먹이를 먹고 20~30분 있다가 그것을 토하여 《안해》와 《자식》들이 있는 방의 쇠그물짬에 놓아주군 하였다.

야생상태에서도 수컷은 먹이를 사냥하여 암컷과 새끼를 먹인다. 암컷은 먹이를 큰 덩어리로 삼켰다가 절반쯤 소화된것을 토하여 새끼들에게 먹인다. 새끼들이 크면 사냥을 떠나는 무리에 섞여간다.

어미들이 잡은 먹이에 새끼들이 달려들면 《부모》들은 새끼들이 배불리 먹다 남긴것을 먹는다.

어미는 새끼를 갓 낳았을 때 주위가 소란스러우면 새끼들을 물고 구석으로 가져가며 계속 떠들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몹시 불안해한다.

들개는 보통 2~6마리, 최고 8마리까지 새끼를 낳을수 있으며 기르는 조건에

들 개

서는 16~19 마리까지 낳는다고 한다. 그런데 젖꼭지는 14 개이므로 2~3 마리는 대기하고 있다가야 먹을수 있다.

《부부정》이 남다른데 비해 《형제정》은 없는것이 들개의 특징의 하나이다. 새끼들은 먹이싸움을 하다가 센것들만 살아남는다고 한다.

들개의 성질은 대담하고 집요한것이다.

들개가 무리를 지어 사냥할 때면 너무도 집요하게 달려들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나이먹은 사자도 도망친다고 한다.

들개는 들양이나 줄말새끼도 잡아 먹는다.

들개는 40~60 마리씩 무리를 지어사는데 먹이사냥은 15 마리정도의 무리로 진행한다.

사냥할 때에는 몇마리를 대기시키고 일부는 나이든 수컷이 이끌고 한줄로 서서 간다.

이끄는 수컷은 먹이동물 가까이로 천천히 접근하다가 200m 정도 가까와지면 갑자기 최대속도로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체 무리는 수컷을 따라뛰며 수컷이 정한 먹이동물을 따라가 목을 물어 거꾸러뜨린다.

먹이동물이 꿈틀거려도 들개무리들은 달려들어 사정없이 먹는다. 12 마리의 들개가 들양 1 마리를 15 분동안에 다 먹어버린다고 한다.

들개의 적은 히에나와 늑대이다.

북과 남을 오고간 개들

풍 산 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대중 전《대통령》내외에게 조선에서 예로부터 유명한 풍산개 원종 한쌍을 선물로 보내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들내외에게 마음에 드는 이름을 지어부르도록 하시였다.

그들은 조선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풍산개에《우리》와 《두리》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후 풍산개에 대한 소개선전용편집물을 만들어 **김정일**령도자께 삼가 올리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며 사랑을 받고있는 풍산개는 2000 년 11 월 《청와대》에서 서울대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풍산개를 구경하기 위해 서울과 지방들에서 각계층 인민들이 서울대공원으로 모여들었다.

이에 대해 《한겨레》를 비롯한 남조선출판물들은 선물개가 들어오기전까지 찾는 사람이 적었던 서울대공원이 남녀로소들로 붐비고있다고 보도하였다.

풍 산 개

서울대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김정일**령도자께서 보내주신 풍산개를 보면서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며 통일의 웃음꽃을 피우고있다고 한다.

풍산개 《두리》는 2001년말에 7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풍산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관심은 더욱 커져 저저마다 풍산개새끼를 자기들이 사는 지방동물원에도 보내줄것을 간절히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 대전 등에 있는 동물원들에 풍산개새끼가 나누어졌다.

서울대공원측은《이번 선물개분양은 남북정상회담의 상징성이라는 큰 의미속에 〈우리〉와 〈두리〉를 보고싶어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나누어주게 된다.》고 하였다. 풍산개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 남조선곳곳에서 풍산개를 기르는 목장들이 생겨나고 풍산개에 관한 책들도 출판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풍산개를 국제적인 명개로 등록하기 위한 운동까지 벌리고있다.

남조선에서 일고있는 《풍산개바람》, 그것은 **김정일**령도자를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의 령수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한없이 경모하는 남녘인민들의 순결한 마음의 표시이다.

풍산개는 량강도 풍산지방(오늘의 김형권군일대)의 토종이며 조선의 특산품종의 개이다. 지명을 따서 풍산개라고 부른다.

풍산개는 성질이 온순하고 령리하며 주인을 잘 따르며 주인과 자기를 해치려들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끝끝내 물어메치는 강한 투지와 용맹이 있다.

풍산개는 낯이 둥글고 주둥이가 짧으며 귀는 삼각형모양으로 곧추 일어섰다. 목이 짧고 굵으며 앞가슴이 넓고 발달되여있는데다 온몸의 털빛이 희여 매우 다부지고 단단해보이면서도 귀여운 인상을 안겨준다.

풍산개는 사냥개들가운데서 《왕》이라고 할수 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전후에 풍산개를 순종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량강도 김형권군 광덕리에 풍산개목장을 건설해주시고 모든 가정들에서 풍산개를 순종으로 기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풍산개를 사랑하고있다.

진 도 개

중앙동물원에는 **김정일**령도자께 2000년 6월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내외가 삼가 올린 진도개가 있다.

온 조선민족이 통일의 열기로 가슴끓이던 력사의 나날 **김정일**령도자의 크나큰 인력에 끌려 평양을 찾은 그들은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담아 유명한 진도개 한쌍을 삼가 선물로 올렸다.

진도개는 노루나 메돼지 같은 큰 짐승도 사냥할뿐아니라 꿩도 사냥하며 주인에게 물어다 주기도 한다.

진 도 개

활기에 넘친 두눈은 보통크기로서 어두운 밤색이 나며 우로 약간 치우쳐올라가있다.

몸체는 보통크기이고 골격이 튼튼하며 힘이 세고 기민하다. 대가리뼈는 폭이 넓고 삼각형이며 귀는 삼각모양으로 곧추 섰다.

진도개꼬리는 잔등우로 힘있게 말려 올라갔다.

진도개는 조선특산품종의 개이다.